

행정안전부
11-1220000-000178-10

2009
년도
마약류
밀수동향

2009년도

마약류 밀수동향

마약밀수 정보를 알고 계시나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국변 없이 이리로(125번)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비밀과 안전이 확실해 보장됩니다.

관세청
www.customs.go.kr

관
세
청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발 간 사



우리나라를 통상 '마약청정국'이라고들 합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마약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금년도 UN 마약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메스암페타민 30kg이 압수된 반면 일본에서는 400kg, 중국에서는 6,200kg 미국에서는 7,500kg이 압수되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메스암페타민 외에도 코카인이 97,800kg, 대마초가 1,472톤이 압수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들은 다른 나라들이 마약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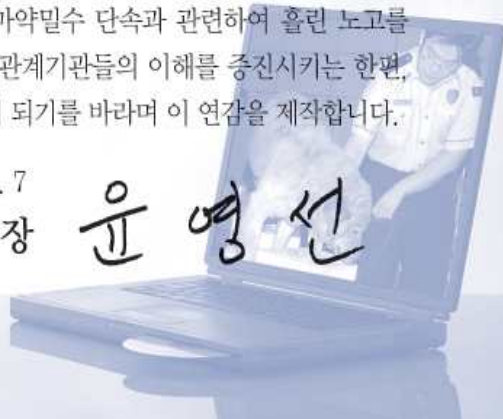
그러나 마약문제의 심각성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최근 관세청은 마약과 관련하여 2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는 마약청정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우리나라를 국제범죄 조직이 중계지로 이용하려는 기도이며, 둘째는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과 해외 유학생 출신의 젊은이들에 의한 신종마약 수요입니다. 대부분의 마약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국경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세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UN 등 국제기구는 마약단속 정책과 관련하여 세계 각국의 단속기관이 남용자의 처벌보다는 밀수입 단속과 같은 공급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세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 한해 동안 관세청 직원들이 마약밀수 단속과 관련하여 흘린 노고를 기록으로 남기고, 관심 있는 모든 국민과 관계기관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편, 나아가 전 세계의 불법 마약 퇴치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연감을 제작합니다.

2010. 7

관 세 청 장 윤 영 선





I. 마약류 개요

1. 마약류의 정의와 남용시 증상	5
2. 마약류 분류	7
3. 마약 원료물질	10
4. 마약류 계통도 및 특성	12

II. 마약류 일반 동향

1. 세계 불법 마약류 일반 동향	19
가. 불법 마약의 생산, 밀거래 및 남용의 전세계적 현황	20
나. 주요 마약 시장	24
다. 마약 밀거래와 중계이동 국가들의 안보 위협	35
2. 국내 마약류 단속 동향	38
가. 마약류 사범 추세	38
나. 마약류별 압수 현황	42
다.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현황	43
라. 외국인 마약류 사범 현황	46

III. 2009년 관세청 마약류 밀수단속

1. 마약류 단속업무 개요	51
2. 2009년도 마약류 밀수동향	54
※ 참고자료 : 마약류 적발 주요통계	74



2009년도 마약류 밀수동향

IV. 마약류 밀수 주요 적발사례

1. 마 약	83
2. 향정신성의약품	89
3. 대 마	114
4. 원료물질.....	127

V. 마약관련 국제활동

1. 제32차 아·태지역 마약법집행 기관장회의(HONLEA) 참석	133
2. 제14차 아·태 마약단속회의(ADEC) 참석	137
3. 제52차 유엔 마약위원회(CND) 참석	139
4. 제19차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 참석.....	147
5. 제33차 아·태지역 마약법집행 기관장회의(HONLEA) 참석	153
6. 한·태 교환훈련 보고서	160

【참고자료】

1. 해외에서 반입시 마약류로 단속대상이 되는 의약품	167
2. 국제연합(UN)의 마약관련 조직 및 협약	168
3. 마약류 및 원료물질 HSK 연계표	172

I . 마약류 개요

I . 마약류 개요

1. 마약류의 정의와 남용시 증상

가. 마약류 정의

마약류란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행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ps psychoactive substance)을 말하며 협의로는 생산, 판매, 사용이 금지된 약물(illicit drugs)을 지칭하고 법률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총칭한다.

나. 마약류 남용시 증상

사람들은 치료 또는 종교적 목적으로 혹은 즐거움을 위해 오랫동안 마약류를 사용해 왔으며, 19세기 말에는 화학과 약학의 발전에 힘입어 코카인과 헤로인 같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를 합성하게 되었다. 또한 주사기의 발명에 따라 사람들은 마약류의 보다 강력한 효과를 경험 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중독의 위험성도 그 만큼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마약류의 광범위한 남용은 1909년 상하이에서 마약위원회가 조직되면서 국제적인 마약류의 통제가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그 후 UN을 통해 마약류의 판매와 사용을 의료용에 한정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차례 계속되었다.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정(UN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을 시작으로 1971년도에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¹⁾(UN Convention on Psychotropic Substances). 1988년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협약(UN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1) 마약류의 남용(drug abuse)이란 표현은 이 때 등장되었는데 그 의미는 상기 협정상의 약물을 의료용이 아닌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Psychotropic Substances)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²⁾에서는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에 따라 마약류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 ①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며(依存性)
- ② 이를 중단할 경우, 신체적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있으며(禁斷現象)
- ③ 약물효과에 대한 내성으로 복용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정상상태로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耐性)
- ④ 危害의 정도가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것(社會的害惡性)

이와 같이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투약할 경우에는 금단현상, 심리적 의존성, 내성, 환각현상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금단현상(禁斷現象)은 마약중독자가 복용하던 마약을 끊으면 신체적(생리적)으로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복용량에 비례하여 그 증상이 심해진다.

일반적으로 마약은 복용 후 수 시간부터 증상이 나타나서 하루 내지 이틀이 지나면 그 정점에 다다르게 되며 불안감·동공수축(억제제 복용시)·동공확대(흥분제 복용시)·불면증·현기증·구역질 등을 느끼고 설사를 하며 혈압이 상승하며 식욕을 잃고 탈수현상에 빠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심리적 의존성(Psychological dependence)이란 감정의 조절을 마약에 의존하려는 성향으로 소외감, 무관심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는 아편제제의 마약을, 수동적이며 동일대상에 애증(愛憎)을 번갈아 느끼는 사람은 진정제를 복용하여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되며 피동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환각제를 사용하여 사회참여 내지는 자신의 세계를 확대시키려한다.

내성(Drug Tolerance)란 사용횟수에 비례하여 전에 사용하던 동일량으로는 이전에 느꼈던 도취감에 이를 수 없게 되는 현상으로 아편, 헤로인,

2) WHO(1993) The ICD-10th Classification of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 diagnostic criteria for research .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몰핀 등 아편계열의 마약류는 높은 수준의 내성(耐性)을 형성하는데 비하여 알콜이나 바르비탈염제제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내성을 형성시킨다.

플래시백(Flashback) 현상이란 환각제를 복용하던 사람이 이를 중단한 후 수 주일, 수 개월 또는 수 년 후에 환각제를 복용했던 당시에 경험했던 환각상태가 재현되는 현상을 말한다. 환각제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과는 달리 흥분작용과 억제작용을 번갈아 일으켜 예기치 못한 돌발적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 감정억제를 일으켜 자살을 꾀하거나 비인격적 행위를 유발하기도 한다.

2. 마약류 분류

가. 법률에 의한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1호).

(1) 마 약

(가) 일반개념 : 앵속·아편 및 그 제제와 그와 유사한 약리작용 및 중독작용이 있는 약물

(나) 약리학적 개념 : 마취·진통작용이 있으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약물

(다) 법정마약(법 제2조제2호)

① 천연마약 : 앵속·아편 또는 코카엽

② 가공마약 : 앵속·아편 또는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몰핀·코데인·헤로인·코카인 등)

③ 합성마약 : 위 ①, ②의 약물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페치딘, 메사돈 등)

④ 함유마약 : 위 ①, ②, ③의 약물을 함유하는 것, 단 한외마약은 제외

* 한외마약이란 다른 약물물질과 혼합되어 본래의 약물로 제제될 가능성이 없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

(2) 향정신성의약품(법 제2조제4호)

(가) 정의 :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을 말한다.

(나) 분류 :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성, 의료용으로서의 유용성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무가 크기에 따라 동법 제2조제4호에서 5가지로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라 관리·금지 및 처벌을 달리하고 있음.

- 가목 : 의학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안전성이 결여되고 의존성이 큰 물질(LSD, 싸이로신 등 26종)
- 나목 : 제한적으로 의료용에 사용(메스암페타민, MDMA 등 26종)
- 다목 : 오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음(비르비탈 등 60종)
- 라목 : 펜플루라민 등 67종
- 마목 : 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혼합물질(제제)등

(3) 대마(법 제2조제5호)

(가) 정의 : 대마란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나) 제외 :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하는 행위나 그 목적으로 대마종자

를 소지하는 행위 및 그 정을 알면서 대마종자 또는 대마종자의 껍질을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대상

나. 효능에 의한 분류

모든 마약류는 인체에 미치는 효능에 따라 억제제(depressants), 각성제(stimulants), 환각제(hallucinogens)로 분류하며 먹거나, 마시거나, 주사하거나, 냄새를 흡입하거나, 흡연하거나, 코로 가루를 들여 마시는 방법 등으로 사용한다.

○ 억제제(진정제)

-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호흡, 혈압, 심장박동과 세포의 신진대사와 같은 활동을 억제하는 물질로 헤로인 등 아편계열의 마약과 마약으로는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알콜 등이 이에 해당
-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지만 계속 사용하면 의존성과 금단 현상이 발생

○ 각성제(흥분제)

- 억제제와 반대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인체를 보다 활력있게 해주는 물질로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및 일부 살 빼는 약 등이 이에 해당
-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상승, 동공확장, 공격적, 극도의 불안, 정신병자 행태를 보이기도 함

○ 환각제

- 현실의 왜곡 같은 정신상태나 기분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약물로 LSD, 대마초 등이 해당
- 감각이 왜곡되어 환상을 보거나 극도의 행복과 불행의 교차를 느끼거나 망상, 불안 등을 유발

3. 마약 원료물질(법 제2조제7호)

가. 개 요

- “원료물질”이라 함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함(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 1988년 UN에서 채택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외 「부속서」에는 대표적인 원료물질 23가지를 명시하여 동 물질의 불법적 거래 및 사용 등을 국제적으로 통제
- 국내법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2009. 7. 1.자로 원료물질 25가지(1군 17개, 2군 8개)를 규정하고 원료물질의 제조·수출입·매매 등을 통제하고 있고, 1군 16개 품목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임
 - － 1,4-부탄디올(1,4-Butanediol)은 '09년 1군에 신규 지정(2009. 7. 1.)

나. 1군 : 17개 품목

번호	품 명	산 업 목 적	불 법 용 도
1	에페드린	의약목적, 비오틴 제조	필로폰 제조
2	에르고메트린	의약목적, 자궁수축지혈제	LSD 제조
3	에르고타민	의약목적, 편두통치료제	LSD 제조
4	리서직산	유기화합물 합성	LSD 제조
5	1-페닐-2-프로파논	유기화합물 합성	암페타민 제조
6	슈도에페드린	의약목적, 비충혈제거제	필로폰 제조
7	엔-아세틸안스라닉산	의약화합물, 플라스틱 중간체	메타카론 제조
8	이소사프롤	향료, 유기합성	엑스터시 제조
9	3,4-메칠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	유기화합물 합성	엑스터시 제조
10	피페로날	향료, 유기합성	엑스터시 제조
11	사프롤	향료, 유기합성	엑스터시 제조
12	놀에페드린	비충혈제거제	필로폰 제조
13	무수초산	알킬화제, 폭발물, 염료제조용 등	헤로인 제조
14	아세톤	유기용매, 화학반응제 등	헤로인, 코카인 제조
15	과망간산칼륨	염료, 사진, 유기합성 등	코카인 제조
16	감마부티로락톤	수지용 용제, 페인트 제거제	GHB 제조
17	1,4-부탄디올	합성수지 중간재	GHB 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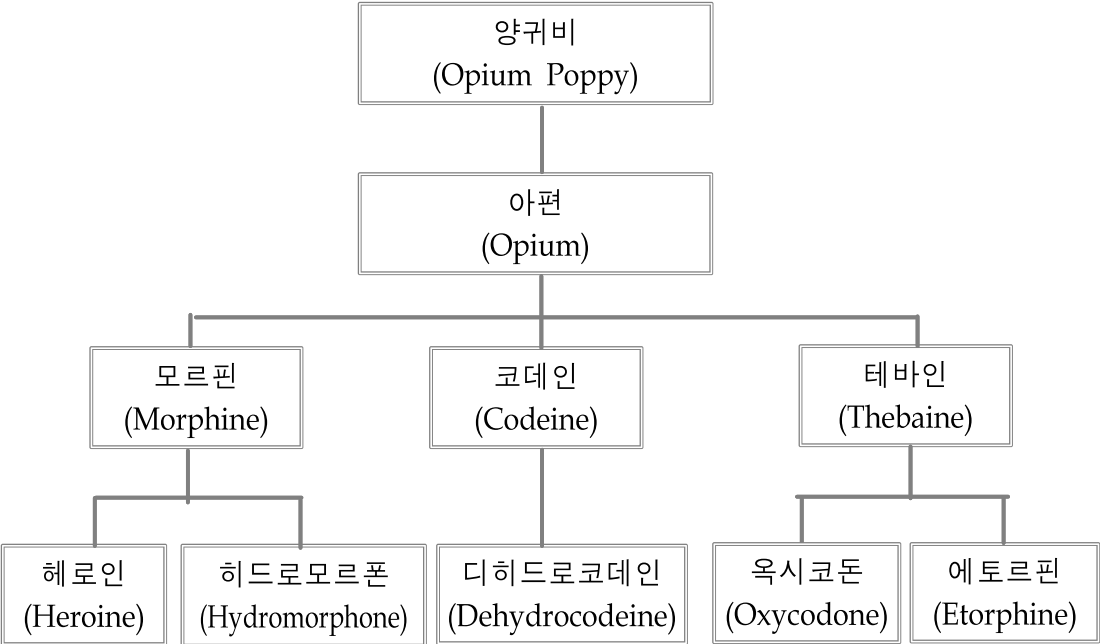
다. 2군 : 8개 품목

번호	품 명	산업목적	불 법 용 도
1	안스라닐릭산	염료, 향료, 유기합성 중간체	메타몰론 제조
2	에칠에텔	유기용매, 플라스틱 제조	헤로인, 코카인, PCP 제조
3	초산페닐	향료 제조	암페타민, 필로폰 제조
4	피페리딘	의약품도(마취제 제조), 촉매 등	PCP(펜사이클리딘) 제조
5	염산 (염류 제외)	Cl 유도체, HCl 유도체 제조	코카인, 헤로인 등 HCl염 제조
6	메칠에칠케톤	코팅용제, 부착제 등	코카인 제조
7	황산 (염류 제외)	종이, 폭발물제조, 산화제, 건조제	코카인 추출, 황산염 제조
8	톨루엔	폭발물, 염료 제조	코카인 제조



4. 마약류 계통도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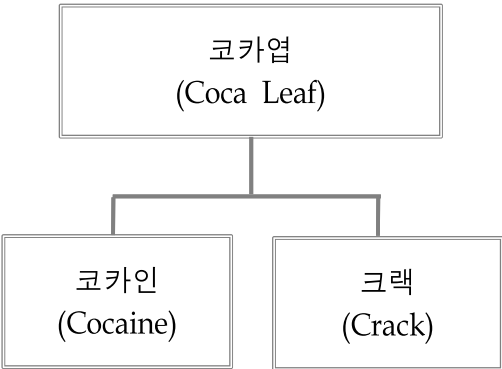
가. 아편계 및 코카계 마약



양귀비 경작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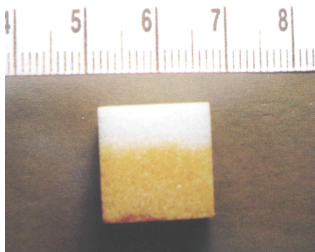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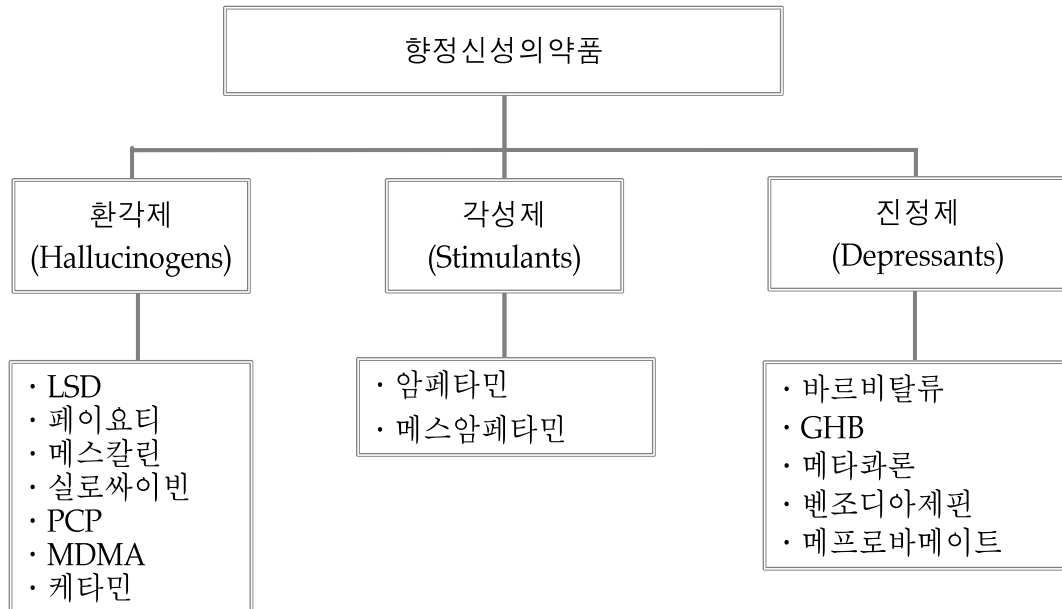


양귀비



코카엽

나. 향정신성의약품



L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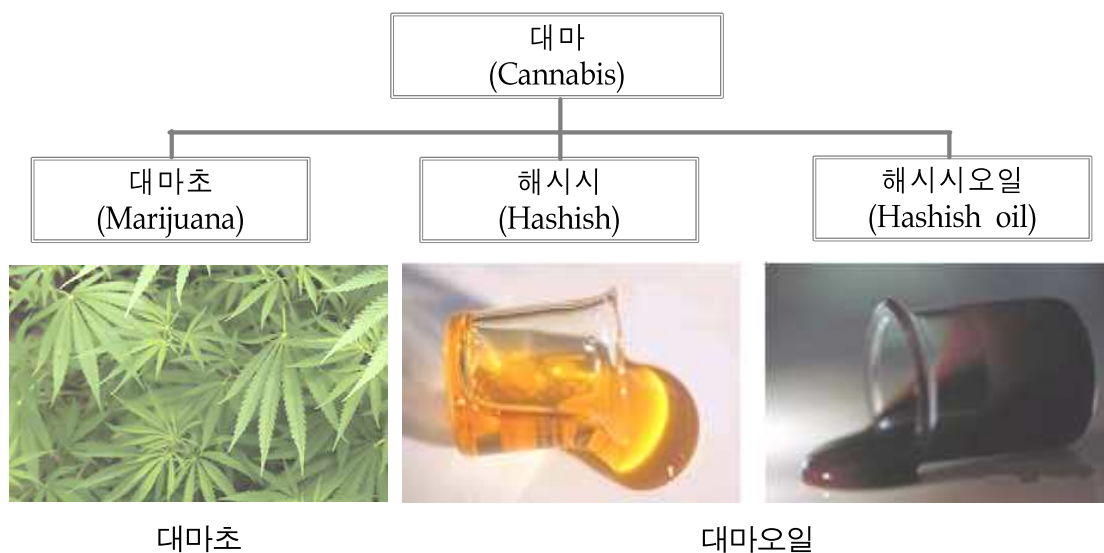


메스암페타민



GHB

다. 대 마



구분	종 류	특 성	작 용	주 산지
천 연 마 약	아편계	양귀비	○ 키 1~1.5m 식물 ○ 백색, 적색, 자색 꽃	황금삼각지대 (미얀마, 태국, 라오스), 황금초생달지역 (이란, 파키스탄, 아프간) 중심 온대, 아열대 등 거의 세계전역
		아편	○ 설익은 꽃봉우리에 생채기를 내어 우유빛 즙을 담아두면 암갈색 타르화(생아편) ○ 응고하면 딱딱한 왁스형 ○ 달콤하고 특쓰는 향, 건초향	
		물핀	○ 아편으로 물핀 제조(10:1), 무취, 쓴맛 ○ 백색, 갈색, 커피색 분말, 캡슐, 주사약	○ 의약용으로 사용 ○ 진통 강력, 도취, 수면 ○ 아편보다 강한 중독성, 호흡억제, 구토, 발한, 변비
		헤로인	○ 물핀량 1/2로 동일효과 ○ 백색, 황백색, 회색, 연갈색 설탕형태 미세결정 ○ 무취, 쓴맛, 물핀에 무수초산을 가한 제조로 밀조품은 강한 식초냄새	○ 쾌감 쇠도 후 줄음, 도취 ○ 물핀 보다 강한 중독성, 변비, 동공수축, 호흡 감소, 무감각, 내분비 계통 퇴화, 자아 통제 불능
		코데인	○ 물핀으로부터 분리 ○ 주사, 캡슐, 정제	○ 의약용으로 사용 ○ 진통, 진해 특효
	코카계	코카인	○ 코카엽에서 추출 ○ 솜털같은 백색결정분말 ○ 코흡입, 주사, 구강투여	남미(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 ○ 효과 신속 일시적, 대 뇌홍분, 동공확장, 심 박증가 ○ 심장장애, 호흡곤란, 경련, 공격적, 과대망상, 정신착란
		크랙	○ 코카인에 베이킹소다, 물 넣고 가열하여 제조 ○ 작은 돌과 같은 결정체 ○ 워터파이프로 흡연	
합 성 마 약	페치딘계	○ 물핀 대용, 3~6시간 지속, 주사, 정제, 캡슐 (중국명 : 도냉정)	○ 진통, 진정 ○ 졸립고 멍청, 호흡감소, 경련, 내성, 의존성	
	메사돈계	○ 물핀 대용, 24시간 지속, 주사, 정제, 캡슐	○ 아편계 중독치료 ○ 내성, 의존성	

구분	종 류		특 성	작 용	주 산지
향정신성의약품	환각제	L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색, 무미, 무취 결정분말 ○ 투명액, 정제, 각설탕, 캡슐형, 이쑤시개·아스피린·종이·사탕·빵 등에 흡착 ○ 소량(1회 0.1mg)으로 6~12시간 환각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각, 자기모습 제3자 입장 관찰, 음악의 색·맛 감상, 광범위한 감정 체험, 감지·판단력 감소, 자기통제력 상실 ○ 동공확대, 홍조, 체온 저하, 발한, 현기증, 혈압 상승, 재발성 환각질환 	북미, 유럽 동남아
		MDMA (엑스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페타민류 합성마약 ○ 로고 각인 정제, 캡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취, 식욕상실 ○ 변비, 혼수, 자아통제 불능 	유럽, 미국
		메스칼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 선인장 페이요트(Peyote)에서 추출 ○ 분말, 캡슐, 용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상, 환각 	
	각성제	암페타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 염산에페드린 ○ 백색, 회색, 황색 분말 또는 크리스탈 덩어리 ○ 약간의 신맛, 물에 잘 녹음 ○ 주사, 코 흡입, 술이나 음료에 타서 복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지확장, 혈압상승, 심박증가, 동공확대, 혈당증가, 근력증가 ○ 황홀, 공복감상실, 상쾌, 자신감, 식욕억제, 피로 억제, 정신적의존성, 내성 ○ 불안, 흥분, 환각, 망상, 불면, 정신착란, 플래쉬백 	중국, 필리핀, 대만, 홍콩, 태국, 미국(히로뽕), 유럽(암페타민)
		YAB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페타민류 25% 함유 ○ 작은 정제(1알:0.2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취, 흥분, 환각, 공격성 ○ 우울증, 정신착란, 공포 	태국, 미얀마
	억제제	진정수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르비탈제제등 ○ 알콜과 남용시 치명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리기능 억제, 불안, 긴장, 불면 치료 ○ 의존성, 내성, 호흡곤란, 심기능 저하, 동작·사고 둔화, 기억력 장애 	
		신경안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콜과 남용시 치명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안, 긴장 완화 ○ 의존성, 내성, 운동실조, 착란, 졸리움 	

구분	종 류	특 성	작 용	주산지
대 마 류	대 마 초	○ 연녹색, 황색, 갈색 잎 ○ THC(Tetra Hydro Cana- binol) 성분이 도취·환각 유발	○ 흥분과 억제 두가지 작용, 초조, 풍족, 이완, 꿈꾸는 느낌, 공복감, 단 것 먹고 싶은 느낌, 감각 미묘변화 ○ 공중에 뜨는 느낌, 빠른 감정변화, 변비, 환각, 심박증가, 공포, 불안, 사고 및 기억 단절, 집중력 상실, 자아상실감, 영상왜곡, flashback (중단 후 환각 재현)	온대, 열대(아시아, 아프리카, 미주)
	대마수지 (해시시)	○ 대마초 300kg로 해쉬쉬 1kg 제조 ○ 갈색, 흑색의 수지 ○ THC 2~10% 함유		
	대마오일 (해시시오일)	○ 해쉬쉬 3~6kg로 해쉬쉬오일 1kg 제조 ○ 암록색, 흑색의 기름형태 ○ THC 10~30% 함유		



Ⅱ. 마약류 일반 동향

II. 마약류 일반 동향

1. 세계 불법 마약류 일반 현황³⁾

1998년 유엔 마약 특별총회에서는 2008년까지 불법마약 생산과 남용의 “퇴치 또는 상당한 감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환으로 몇몇의 계획을 채택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유엔 회원국들은 현재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마약으로 인한 위협에 대한 큰 우려를 나타냈고 앞으로의 10년 동안에도 마약퇴치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기로 결정했다.

회원국들의 바람대로 2019년까지 총 마약 공급과 수요가 완전히 제거되거나 크게 줄어든 수 있을까? 국가적인 수준에서, 많은 국가들이 10년 안에 마약 문제를 크게 개선시키게 된다면 각 국가들의 이러한 개별적인 성공들이 세계적 수준에서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마약 통제 역사가 주는 교훈은 일치되지 않은 국가적·개별적인 노력들은 세계적 수준의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교훈은 제한적인 방법으로는 매우 거센 마약 밀수 흐름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2019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마약 공급과 수요를 감소시켜야 하며 마약 시장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제적인 전략을 새로 수립한 구조 하에서의 국제적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것을 잘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국경을 초월하여 밀거래되는 마약 시장이 오늘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 세계 마약 보고서는 이러한 목적에 기여할 것이다.

이번 세계 마약 보고서는 국경을 초월하는 세 가지 마약 시장(헤로인, 코카인 그리고 암페타민 계열)을 분석하여 보고하였다. 대마는 소비국가와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인 경로를 통하여 종종 다뤄지기

3) UNODC의 “WORLD DRUG REPORT”를 참고로 작성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또한 대마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남용되는 마약이기 때문에 다른 세 가지 마약보다는 국경을 초월한 마약 시장 분석에 있어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마약 시장에 대한 논의는 대마를 포함한 4가지 주요 마약의 통계치 추세를 분석하여 소개 될 것이고, 마약 생산과 압수 그리고 소비와 관련된 가장 최근 정보가 제공될 것이며 이러한 정보의 한계점들 또한 명백하게 설명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점들과 관련된 다른 근원지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이 통계치는 주로 연례 보고서 질문지와 UNODC가 회원국들과의 협력 하에 주관하는 불법 농작물 조사를 통해 수집되어 제공하였다.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는 점을 주제로 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마약 밀수와 안보 위협이다. 이 부분에서는 유통 국가들 특히 중남미와 캐리비안 해협 및 서아프리카에서 마약 거래가 지니고 있는 폭력성과 정부 기관의 부패의 수준과 같은 영향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약은 보고서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목적을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세계 마약 시장에서 총 변화를 설명할 것이고 마약 시장 분석과 추세 분석을 포함하는 여러 세계 마약 시장의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약 유통 국가들의 마약 불법거래에 따른 영향력에 대해 논의가 요약 되어 질 것이다.

가. 불법 마약의 생산, 밀거래 및 남용의 전세계적 현황

(1) 생 산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카인과 헤로인 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발전해왔고, 전 세계적으로 아편 양귀비 경작지는 2007년 이후 2009년에 181,400ha로 23% 감소하였음
- 양귀비 경작지의 감소 추세와 함께 아편 생산 또한 2007년의 8,890mt에서 2009년 7,754mt으로 13% 감소하였고, 잠재적 헤로인 생산량 또한 2007년의 757mt에서 2009년에 657mt로 감소하였음
- 전 세계의 코카 경작지는 2007년 이후 2009년에 158,800ha로 5% 감소

했고 2000년 이후로는 28% 감소했음

- 전 세계의 코카인 생산량은 2007년의 1,024mt에서 2008년에 865mt으로 16% 감소했고 코카인 생산량은 2009년에 4% 감소했음

그러나 이러한 최근의 성공적인 결과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이뤄진 것임을 고려해야 된다. 마약문제 및 전세계 잠재적인 아편생산량에 집중했던 가장 최근의 UN 특별총회인 1998년 이래로 2009년은 78%가 증가한 4,346mt에서 7,754mt으로 증가하였다. 다행이도 이러한 생산량의 증가는 최근의 비축된 대량의 아편만큼 소비의 증가로 직결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만약 마약 생산이 완벽히 제거된다고 해도, 어디선가 존재하고 있는 비축된 마약들로 인해 공급이 최소 2년간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비록 코카인 재배지와 생산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1998~2008년의 전 세계적인 잠재적 코카인 생산량의 증가는 5%로 다소 완화된 듯하고 존재하는 데이터들은 전 세계적인 코카인 생산이 최근 (2004~2009) 크게 감소해왔음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헤로인 그리고 코카인과는 대조적으로, 대마와 암페타민 계열의 각성제들은 매우 소수의 해외 생산량의 추정치를 가지고 있고 생산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마약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졌다. 2008년에는 13,000mt~66,100mt 사이의 대마초가 생산되었고 2,200mt~9,900mt의 대마수지가 생산되었다. ATS의 암페타민 계열의 제조는 2008년에 161mt~588mt의 범위였으며 엑스타시는 55mt~133mt의 범위로 생산되었다.

(2) 불법거래

비록 몇몇의 대마와 엑스타시들 또한 지역들 사이에서 밀수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원격지간 불법거래는 코카인과 헤로인이 주를 이룬다. 대부분의 대마초, 메스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은 여러 지역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카인 압수량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되었었다. 북미지역과 유럽지역에서의 압수량은 감소해왔으나, 중남미 지역에서는 증가해왔다. 2004년부터 2007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해온 서아프리카를 통한 불법거래는

아마 바뀌게 될 것이고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편제 압수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현상은 아편과 헤로인 압수량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대조적으로 몰핀 압수량은 2008년에 감소했고 가장 큰 압수량은 아프가니스탄 이웃국가인 이란과 파키스탄의 이슬람 공화국과 같은 곳에서 보고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ATS 압수 추적은 암페타민과 메스암페타민, 엑스타시를 포함하는 각기 다른 시장들 때문에 더욱 복잡해진다. 이러한 세 종류의 마약시장이 형성된 뒤 후, 2006년 후부터의 ATS 압수량은 지속적이었다. 2008년의 엑스타시 압수량은 그 전년도와 비교해서 감소했고 전 세계적으로 암페타민과 메스암페타민의 압수량은 2008년의 매우 높은 수준으로 크게 지속적이었다.

2006년과 2008년 사이의 전 세계의 대마초 압수량은 가장 최근에 남미 지역에서 보고된 2004년 수준으로 23% 증가했다. 전 세계의 대마수지 압수량은 2006~2008년에 크게 증가했으며(62%) 2004년의 압수량을 훨씬 초과했다. 2008년의 대마수지 압수량의 엄청난 증가는 유럽,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근처에서 보고되었다.

(3) 소 비

UNODC는 2008년 전 세계의 인구 중에 마약을 한번이라도 남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155백만 명에서 250백만 명 사이로 추산했다. 전 세계적으로 대마는 사용자가 129백만 명에서 190백만 명 사이로 가장 많이 남용되는 마약이었다. 암페타민 계열 남용자들은 두 번째로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코카인과 아편이 많이 남용되는 마약으로 조사되었다.

마약 소비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마약 주사 사용자나 마약 중독자 그리고 사회적 관계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자들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대마, 아편, 코카인 그리고 ATS 남용자들의 세계적 추산치에 기초하여 볼 때, 2008년에 문제가 되는 마약을 남용한 사람의 수가 16백만 명에서 38백만명 사이였다. 이것은 당해 년도에 마약을 남용한 모든 사람의 10%에서 15%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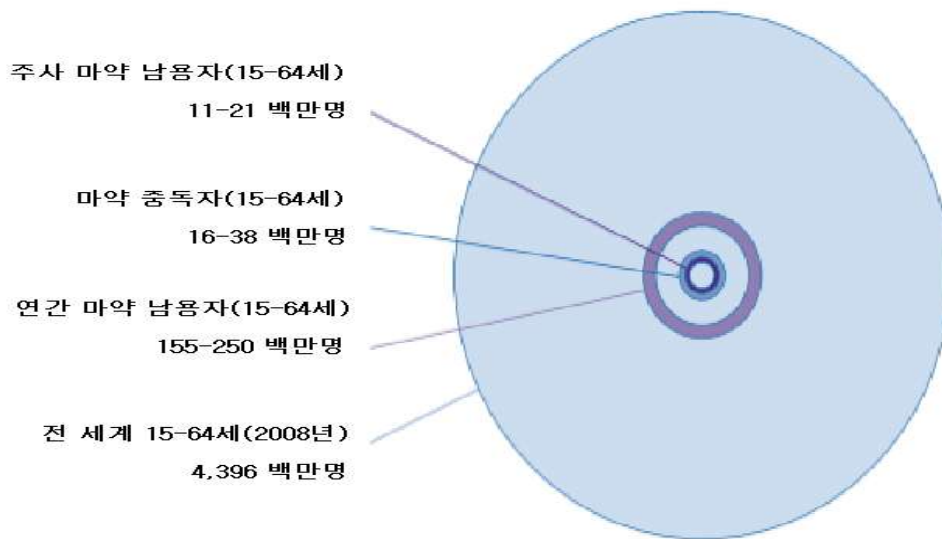
차지하는 비중이다. 2008년에 전 세계적으로, 전체 마약 남용자들 중의 12%에서 30%가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또한 이것은 반대로 11~33.5백만 명이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을 뜻하기도 한다.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몇몇 지역에서의 자료 부족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의 마약 문제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세계 마약 자료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

마약 남용자들의 치료 자료는 지역을 넘어 다양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다른 종류의 마약 남용자들에게 전달되는 마약치료 자료의 공유는 전 세계의 각기 다른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자료는 아편 관련 치료 자료이며, 아메리카에서는 코카인,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에서는 대마 관련 자료를 가장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렇게 각기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자주 바뀌어져 왔다.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증가하는 대마남용에 따라 문제가 커짐과 아울러 대마 관련 치료 자료는 유럽, 남미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가장 필요했다. 같은 기간에 코카인 치료 자료 수요는 아메리카, 특히 북미지역에서 감소한 반면, 유럽에서는 증가했다. 아편관련 치료 자료의 중요성은 유럽, 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감소했으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증가했고 ATS 관련 자료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부분에서의 측정된 마약 남용자의 추산치는 가계조사와 학교 조사 그리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불행하게도, 대다수의 나라에서 인구수에 기반한 조사는 매우 불규칙적이기에 몇몇의 나라에서 마약 남용의 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마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남용되는 마약이다. 15~64세의 전체 인구에서 전 세계 연례 대마남용은 2.9%에서 4.3%로 측정되었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9.3%에서 14.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아메리카 지역이 6.3%에서 6.6%로 두 번째로 높았다. 전 세계의 연례 코카인 남용자는 0.3%에서 0.4%로 추산되었고, 북미지역은 2%, 오세아니아는 1.4%에서 1.7% 그리고 서유럽은 1.1%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08년 15~64세의 전 세계의 인구 중에 아편 남용자는 0.3%에서 0.5%정도로 측정되었는데,



이 중 절반이 아시아 지역에 속했다. UNODC는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암페타민계열 물질을 남용해 본적 있는 사람들의 수를 13.7백만 명에서 21.8백만 명으로 평가했고(0.3%에서 1.2%), 엑스타시 남용자들을 10.5백만 명에서 25.8백만 명 사이(0.2%에서 0.6%)로 평가했다.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북미 지역 그리고 중서유럽지역들은 ATS 남용자들이 가장 많은 곳으로 조사되었다.

위에서 언급된 마약 이외에도, 합성 아편제, 벤조디아제팜이나 합성 각성제와 같은 처방약들의 오남용은 많은 수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건강문제의 증가를 야기 시키고 있다.

나. 주요 마약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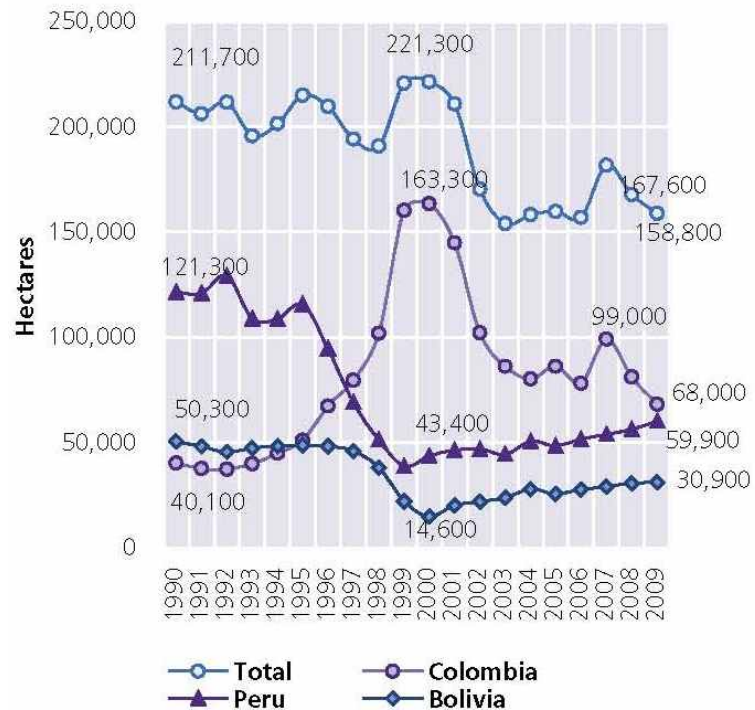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편과 코카인 시장은 국가를 초월하는 가장 큰 마약들이고 범죄 위협이다. 이 두 가지 마약시장은 이전시대의 마약 통제로부터의 고질적인 문제와, 사회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 내의 전 세계적인 해결책을 위한 중재를 우선 상황으로 하며 동시에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상대적으로 생산 지역에 집중 되어있기 때문에 그들의 요소 대부분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

게다가, ATS는 지난 20년간 마약 시장 비중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 대표되는 마약으로, 현재와 미래의 마약 통제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 1990년부터 1/3 이상의 국가가 ATS 관련 제조를 보고 해오고 있다. 게다가 전 세계 ATS 남용자의 수는 아편과 코카인 남용자의 수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1) 코카인

2009년 전 세계의 코카인 재배지는 작년에 비해 167,600ha에서 158,800ha로 5%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페루와 볼리비아와의 증가로 상쇄된 것이 아니라 콜롬비아에서의 큰 감소로 인한 것이다. 전 세계의 코카인 재배지는 2000~2009년에 걸쳐 28% 감소해왔고 2009년에 콜롬비아는 전 세계 재배지의 43%를



<전세계 코카인 경작 현황>

차지하였고, 페루는 38%, 볼리비아는 19%를 차지하였다. 코카인이 생산되고 거래되고 소비되는 지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변화하고 있다.

- 최근 콜롬비아 거래업자들이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전 세계의 코카인의 대부분을 생산해오는 동안 콜롬비아 재배지는 58% 감소했음. 동시에 페루의 재배지는 38% 증가했으며 볼리비아는 112% 증가하여 거래업자들은 양 국가에서 그들이 생산할 수 있는 코카인을 더욱 증가시켰음
- 미국에서의 코카인 수요는 오랫동안 감소추세로 1982년의 10.5백만 명에서 2008년 5.3백만 명으로 추정되어 절반 이상의 감소를 기록함. 그러나 최근 10년동안 유럽의 코카인 남용자들은 1998년의 2백만 명에서 2008년의 4.1백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여 2008년까지의 유럽 마약 시장은 북미 마약 시장을 거의 따라잡았으며, 전 세계적인 코카인 마약

시장은 US\$880억 정도로 추산됨.

- 마약을 차단하려는 노력과 결합된 이러한 변화들은 마약 거래 패턴에도 영향을 끼쳐왔음. 콜롬비아 정부는 마약 거래업자들이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의 볼리비아인들을 포함하는 지역이며, 마약 밀거래 국가들을 이용하는 곳인 그들의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더욱 강화시켜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은 지난 10년에서 15년 동안 지난 기간 동안, 미국으로의 최대 마약 수출국이었던 콜롬비아 조직들을 제치고 등장함. 멕시코에서의 법제제와 같은 노력으로 인해 중미 지역 국가들은 더욱더 마약 이동 경로로 이용되고 있음. 서아프리카는 2004년을 기점으로 유럽으로 마약 이동을 위한 지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현상은 유동적이며 마약 이동국가의 영향력은 실로 매우 인상적인 것이라 보여짐.

2008년에는 순도 코카인의 잠재적인 생산량은 대략 865mt이었다. 이것은 1,050mt을 생산했던 지난 4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마약의 대부분은 북미지역과 유럽지역의 소비자들에게 대부분 밀거래된다. 이 두 지역들은 각각 전체 코카인 시장의 70%와 85%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전 세계의 코카인 시장의 판도를 좌지우지 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남미, 중미 그리고 캐리비언 지역의 사용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가) 가장 큰 코카인 시장인 북미 지역

북미 지역은 전 세계 코카인 남용자의 40%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장 큰 코카인 시장이다. 2008년에 북미 지역에서의 순수 코카인 수요량은 196mt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2008년에 약 309mt의 코카인이 북미지역으로 보내지기 위해 안데스 지역에 남겨져야 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지역에 남겨진 코카인의 대략 절반 정도는 최근 과거의 것 보다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미국에서 압수된 코카인에 기초하여 볼 때, 북미지역에서 소비되고 있는 코카인의 대부분은 콜롬비아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코카인 시장은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게 조사, 학교 조사, 과학수사자료, 법 관련 관찰 자료들이 모두 북미 지역에서의 코카인

남용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낸다. 미국에서의 코카인 남용은 얼마간 감소해 왔었다. 이러한 감소는 2006년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콜롬비아와 멕시코에서의 법제제와 같은 노력으로 인한 마약 공급의 압박과 관련으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국 시장에서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코카인의 매매 가격을 높이게 만들 것으로 보여진다. 비록 거리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 않지만, 코카인의 순도는 상당히 떨어져 왔다. 순도를 고려해볼 때, 미국시장에서 순도 높은 코카인의 1그램당 가격은 매우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거래상들은 가격을 낮추기 보단 코카인의 질을 낮춰 판매 할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수요를 감소시키게 된다.

1990년대에 미국 전체 소매 시장의 2/3가 감소했으며 최근 지난 10년간 1/4이 감소했다. 코카인 거래로 발생한 수익의 70%는 중간 상인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발생되며 콜롬비아의 마약 재배자와 거래자들은 그들이 생산한 코카인의 소매 가치의 3%보다도 더 적은 수입을 차지한다.

(나) 두 번째로 큰 코카인 시장인 유럽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카인 밀수흐름이 큰 곳은 유럽으로 이러한 흐름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럽 안에서 가장 큰 코카인 시장이 있는 곳은 영국이며, 그 다음으로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과 프랑스가 있다. 코카인 남용 선호도 수준은 영국과 스페인이 미국보다 높게 나타난다.

최근 자료들은 유럽 코카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독일과 같은 큰 마약 시장 국가들의 규모가 점차 비슷해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영국과 유럽의 작은 시장에서의 코카인 소비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08년에 124mt의 코카인이 유럽에서 소비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남미에서 유럽으로 총 생산량의 1/4인 212mt의 코카인이 이동되었다. 이 거대한 양의 대부분은 페루와 볼리비아산 코카인이다.

유럽 시장에 진출한 주요 국가들은 스페인과 네덜란드이다. 대부분의 거래는 해양에서 이뤄진다. 대량의 마약 수송은 유럽 지역의 과거 식민지

지역이나 해양에서 육지를 통한 경로로 상대에게 전달된다. 서아프리카를 통한 경로는 2007년 이후 감소해왔지만, 가까운 미래에 다시 사용될 수도 있다.

유럽에서의 보정된 순도 코카인의 소매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유럽 코카인 시장은 북미지역의 코카인 시장만큼 규모가 큰 반면 양은 더 적다. 2008년, 유럽에서의 거리 판매 가격은 1990년의 절 반 수준이었으나, 순도가 낮아지고 유로 대비 달러가 약해졌다. 미 달러로 계산 해 볼 때, 유럽에서의 보정된 순도 코카인은 2002년 이후 증가해왔다.

북미 시장에서처럼, 마약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총수익의 아주 일부분만 가져간다. 국가를 넘나들며 거래를 하는 업자들은 북미지역의 거래업자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갖지만, 유럽에서의 소매업자와 도매업자들에겐 총수익 발생액의 절반 이상을 여전히 가져간다.

(2) 헤로인

헤로인은 세계에서 가장 넓게 소비되고 있는 불법 아편제의 한 종류로 아편에서 유래한 것이고 또한 아편은 그 스스로도 불법 마약이기도 하다. 헤로인으로 불법 생산되지 않은 2/3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란(42%), 아프가니스탄(7%), 파키스탄(7%), 인도(6%) 그리고 러시아 연방(5%)의 다섯 국가에서 소비되고 있다. 다양한 양귀비 혼합물이나 다른 아편제들도 또한 남용되고 있으나 헤로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아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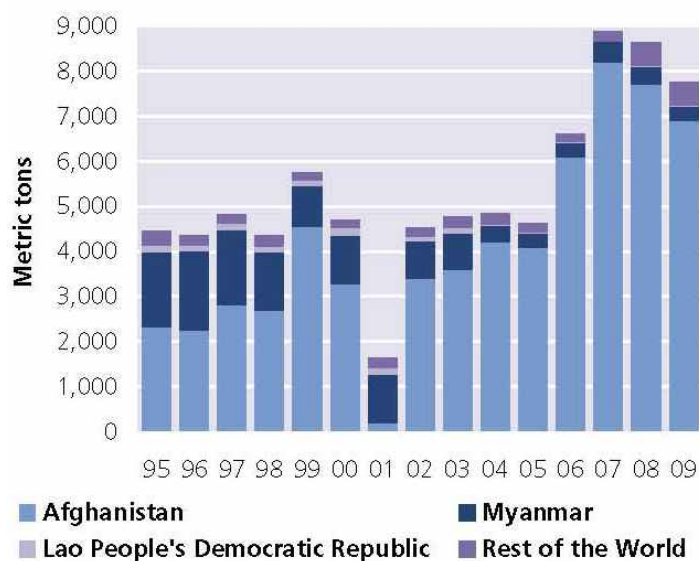
아프가니스탄에 아편과 양귀비 생산이 거의 없었던 2001년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인 아편 생산은 20세기 초반부터 2007년까지 매우 크게 증가했고 이것은 수요를 크게 초과하는 정도였고, 아편 생산량은 2007~2009년동안 계속해서 감소해왔으나 전 세계적인 수요량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아편 재배지에서의 판매가격의 감소는 헤로인 가격의 감소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헤로인 원료물질의 가격 상승과 헤로인으로 변환되지 않은 아편제들의 재고물 증가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비록 아프가니스탄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불법 아편 제조국이지만

(2009년 총 아편 생산량중의 89%인 6,900mt 생산), 미얀마(330mt)와 라틴 아메리카(멕시코와 콜롬비아) 지역에서도 또한 엄청난 양을 생산하고 있다. 2003년 이후에는 멕시코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아편 생산국으로 2008년의 생산량이 2009년 미얀마의 생산량에 근접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07~2009년의 아편 생산량 감소 추세는 2010년 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지표들이 있다. UNODC의 아프가니스탄 아편 관련 겨울 평가에 따르면 2010년 초기 지표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아편 재배지들의 규모는 여전했으나 병충해로 인해 산출량이 감소 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아편과 헤로인 압수량 모두 2008년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몰핀 압수량은 2007년부터 감소추세에 들어섰다. 비록 헤로인 압수량은 2007년 이후의 증가 추세를 따르고 있지만, 그것들은 수확한 엄청난 양의 아편을 헤로인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원료물질을 구할 수 있는 제조시설에 압력을



<전세계 아편 생산현황>

가하는 등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전 세계적인 아편 압수량의 증가로 인해 헤로인 압수량 증가추세를 뛰어넘고 있다. 아편 압수는 대부분 아프가니스탄 이웃국가인 이란에서 이뤄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아편 압수량의 증가는 이란 정부에 의한 압수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아프가니스탄산 아편 시장인 러시아 연방과 서유럽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헤로인의 절반을 소비하는 곳이기도 하다. 2008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340mt의 헤로인이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압수량을 고려해 볼 때, 대략 430mt이 생산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UNODC의 추정자료는 당해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러한 엄청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략 380mt이 생산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가) 가장 큰 헤로인 시장인 서유럽

세계에서 가장 큰 헤로인 시장은 서유럽으로 시장의 절반이 영국과 이탈리아 프랑스에 속한다. 비록 헤로인 남용으로 인한 죽음처럼 헤로인 관련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남용의 감소는 대다수의 서유럽의 국가들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대다수의 헤로인은 발칸반도 경로를 통하여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 터키와 동남유럽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있는 서유럽으로 보내어진다.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모든 헤로인 중의 37%가 이 경로를 통하여 85mt의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이동된다. 대다수의 헤로인이 이 경로에서 압수되며 이란과 터키 사이 지역에서 2008년 전세계 총 헤로인 압수량의 절반이 압수되었다.

유럽의 약 43개 국가에서의 2008년 총 헤로인 압수량은 7.6mt이고 이것은 터키와 이란에서 2008년의 압수량의 1/5밖에 안된다. 2008년 유럽과 EFTA국가들에서 압수된 양의 대략 절반 가량은 영국(18%), 이탈리아(14%) 그리고 불가리아(13%)가 차지하고 있다. 유럽을 넘어 몬테네그로(18kg), 보스니아(24kg), 과거 유고연방(26kg), 헝가리(28kg), 알바니아(75kg), 오스트리아(104kg), 슬로베니아(136kg), 크로아티아(153kg) 그리고 세르비아(207kg)와 같은 여러 국가들이 2008년에 비교적 적은 헤로인 압수량을 보고하였으며 주요 헤로인 밀수 경로로 나타났다.

(나) 두 번째로 큰 헤로인 시장인 러시아

아프가니스탄산(95mt)의 약25%가 북부 경로를 따라 러시아의 약70mt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매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중앙아시아로 밀거래되고 있다. 러시아의 아편 남용자 숫자는 15~64세의 1.6%에 해당하는 약1.6~1.8백만 명으로 추산된다. 마약남용자의 약 37% 가운데 HIV 환자가 있다. 마약밀거래자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러시아로 밀거래 할 때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들 세 국가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밀거래는 주로 개인용 또는 상업용 차량들을 이용하는데 비교적 소량을 운반한다.

러시아지역에서의 적발실적은 상승추세이며 2006년 2.5mt, 2007년 2.9mt, 2008년 3.4mt 이었다.

(다) 파키스탄을 통한 밀거래

아프카니스산 헤로인과 몰핀의 약40%(150mt)는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긴 국경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Federally Administered Tribal Areas와 Balochistan과 같은 파키스탄 지역으로 밀수된다. 마약들의 어느 정도 부분은 파키스탄에서 압수되거나 소비되는 반면에, 대다수는 다른 국가들로 밀수된다. 파키스탄을 거쳐 주요 헤로인 밀수의 목적지가 되는 국가들로 이란(35mt, 대부분 선박을 이용 유럽으로 밀거래),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25mt), 아프리카(20mt), 아랍 에미레이트(11mt, 선박을 이용 중국과 동남 아프리카로 밀거래)를 포함하고 있다. 파키스탄 밀거래업자들은 다양한 공해상을 이용하여 매년 약5mt 정도를 유럽, 특히 영국과 네덜란드로 마약을 밀거래한다.

(3) ATS

ATS는 합성 물질로서 암페타민계열(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메스케치논)과 엑스타시계열(MDMA와 그 외 유사물질)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다. ATS는 원료물질이 발견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소비자 시장과 가까운 곳에서 발견된다. UNODC에게 보고하는 국가들 중 1/3이상이 자국 내에서 ATS제조시설물을 발견했다.

ATS관련 불법 제조소의 수는 2008년에 20% 증가했으며, 아르헨티나, 브라질, 과테말라, 이란 및 스리랑카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되기도 했다. 31개 국가들 내에서 적발된 8,432개의 제조소 들 중, 미국, 체코, 호주, 중국, 슬로바키아, 뉴질랜드, 네덜란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적발된 제조소의 수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오직 큰 규모의 제조소의 수만을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적발된 제조소의 수가 마약 생산량을 정확히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

전통적으로 서로 다른 지역들은 각기 다른 ATS로 인한 문제들을 지니고 있었다. 댄스 클럽에서 많이 남용되는 엑스타시는 초기에 영어사용 문화권

국가에서 주로 볼 수 있었으나, 후에는 유럽과 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과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메스암페타민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지난 10년간 큰 문제가 되어왔으며 북미지역과 오세아니아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암페타민은 주로 유럽에서 발견되었으나, 최근에는 Captagon 이란 이름의 정제형태의 마약과 아울러 중동지역이 새로운 주요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Captagon은 fenethylline을 함유하고 있는 절판된 제품의 브랜드 명칭으로 오늘날에는 암페타민과 카페인에 주요 구성 물질이다. 조제 각성제는 남미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크게 오남용되고 있다.

이러한 물질들의 추세와 관련성들 또한 아래와 같이 변화하고 있다.

- 북미지역은 점차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메스암페타민 남용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성공적인 원료물질 통제에 의해 이러한 어려움을 줄여나가고 있으며, 2009년의 압수량도 증가했음
- 엑스타시는 아시아를 포함하는 개발도상국의 많은 지역에서 점차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반면에 유럽에서는 큰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지역에서는 엑스타시 제조가 나타남에 따라 큰 변화를 일으키는 반면에, 유럽과 다른 지역에서는 엑스타시를 대체하는 정제형태의 합성 향정신성 물질의 발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클럽에서 주로 남용되는 마약으로 엑스타시와 같은 명칭 하에 피페라진, 케타민 그리고 다른 대체마약들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마약 수요의 변화와 함께 제조소의 위치 또한 바뀌고 있음. 과거에는 대다수의 정제형태의 엑스타시는 유럽에서 제조되었지만, 최근에는 북미지역과(특히 캐나다) 아시아 지역 몇 군데에서 제조 되고 있음. 이러한 캐나다에서의 엑스타시 제조 증가를 고려해 볼 때, 2000년 이후의 북미지역에서의 엑스타시 남용의 큰 감소추세는 바뀔 수도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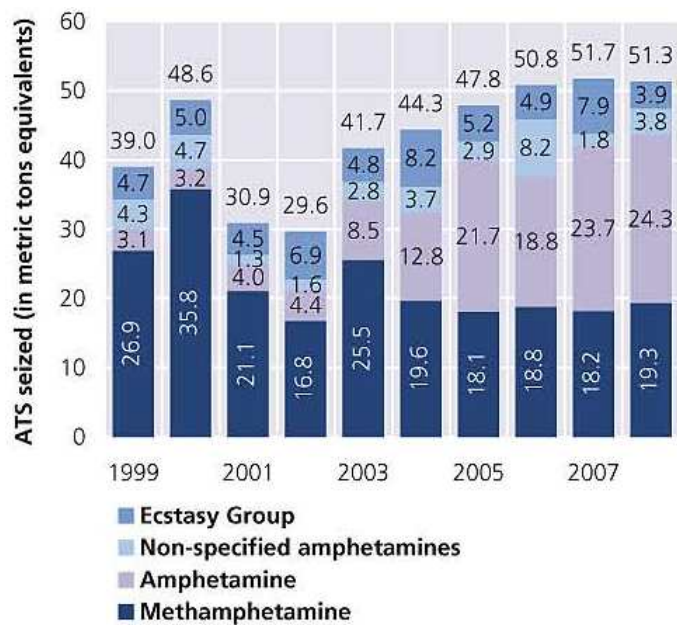
ATS는 전보다 더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양이 압수되고 있다. 증가한 압수량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Captagon이라는 정제형태의 압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간 더 성숙된 시장에서는 ATS 남용이

줄어들거나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엑스타시 계열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정제형태의 마약의 압수량은 2006년 이후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해외 추세는 많은 지역의 발전 중요성을 감추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시장을 위한 메스암페타민의 제조는 2005년에 실행된 자국 내의 원료물질 통제에 대응하여 급격

하게 변하여 이러한 제조소들은 멕시코 국경지역으로 옮겨졌다. 이러한 변화는 후에 2007년에 멕시코에서 시행된 원료물질 통제법에 의해 설명되어졌다. 이러한 시도의 결과로, 미국의 마약 가격은 올라가고 마약의 순도는 내려갔다. 그러나 거래업자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통제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원료물질과 새로운 마약을 제조하기 위한 합성 기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조소를 설치할 새로운 위치를 알아보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2007년 후반부터 2009년 초반까지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메스암페타민의 순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순수 메스암페타민의 그램당 가격은 감소했고, 이러한 현상은 2009년 후반까지 지속 되었다.

거래업자들 또한 엑스타시 제조 통제와 관련된 법 제도에 대응해왔다. 전통적으로 유럽은 전 세계에서 엑스타시가 가장 많이 팔리는 국가였으나, 점차 여러국가에서 엑스타시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엑스타시 제조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Safrole 오일을 포함한 원료물질들은 MDMA 제조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고, 대체 마약인 피페라진과 같은 물질들은 MDMA의 효과를 똑같이 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대체물질 중 몇몇의 물질은 국제적으로 통제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제대로 통제되고 있지 않다.



<전세계 ATS 적발현황>

국제 통제밖에 있는 또 다른 마약으로는 아시아 지역에서 남용이 증가하는 동물마취제인 케타민이다. 이러한 마약의 대부분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유용되기도 하지만, 대량의 불법적인 제조방법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적발되고 있다. 적발량은 수백 kg이고 가격은 다른 마약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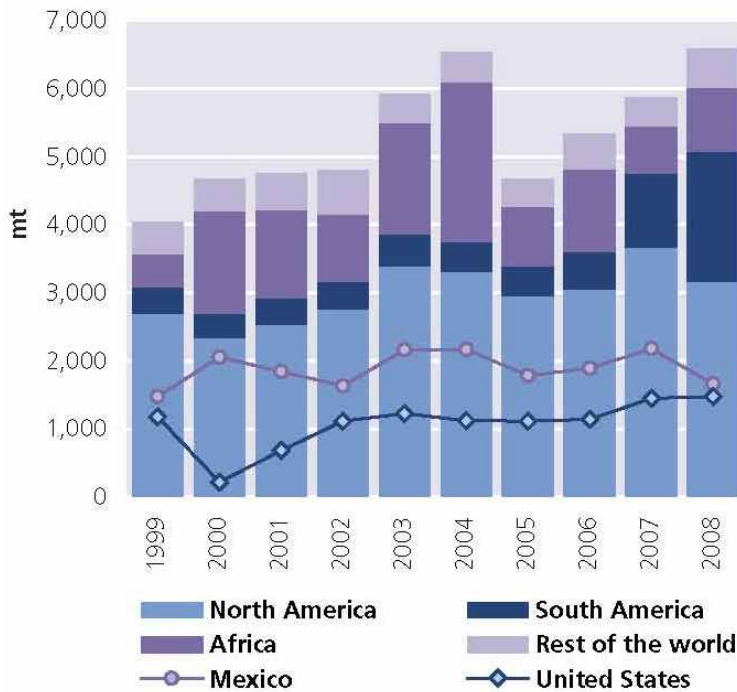
(4) 대마류

대마는 지엽적으로 생산되어 전 세계에서 널리 소비되고 있기에, 위에서 설명한 주요 국제 마약시장들의 추세와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대마수지 시장은 아프가니스탄과 모로코가 가장 큰 수출국으로 대마초 시장보다 비교적 집중화되어 있다. 모로코의 대마 재배지 면적은 2003년 134,000ha에서 2005년 72,500ha로 감소했고 생산량도 3,070mt에서 1,067mt로 감소했다. 2005년 이후 UNODC는 모로코에서의 대마 생산량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지만, 모로코 정부는 2005년 이후의 감소를 보고했다. 모로코에서 생산된 대마수지 압수량과 최종 목적국에 의해 보고된 자료는 감소추세를 나타내지 않았고, 모로코는 여전히 대마수지 주요 생산국 중에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되는 대마의 양은 2009년에 1,500mt에서 3,500mt로 밝혀졌다. 중동아시아와 서남아시아 근처에서의 대마수지 압수량은 2006년 이후 두 배로 증가했다.

최근 전 세계의 대마생산 추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유럽과 호주 그리고 북미지역에서의 실내 재배지의 성장이다. 실내 재배의 성장은 수익 창출 면에서도 매우 유리하여 지역의 범죄조직들의 주요 수익원천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마초와 대마수지 압수량은 합이 6,587mt로 2008년 수준에 도달했고 이 중 대마초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대마수지의 총 압수량은 1,637mt이었다. 대마초 압수량은 남미 지역 특히 볼리비아지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대마수지 압수량은 서남아시아지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2008년 6월에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칸다하르 지역에서 압수한 236.8mt의 대마수지는 역사상 가장 큰 압수 사례이었다.

대마초의 가격은 국가와 지역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전세계 대마초 압수량 현황>

구매자들의 힘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비록 국가들 간의 비교는 서로 다른 종류의 마약으로 인해 가격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지만, 몇몇의 지역에서는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과 마카오, 중국에서의 가격은 매우 고가이다. 일본에서의 높은 가격은 대마를 주로 밀수입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현상은 대다수의 국가의 패턴과 다르다. 유럽에서의 대마초 가격도 또한 상대적으로 높고, 저가의 거래는 주로 아프리카, 남미,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서아시아 지역에서 이뤄진다.

대마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불법 물질이다. 전 세계적으로, 2008년에 단 한번이라도 마약을 남용해본 사람이 129백만 명에서 191백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것은 전 세계 15~64세 사이 총인구의 2.9%에서 4.3%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대마 남용은 북미지역과 서유럽의 몇몇 지역을 포함하는 큰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비록 북미지역의 연례 마약남용 정도보다는 크게 작지만 남미지역에서 마약 남용의 증가가 보고되고 있다. 비록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 대마 남용과 관련된 과학적 자료가 부족하지만, 두 지역의 전문가들은 증가 추세를 인지하고 있다.

다. 마약 밀거래와 중계이동 국가들의 안보 위협

마약 거래는 국가 안보에 두 가지 형태로 위협이 된다. 첫 번째는 반역자와

세금이나 마약 생산과 관리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불법적인 무장 단체들이 있는 국가들이고, 두 번째는 앞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마약거래업자들이 정부 고위직의 부패나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권력을 장악 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의 국가이다. 이중 위의 두 번째 국가 상태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며 코카인 거래가 이동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2006년과 2008년 사이 유럽으로 향하고 있던 해양 운송중의 코카인 절반 이상이 베네수엘라에서 출발 한 것이었다. 에콰도르 또한 마약 운송의 증가에 영향을 받아왔으며 두 국가 모두 폭력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코카인 시장의 감소와 유럽시장의 증가는 캐리비안지역에서의 폭력 사건에 영향을 끼쳐왔다. 몇몇의 경우에서 보면, 이것은 지역적인 범죄 조직들의 수익탈취로 인한 거래 손실과 같은 새로운 코카인거래 흐름으로 인한 것이다. 코카인 거래에서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국가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폭력사건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가장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중앙아메리카의 트라이앵글 국가인 과테말라, 온두라스 그리고 엘살바도르이다. 여기서 마약과 관련된 극심한 폭력사건이 정부에게 많은 문제들을 떠안게 했다. 이러한 국가들이 과거에 폭력과 같은 문제를 겪어온 동안, 대도시 지역들 뿐만 아니라 항구와 국경지역에서와 같은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곳에서의 살인사건 발생률은 최고로 높았다.

멕시코에서 마약관련 폭력사건이 많이 발생했으나, 정부의 통제능력이 매우 강했기에 살인 사건 발생률은 매우 낮다. 멕시코의 카르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콜롬비아와 마찬가지로 폭력사건 발생률을 약화시켜왔으며, 이러한 상황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조직범죄단체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으로의 코카인 공급을 제한시켜왔으며, 정부기관에 널리 퍼져있는 부패를 척결시키는 동시에, 국가 전역에 걸쳐 정부의 통제 기능을 다시 강화시켰다. 또한 중앙아메리카에서의 많은 마약관련 폭력사건이 동일한 카르텔과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멕시코

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변화는 남쪽에 있는 국가들에게도 도움을 줘야 한다.

2004년 이후, 대서양 반대편 국가인 서아프리카에서는 대규모의 코카인 거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아프리카에서의 폭력사건 관련 자료는 희박하지만, 거래업자들이 몇몇 정부기관의 최고 고위직 인물들을 끌어 들임에 따라 마약 자금의 흐름이 최근 라틴 아메리카지역이 겪어 왔던 마약 거래관련 폭력사태를 더 크게 만들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가장 잘 알려진 예는 기니비사우인데, 이곳에서는 군인들이 자기들의 우두머리가 제거되지 않기 위해 국가의 수상을 억류하고 협박을 했다. 이러한 쿠데타를 일으킨 자는 어느 조직의 장급의 역할을 수행하던 자로 추측되며, 그는 또한 마약 거래 관련 혐의로 오랫동안 기소된 상태였다. 반면에, 이 지역을 통한 코카인 밀수 흐름은 2008/2009년에 기니비사우에서 발생한 정치혼란 이후,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이러한 최근의 변화는 이러한 사건이 가까운 미래에 다시 발생 할 수 있음을 알게 해준다.

대응조치는 범죄를 예방하는 국제적인 노력과 세계평화와 법의 역할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움직임에 국가를 초월한 조직범죄집단이 영향을 절대 끼칠 수 없도록 하여 이뤄져야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거래는 국가를 초월하여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마약거래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전략을 필요로 하며 UN은 이러한 노력을 체계화 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진다.

2. 국내 마약류 단속 동향

가. 마약류 사범 추세

(1) 총 괄

(단위 : 명)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마 약	1,203	768	868	958	1,396	2,198
대 마	1,231	1,032	835	1,170	1,045	1,712
향 정	5,313	5,354	6,006	8,521	7,457	7,965
합 계	7,747	7,154	7,709	10,649	9,898	11,875

1995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던 전체 마약류 사범은 1999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뒤 2002년까지 4년 연속 1만명을 상회하였으나, 2002년 이후 강력한 단속효과에 힘입어 밀수 등 공급조직 10개파 224명(구속 162명) 단속에 따른 마약류 공급선 차단 등으로 2003년부터 급감하였다. 2009년도에는 전년대비 마약류 사범이 20%가 증가하여, 여전히 2007년 이후 1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⁴⁾

특히, 주종 마약류인 향정사범의 경우 2003년도에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2004년도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었으며, 2009년도에는 전년대비 6.8%가 증가하였다. 마약류사범의 분포비율은 1995년도 이래 향정사범의 점유율이 50%를 상회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62.7%, 2004년 68.6%, 2005년 74.9%, 2006년 77.9%, 2007년 80.0%, 2008년 75.3%, 2009년 67.1%를 차지함으로써 향정이 국내 주종 마약류임을 반영하고 있다.

사범별 추세를 살펴보면, 마약사범은 2003년도에 전년대비 53.3% 대폭 증가한 이후 2004년부터 2005년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에 10.4%, 2008년에 45.7%, 2009년에 61.3%가 증가하였고, 대마사범은 2002년도를 정점으로 하여 2003년도부터 계속 대폭 감소하다가 2009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63.8%가 증가했다.

4) '국내마약류 단속동향' 부분은 대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spo.go.kr>"를 참고로 작성

한편, 향정사범은 1995년도 이후 연평균 30% 이상씩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03년도에 대폭 감소한 이후 2004년부터는 5,000~6,000명 선을 유지하다가 2009년도에는 7,965명이었다.

(2) 행위 유형별

(단위 : 명)

구 분		밀조	밀수	밀매	밀경	사용 (투약)	소지	기타	계
계	2007	4	265	1,817	758	6,013	456	1,336	10,649
	2008	4	169	1,637	1,199	5,719	404	770	9,898
	2009	0	281	1,971	2,036	6,103	390	1,094	11,875
마 약	2007	0	4	21	707	51	22	153	958
	2008	0	5	5	1,136	105	14	131	1,396
	2009	0	33	12	1,915	112	14	112	2,198
대 마	2007	0	54	55	51	830	53	127	1,170
	2008	0	31	81	63	765	59	46	1,045
	2009	0	39	133	121	1,269	90	60	1,712
향 정	2007	4	207	1,741	0	5,132	381	1,056	8,521
	2008	0	133	1,551	0	4,849	331	593	7,457
	2009	0	209	1,826	0	4,722	286	922	7,965

마약류사범을 행위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용사범은 6,103명으로 전체의 51.4%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으로 밀경 17.1%, 밀매 16.9%순이었으며 밀조, 밀수, 밀매사범은 총 2,252명으로 전체 마약류사범의 18.9%로 전년도 동기 1,810명 대비 24.4% 증가했다.

대마사범과 향정사범은 사용사범이 각 74.1%, 59.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마약사범은 밀경사범이 87.1%로 이들 대부분은 농어촌지역 소규모 양귀비 재배사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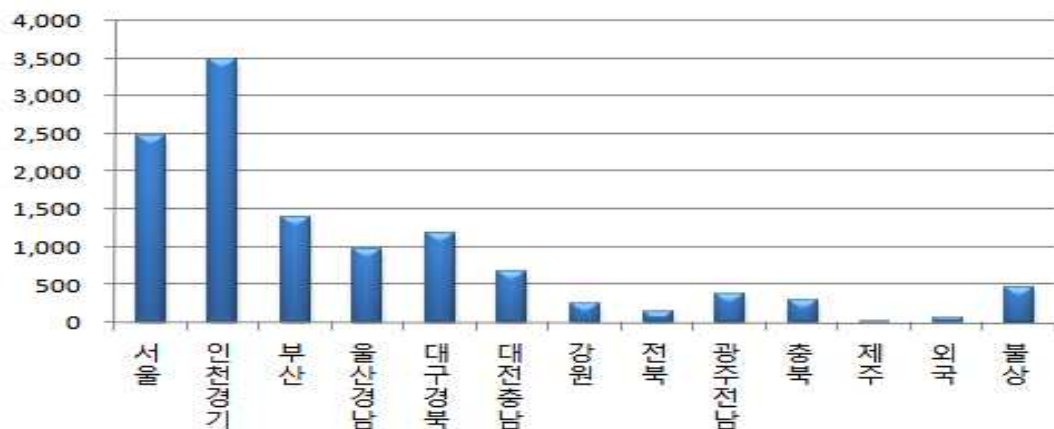
(3) 지역별 현황

2009년도 지역별 점유율은 수도권 (50.2%), 부산 (11.8%), 울산·경남 (8.3%), 대구·경북 (9.9%), 대전·충남 (5.8%) 순으로 전체사범의 81.4% (전년도 80.2%)가 수도권 및 영남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단위 : 명)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서울	1,488	1,230	1,511	1,886	1,663	2,482
인천·경기	2,085	1,763	1,914	2,672	2,754	3,485
부산	981	1,185	1,256	1,887	1,666	1,405
울산·경남	707	663	760	1,158	1,064	982
대구·경북	698	757	811	1,086	923	1,180
대전·충남	485	409	415	570	604	687
강원	264	223	231	257	208	264
전북	144	69	85	128	105	143
광주·전남	231	151	164	240	285	384
충북	199	125	165	194	156	301
제주	66	23	21	34	27	23
외국	39	20	16	34	27	64
불상	360	536	360	503	416	475
합 계	7,747	7,154	7,709	10,649	9,898	11,875

<마약류사범 지역별 현황(2009)>



(4) 직업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6	2007	2008	2009
무 직	2,860	3,978	3,124	3,551
농 업	441	433	611	944
도 소 매 업	346	422	367	330
유 흥 업	103	144	122	131
서 비 스 업	334	430	370	355
금 융 / 증 권	24	27	16	35
부 동 산 업	34	37	49	28
노 동	287	447	423	468
회 사 원	525	850	765	1,160
공 업	80	163	702	651
건 설	110	123	107	111
의 료	166	206	218	223
운 송 업	139	170	150	122
가 사	87	80	124	185
예 술 / 연 예	20	24	18	43
어 업	35	43	43	74
학 생	57	65	43	203
직 업 미 상	904	1,391	1,185	1,399
기 타	1,157	1,615	1,461	1,862
합 계	7,709	10,649	9,898	11,875

2009년도 마약류사범의 직업별 점유율은 무직(29.9%), 회사원(9.8%), 농업(7.9%), 노동(3.9%), 서비스업(3.0%), 도소매업(2.8%)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한 직업군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연령별 · 성별 현황

1) 연령별

(단위 : 명)

구 분	19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이상	미상	계
2009년	82	1,608	3,371	3,297	1,502	1,643	372	11,875
2008년	23	1,109	3,002	3,311	1,167	983	303	9,898

2009년도 전체 마약류사범 중 생산·근로계층인 20~40대가 70%(전년도 75%)를 차지하여 청·장년층 마약류범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성 별

(단위 : 명, %)

연도 \ 구분	마 약		향 정		대 마		합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9	923 (42.0)	1,275 (58.0)	6,626 (83.2)	1,339 (16.8)	1,536 (89.7)	176 (10.3)	9,085 (76.5)	2,790 (23.5)
2008	644 (46.1)	752 (53.9)	6,730 (90.3)	727 (9.7)	980 (93.8)	65 (6.2)	8,354 (84.4)	1,544 (15.6)

2009년도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여성 점유율은 23.5%로서 전년도의 15.6%에서 크게 증가했고, 인원은 2,790명으로 전년도의 1,544명 대비 80.7%가 증가하였다.

나. 마약류별 압수 현황

(1) 총 괄

<연도별 마약류 압수내역>

구 분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마약	생 아 편	g	11	98	137	195	166
	헤 로 인	g	9	18	0	0	1,914
	코 카 인	g	0	4,772	79	8,869	298
대 마	대 마 초	g	18,436	20,859	22,202	92,692	122,539
	대 마 수 지	g	1,511	158	761	2,021	517
향 정	메스암페타민	g	19,289	21,543	23,739	25,572	15,189
	MDMA	정	10,744	10,744	18,323	714	596
	YABA	정	18	18	196	151	1
	LS D	정	0	0	0	0	0
합 계		g/정	39,256g 10,762정	47,448g 10,762정	46,918g 18,519정	129,349g 865정	140,623g 597정

(2) 메스암페타민 밀거래 가격

(단위 : 만원)

지역별	구분	1g당 가격						1회 투약분 (0.03g)	
		도 매		중간도매		소 매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서울		12	12	34	34	70	80	10	10
인천		9	9	35	35	30	100	10	10
대구		20	20	40	40	60	30	10	10
부산		10	10	25	25	100	100	10	10
광주		-	-	40	40	36	80	10	10
전국평균		13	14	34	34	75	79	10	10

메스암페타민 1g당 전국 평균 도매가격은 14만원이고 중간도매가격은 34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매가격은 79만원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하였으나, 1회 투약분 가격은 10만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다.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현황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현황>

(단위: kg, 정)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件	반입량	件	반입량	件	반입량	件	반입량	件	반입량
메스암페타민	55	13.3	89	15.3	80	18.64	68	22.47	55	10.22
코카인	1	0	7	4.8	1	0.003	5	8.885	1	0.058
헤로인	1	0	1	0.018	0	0	0	0	5	1.909
생아편	0	0	0	0	0	0	0	0	2	0.024
대마초	40	13.4	24	5.6	39	8.95	27	14.578	19	21.791
해쉬쉬	5	1.4	4	0.161	10	0.71	8	0.882	5	0.053
M D M A(정)	11	981	2	72	9	15,460	7	163	2	14
L S D(정)	0	0	0	0	0	0	0	0	0	0
Y A B A(정)	0	1	0	0	0	0	1	15	0	0

2009년도 외국산 주요 마약류 밀반입량은 89건 39.055kg⁵⁾으로 2008년도 116건 46.874kg 대비 건수는 23.3%가 감소하였으며, 외국산 마약류는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해쉬쉬, 헤로인이 대부분이었다.

5) MDMA는 1정(tablet) 당 0.33gram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음

<외국산 마약류 국가별 밀반입 현황>

(단위 : g, 정)

구분 마약류	국가별	2007			2008			2009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메스암 페타민	중 국	75	18,576	17,045	56	12,356	12,283	42	5,890	5,872
	태 국	0	0	0	1	6	6	4	61	61
	필리핀	5	68	68	3	17	17	2	12	12
	미 국	0	0	0	0	0	0	2	4	4
	대 만	0	0	0	0	0	0	1	79	79
	홍 콩	0	0	0	1	316	316	0	0	0
	말레이시아	0	0	0	3	2,986	2,986	0	0	0
	터 키	0	0	0	3	3,656	3,656	0	0	0
	남아공	0	0	0	1	3,140	3,140	4	4,175	4,175
	소 계	80	18,644	17,113	68	22,477	22,404	55	10,221	10,203
대마초	미 국	20	530	521	14	297	293	8	218	218
	필리핀	0	0	0	1	8	6	0	0	0
	호 주	2	13	12	1	5	5	0	0	0
	캐나다	9	1,901	1,901	7	361	360	4	8	8
	영 국	1	6	6	2	1	1	1	2	2
	남아공	0	0	0	1	13,900	13,900	2	16,334	16,334
	태 국	0	0	0	1	2	2	1	7	7
	스리랑카	1	7	7	1	5	5	0	0	0
	네덜란드	0	0	0	0	0	0	1	949	949
	일 본	0	0	0	0	0	0	1	11	11
	나이지리아	0	0	0	0	0	0	1	4,263	4,263
	소 계	33	2,457	2,447	28	14,579	14,572	19	21,792	21,792
해쉬쉬	미 국	1	2	2	1	24	24	0	0	0
	태 국	0	0	0	1	300	36	0	0	0
	아일랜드	0	0	0	1	3	3	0	0	0
	영 국	0	0	0	1	18	18	0	0	0
	캐나다	0	0	0	2	47	47	0	0	0
	이 란	0	0	0	1	404	404	1	5	5
	러시아	2	54	54	1	87	87	0	0	0
	네덜란드	0	0	0	0	0	0	1	13	13
	스페인	0	0	0	0	0	0	1	5	5
	리비아	0	0	0	0	0	0	1	24	24
	프랑스	0	0	0	0	0	0	1	6	6
	소 계	3	56	56	8	883	619	5	53	53
MDMA (정)	캐나다	4	482	368	2	49	42	0	0	0
	미 국	3	169	169	1	10	10	0	0	0
	일 본	0	0	0	1	10	9	0	0	0
	태 국	0	0	0	2	72	72	0	0	0
	홍 콩	0	0	0	1	22	15	0	0	0
	베트남	0	0	0	0	0	0	2	14	14
	소 계	7	651	537	7	163	148	2	14	14

(단위 : g, 정)

구분 마약류	국가별	2007			2008			2009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코카인	브라질	0	0	0	2	8,800	8,800	0	0	0
	프랑스	0	0	0	1	1	1	0	0	0
	태 국	0	0	0	1	50	50	0	0	0
	홍 콩	0	0	0	1	37	34	0	0	0
	룩셈부르크	0	0	0	0	0	0	0	0	0
	미 국	1	3	3	1	3	3	1	58	58
	소 계	1	3	3	6	8,891	8,888	1	58	58
헤로인	베트남	0	0	0	0	0	0	2	16	3
	캄보디아	0	0	0	0	0	0	2	1,559	1,559
	소 계	0	0	0	0	0	0	4	1,575	1,562
생아편	이 란	0	0	0	0	0	0	2	24	24
케 타 민	미 국	0	0	0	1	1	1	0	0	0
	태 국	0	0	0	1	48	48	0	0	0
	홍 콩	0	0	0	1	37	34	0	0	0
	중 국	3	83	83	0	0	0	1	46	44
	대 만	0	0	0	0	0	0	1	16	16
	소 계	3	83	83	3	86	83	2	62	60
대마케익/ 쿠키	미 국	0	0	0	2	901	901	2	2,299	2,299
JWH-018	영 국	0	0	0	0	0	0	2	57	53
TFMPP	미 국	0	0	0	0	0	0	1	2	2
졸피뎀(정)	미 국	0	0	0	0	0	0	1	90	90
놀라제팜 (정)	미 국	0	0	0	0	0	0	1	130	130
벤질피페 라진	영 국	0	0	0	1	74	74	2	52	52
	태 국	0	0	0	0	0	0	1	20	20
	소 계	0	0	0	1	74	74	3	72	72
크라톱	미 국	0	0	0	1	117	117	0	0	0
	영 국	0	0	0	0	0	0	1	5	5
살비아디 비노럼(g)	미 국	0	0	0	0	0	0	1	2	2

※ 2009년에 압수된 메스암페타민 10.2kg은 거의 모두가 외국산으로 추정
되나 중간 밀매단계에서 적발된 경우 국적불명으로 분류되어 외국산
압수량에서 제외함

라. 외국인 마약류 사범 현황

(1) 연도별 단속실적

(단위 : 명)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단속사범수	203	162	116	298	928	890
증감률(%)	136.0	-20.2	-28.4	157	211	-4.1

2000년 이후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정책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체류 증가 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중심으로 마약류 사범이 대폭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도 이후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강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도에 28개국 총 890명의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검거되어 전년도의 928명 대비 4.1%가 감소하였다.

(2) 취급 마약류별 현황

<국내 외국인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마 약	74	27	16	13	29	32
대 마	71	79	59	120	172	311
향 정	58	56	41	165	727	547
계	203	162	116	298	928	890

1999년 이전까지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대부분 대마사범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2000년도 들어서면서 향정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2009년도에는 향정사범 61.5%, 대마사범 34.9%, 마약 3.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3) 국적별 현황

<국적별 마약류사범 검거자 수>

(단위 : 명)

연 도 국 적	2005	2006	2007	2008	2009
가 나	10	7	9	11	4
나 이 지 리 아	2	7	1	5	7
남아프리카공화국	0	0	0	2	4
뉴 질 랜 드	5	1	1	2	4
대 만	4	4	2	2	10
리 시 아	21	6	8	19	39
몽 골	0	0	2	1	0
미 국	24	46	47	63	66
방 클 라 데 시	0	0	0	1	1
스 리 랑 카	2	0	5	11	9
아 일 랜 드	0	1	1	1	0
아 프 가 니 스 탄	0	2	0	2	0
앙 골 라	0	0	0	1	0
영 국	1	0	7	5	2
우 즈 베 키 스 탄	9	2	2	5	4
이 란	26	4	6	5	4
이 집 트	1	0	0	1	1
인 도 네 시 아	0	0	3	2	0
인 도	0	0	0	1	0
일 본	0	0	2	12	7
중 국	22	11	63	43	50
카 자 흐 스 탄	3	1	1	2	2
캐 나 다	9	11	31	13	21
태 국	8	0	52	711	578
토 바 고	0	0	0	1	0
파 키 스 탄	0	5	1	1	5
프 랑 스	1	1	2	1	0
필 리 핀	9	3	39	2	41
호 주	2	0	6	2	4
리 비 아	0	0	0	0	1
베 트 남	0	0	0	0	21
스 페 인	0	0	0	0	1
싱 가 포 르	0	0	0	0	1
요 르 단	0	0	0	0	1
탄 자 니 아	0	0	0	0	1
홍 콩	0	0	0	0	1
합 계	162	116	298	928	890

국적별로는 태국 578명, 미국 66명, 중국 50명, 필리핀 41명, 러시아 39명, 캐나다 21명, 대만 10명, 스리랑카 9명, 일본 7명, 나이지리아 7명, 가나 4명, 이란 4명, 영국 2명 등이었는데, 국내거주 태국인 노동자들의 야바 등 사용 사범,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 의한 메스암페타민 사범, 국내에서 활동하는 영미권의 영어강사 등에 의한 대마사범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외국인 마약류사범 국적별 순위>

연도 순위	2005	2006	2007	2008	2009
1	이 란	미 국	중 국	태 국	태 국
2	미 국	중 국	태 국	중 국	미 국
3	중 국	캐나다	미 국	미 국	중 국



Ⅲ. 2009년 관세청 마약류 밀수단속

Ⅲ. 2009년 관세청 마약류 밀수단속

1. 마약류 단속업무 개요

가. 마약 단속기관으로서의 관세청

관세청은 국가와 사회에 유해한 물품의 유출입을 통제하는 국내 유일의 국경(國境) 단속기관으로 보세구역이라는 전속적 활동영역을 가지고 사람, 화물, 우편물, 운송수단의 국제이동을 감시할 수 있으며 관세법 등 관련법에 의거 영장 없이 검색을 할 수 있다.

또한, 관세청은 국제적 연대를 갖춘 마약류 단속기관이다. WCO를 중심으로 한 WCO RILO⁶⁾ 아태지역 연락사무소에 파견관을 파견하여 국제공조를 견고히 하고 있음은 물론, 미국, 일본, 태국, 중국, 홍콩 등 5개국에 6명의 해외관세관을 파견하고, 이외에도 캐나다, 호주, 필리핀, 인도, 벨기에, 스위스 등 16개 외국 마약단속 기관과 실시간으로 마약밀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관세청은 가장 효과적인 단속기관이다. 즉, 세관의 마약단속은 주로 국경선에서 마약의 유출입을 차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어떤 방법보다도 가장 효율적이며 경제적이다. 마약류가 국내로 반입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단속, 재할 및 교정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이는 자명한 일이다.

나. 세관의 마약단속권

관세청은 1990. 8. 1.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6조제14호에 의거 “외국을 왕래 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

6) WCO/RILO (세계관세기구/지역정보연락사무소) : World Customs Organization /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였으며, 관세청의 마약류 단속실적은 최근 3년간(2007년~2009년) 국내 전체 압수량의 약 37%, 외국산 마약류는 약 90%를 차지함으로써 국내로의 마약류 공급차단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수사기관 주요 마약류 압수량 비교>

(단위 : 압수량 kg, 구성비 %)

구 분	관 세 청		타 수사기관		국내전체 압수량
	압수량	구성비	압수량	구성비	
2007	33.1	62	20	38	53.1
2008	42.4	33	87.2	67	129.6
2009	41.9	31	94.9	69	136.8
합 계	117.4	37	202.1	63	319.5

* 관세청 마약단속인력 : 75명(마약조사요원 32명, 탐지요원 43명),
타 수사기관 단속인력 : 569명(경찰 319명, 검찰 250명)

<관세청의 외국산 마약류 압수량 기여도>

구 분	국내산 및 외국산 마약류 압수량	외국산 마약류 압수량		
		전체 압수량	관세청 압수량	기여도(%)
2007년	53.1	43.7	33.2	76%
2008년	129.6	47.0	42.4	90%
2009년	136.8	39.0	40.8	89%
합 계	319.5	129.7	116.4	90%

※ 2009년도 관세청 압수실적은 '08년 메스암페타민 7kg이 이월 계산되었음

※ 대검찰청 외국산 주요 마약류 압수실적 통계 인용(메스암페타민, 대마초, 헤로인 등)

다. 세관의 마약류 수사권 및 단속업무 변천

(1) 마약류 수사권

관계법령	주요 수사권 내용	비 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공항·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90. 8. 1.

※ 근거 법률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제6조14호)

(2) 세관의 마약류 단속업무 변천

1990. 8. 1. 이전	▶	세관에서 적발 즉시 검찰에 인계
1990. 8. 1.~1994. 초	▶	○ 수사권 확보 - 공항만 및 보세구역에서 적발시 세관에서 수사완료 후 검찰에 송치 - 공항만 및 보세구역외의 체포·증거수집 등 수사실시
1994. 초~1996.12.	▶	공항만·보세구역에서 적발 즉시 검찰 인계
1996.12.~2000.12.	▶	마약류사범 검찰·세관 합동수사반 편성·운영지침에 의거 세관수사권 제한 구체화
2000.12.~2003. 1.	▶	지침(개정) : 세관수사권 제한 계속 유지
2003. 1.~현재	▶	지침(개정) : 불이익 조항 삭제

라. 마약단속 포상금

마약은 일반 밀수에 비하여 적발 및 단속이 매우 어렵고 위험성이 뒤따른다. 관세청은 마약을 세관관서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관세청 포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1억원까지 민간인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 2009년도 마약류 밀수동향

가. 마약류 단속실적

- 2009년도 주요 마약류 단속실적은 144건, 42.1kg, 616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 중량 및 금액이 각각 11%, 1%, 20% 감소하였음
- 종류별로는 메스암페타민이 71건 18,481g, 헤로인 4건 1,895g, 대마류 44건 20,909g, MDMA 5건 480g이 각각 검거됨
- 마약류 원료물질은 6건(밀수출 : 무수초산 1건 15.6톤, 밀수입 : 슈도 에페드린 4건 7.6kg, GBL 1건)이 각각 검거됨

<2009년도 마약류 및 원료물질 검거실적>

(단위 : g,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증감(%)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주요 마약 류	헤로인	0	0	0	4	1,895	5,688	-	-	-
	코카인	4	8,869	26,608	2	59	177	△50	-	-
	대마초	59	16,447	164	40	20,759	402	△33	26	145
	대마수지	9	107	11	4	150	14	△65	40	27
	대마오일	1	87	87	0	0	0	-	-	-
	메스암페타민	80	16,632	49,890	71	18,481	55,206	△11	11	11
	MDMA	3	61	18	5	480	147	67	689	717
	케타민등	5	178	16	18	328	24	260	84	50
마약류 합계		161	42,381	76,794	144	42,152	61,658	△11	△1	△20
원료물질 합계		8건	-	29	6건	-	39	14	-	-

※ 모든 통계는 세관에서 검거한 마약류 사건을 기초로 함

※ 1사건에 2 종류 이상의 마약류가 검거된 경우 주종 마약류 1개로 분류

나. 세관별 단속실적

- 검거된 주요 마약류 144건중 인천공항세관 91건(63%), 서울세관 16건(11%), 인천세관 9건(6%), 김포세관 9건(6%), 부산세관 9건(6%) 등 5개 세관이 총 134건을 검거 전체의 93%를 차지
- 2009년중 1건 이상의 마약류를 검거한 세관은 11개로 전년도(15개)에 비하여 감소하였음
- 서울세관과 김포세관의 검거실적이 돋보이며, 국제우편물 등 검거 마약류에 대해 관할세관으로의 이첩 결과에 따라 대전세관이 근래에 처음으로 검거실적이 있었음

<세관별 주요 마약류 검거현황>

(단위 : 건)

세관 \ 년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인천공항세관	48	48	108	91
서울세관	66	83	11	16
인천세관	16	19	11	9
김포세관	10	3	4	9
부산세관	7	10	8	9
광주세관	2	5	6	3
김해세관	-	-	2	3
대구세관	3	3	2	1
울산세관	-	4	3	1
속초세관	5	3	1	1
대전세관	-	-	-	1
군산세관	-	-	1	-
제주세관	-	-	1	-
청주세관	-	5	1	-
여수세관	2	-	1	-
동해세관	-	-	1	-
평택세관	-	1	-	-
의정부세관	1	-	-	-
합 계	160	184	161	144

<2009년도 세관별 주요 마약류 검거현황>

(단위 : 건, g, 백만원)

세 관 별	종 류 별	건 수	수량(g)	금 액
인천공항세관	헤로인	3	1,895	5,687
	메스암페타민	38	13,920	41,754
	대마초	28	19,150	370
	대마수지	2	141	13
	코카인	2	59	177
	MDMA	4	480	147
	기타 마약류	14	310	21
	소 계	91	35,955	48,169
서울세관	헤로인	1	0	0
	메스암페타민	4	633	1,900
	대마초	8	61	1
	대마수지	1	5	0
	MDMA	1	0	0
	기타 마약류	1	0	0
	소 계	16	699	1,901
인천세관	메스암페타민	9	1,305	3,853
김포세관	메스암페타민	9	622	1,836
	대마초	0	43	1
	소 계	9	665	1,837
부산세관	메스암페타민	5	1,481	4,444
	대마초	2	1,500	30
	대마수지	1	2	0
	기타 마약류	1	0	1
	소 계	9	2,983	4,475
광주세관	메스암페타민	1	11	1
	대마초	1	4	0
	기타 마약류	1	3	8
	소 계	3	18	9
김해세관	메스암페타민	2	97	289
	대마초	1	0	0
	소 계	3	97	289
대구세관	메스암페타민	1	41	123
울산세관	메스암페타민	1	5	15
속초세관	대마오일	1	373	984
대전세관	벤질피페라진	1	7	1
총 계		144	42,151	61,659

다. 밀수동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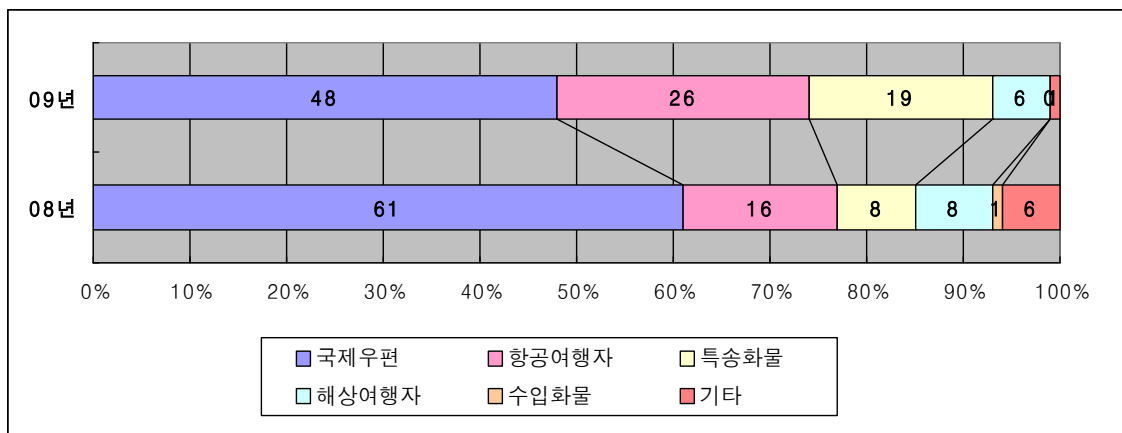
(1) 밀수 경로별 검거현황

-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밀수가 전체의 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음
- 항공여객에 의한 밀수가 대폭 증가한 반면 해상여객에 의한 밀수는 2007년 특별단속 이후 소강상태로 검거실적이 격감
-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는 2007년 20건 ⇒ 2008년 13건 ⇒ 2009년 27건으로 감소 후 다시 증가함
- 2009년 기준 중량별 구성비는 항공여행자 80%, 국제우편 11%, 해상여행자 5%, 특송화물 3%순임

<반입 경로별 주요 마약류 검거현황>

(단위 : 건)

년 도		2007년		2008년		2009년	
반입경로		2007년	구성비(%)	2008년	구성비(%)	2009년	구성비(%)
여행자	항 공	15	8	25	16	37	26
	해 상	27	14	13	8	9	6
특 송 화 물		20	11	13	8	27	19
국 제 우 편		115	63	99	61	69	48
수 입 화 물		2	1	1	1	0	0
기 타		5	3	10	6	2	1
합 계		184	100	161	100	144	100



(2) 단서별 검거현황

- 검거단서별로는 세관검사가 37건(26%)으로 가장 많고, 정보 33건(23%), X-ray 31건(21%), 탐지조 28건(19%) 등임
 - － 2005년 통관·감시직원 동참하는 총체적 사전차단망 구축 이후 지속적인 역량강화 및 마인드 확산노력 등으로 통관·감시직원에 의한 검거 비중이 2006년 52% ⇒ 2007년 63% ⇒ 2008년 58%이었던가 2009년에는 74%로 크게 증가
 - － 검찰·경찰 등 외부 단속기관 정보를 활용한 공조수사를 통한 검거 실적이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감소
- 2009년 중량기준으로는 세관검사가 30.4kg(72%)으로 가장 많고, 정보 5kg(12%), X-ray 5.5kg(13%), 탐지조 1.2kg(2.7%) 등임

<최근 3년간 단서별 검거현황>

(단위 : 건)

검거단서 \ 년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구성비(%)	2008년	구성비(%)	2009년	구성비(%)
외부정보	56	31	64	40	33	23
유관업체	7	4	3	2	4	3
자체정보	4	2	3	2	11	8
탐 지 조	38	21	34	21	28	19
X-ray	45	24	35	21	31	21
세관검사	34	18	22	14	37	26
계	184	100	161	100	144	100

(3) 적출국별 검거현황

- 적출국별로는 중국 62건(43%), 미국 29건(20%), 캐나다 8건(6%), 남아공 및 태국이 각각 7건(5%)의 순임
 - － 터키, 인도, 캄보디아, 대만, 스페인으로부터 밀수입된 마약류가 최근 3년 이래 처음으로 검거되었음
- 마약 종류별로는 메스암페타민은 중국, 남아공, 태국 대마류는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남아공 등으로부터 밀수되었음
 - － 메스암페타민은 중국이 75%, 남아공 7%, 태국 6%를 각각 차지하였고, 대마초는 미국이 48%, 캐나다가 20%를 각각 차지

<2009년 적출국별 주요 마약류 검거현황>

(단위 : 건)

적출국 \ 마약류	헤로인	코카인	대마초	대마수지	메스암페타민	MDMA	기타	합계
중 국	1				53	5	3	62
미 국		1	19		3		6	29
캐 나 다			8					8
남 아 공			2		5			7
태 국			1		4		2	7
영 국			1				4	5
필 리 핀			1		3			4
프 랑 스		1	1	1			1	4
네덜란드			3	1				4
일 본			1		1			2
캄보디아	2							2
인 도	1						1	2
터 키					2			2
대 만							1	1
스리랑카			1					1
스 페 인				1				1
브 라 질			1					1
호 주			1					1
아랍에미레이트				1				1
합 계	4	2	40	4	71	5	18	144

<최근 3년간 적출국별 검거현황>

(단위 : 건)

적출국 \ 년도	2007	2008	2009	전년대비증감(%)
중 국	89	76	62	△18
미 국	33	32	29	△10
캐 나 다	22	13	8	△39
남 아 공	-	2	7	250
태 국	2	5	7	40
영 국	10	5	5	0
필 리 핀	9	3	4	33
프 랑 스	1	2	4	100
네덜란드	1	1	4	300
일 본	-	1	2	100
캄보디아	-	-	2	-
인 도	2	-	2	-
터 키	-	-	2	-
대 만	-	-	1	-
스리랑카	2	2	1	△50
스 페 인	-	-	1	-
브 라 질	-	2	1	△50
호 주	1	2	1	△50
아랍에미레이트	1	2	1	△50
불 상	2	5	0	-
합 계	184	161	14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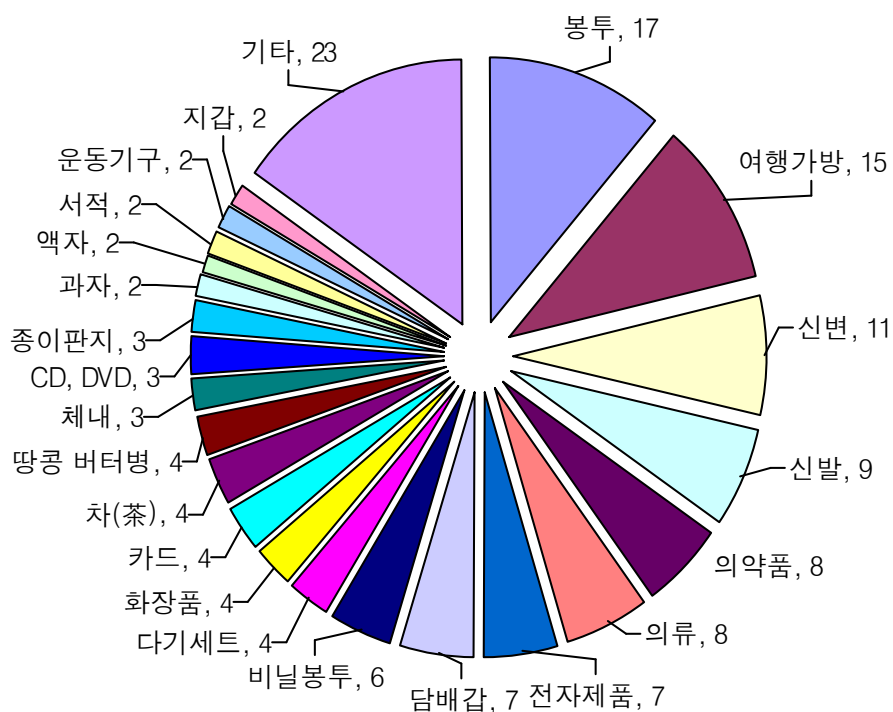
(4) 은닉수법별 검거현황

- 2009년 검거된 마약류 밀수에 사용된 은닉도구/수법은 봉투 17건, 여행가방 15건, 신변 11건, 신발 9건, 의약품·의류 각 8건, 담배갑·전자제품 각 7건, 다기세트·비닐봉투 6건 등
-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여행가방, 우편봉투, 중국산 의약품, 신변, 신발 등에 은닉하여 국제우편이나 여행자를 통한 밀수가 다수 검거됨
- 국제우편 이용 밀수의 경우 대마류는 주로 우편봉투, 땅콩버터병, 카드, 담배갑 등에 은닉하여 소량씩 밀반입하는 사례가 많음

<2009년 은닉수법별 검거현황>

(단위 : 건수)

은닉수법	봉투	여행가방	신변	신발	의약품	의류	전자제품	담배갑	비닐봉투	다기세트	화장품	카드
건수	17	15	11	9	8	8	7	7	6	4	4	4
은닉수법	차(茶)	땅콩버터병	체내	CD, DVD	종이판지	과자	액자	서적	운동기구	지갑	기타	합계
건수	4	4	3	3	3	2	2	2	2	2	23	150



(5) 마약 종류별 검거현황

(가) 총 괄

- 2008년도 주요 마약류 총 검거건수 144건 가운데 메스암페타민과 대마류가 각각 71건, 44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
-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국내로의 밀수가 지속되고 있고 남아공, 터키, 중국으로부터 한국경유 일본으로의 대형 중계밀수가 지속적으로 검거
- 대마초는 대부분 자가소비용 소량밀수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5월, 7월 남아공發 항공여객에 의해 각각 약10kg, 6kg의 밀수사건처럼 대형밀수도 검거되고 있음
- 한편, 항공여행자에 의해 캄보디아로부터 한국을 경유하여 대만으로 밀수하려던 헤로인 2건 약 1.5kg이 검거됨

<2009년 주요 마약류 검거현황>

(단위 : 건, g, 백만원)

구 분		건 수	수 량	금 액
코 카 인		2	59	178
헤 로 인		4	1,895	5,688
대 마	대 마 초	40	20,759	402
	대마수지	4	150	14
ATS류	메스암페타민	71	18,480	55,206
	MDMA	5	480	147
케타민 등		18	328	24
합 계		144	42,151	61,659

(나) 메스암페타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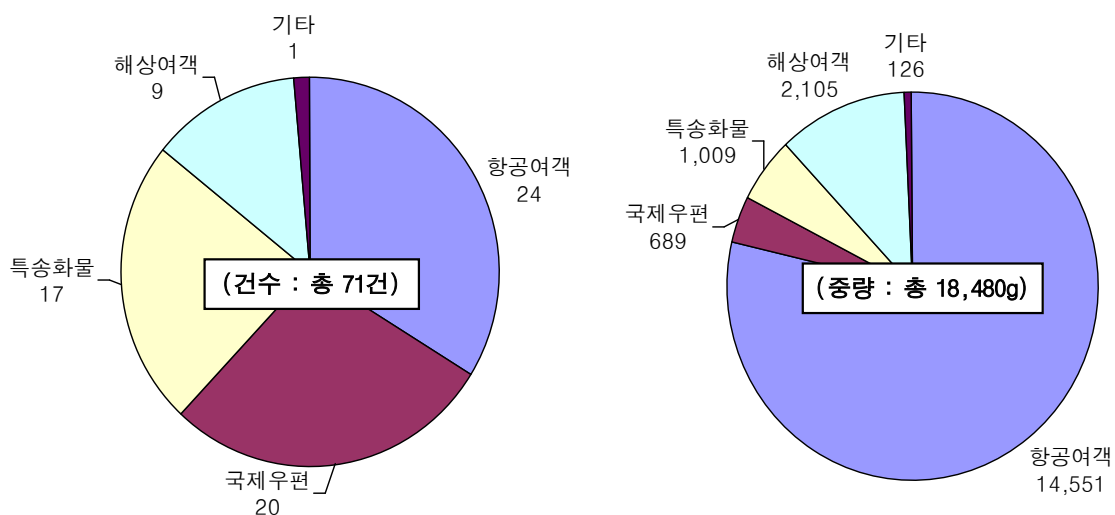
- 2009년 메스암페타민은 71건 18.5kg이 검거되어 전년도 80건 16.6kg에 비해 건수는 11% 감소한 반면 중량은 11%가 증가하였음
- 검거된 수량에 비하여 건수가 다소 크게 감소한 것은 국제우편을 이용한 의한 자가소비형 소형밀수가 감소한 반면, 중대형 조직밀수가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됨

<최근 3년간 메스암페타민 검거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전년대비증감(%)
건 수	96	80	71	△11
수량(g)	17,041	16,632	18,480	11

- 반입경로는 건수는 항공여행자 24건(34%), 국제우편 20건(28%), 특송 화물 17건(24%), 해상여행자 9건(13%) 등의 순이며
 - － 중량기준으로는 항공여행자 14,677g(79%), 해상여행자 2,105g (11%), 특송화물 1,009g(6%), 국제우편 689g(4%) 등의 순으로 검거됨

<반입경로별 메스암페타민 검거현황>



- 적출국별로는 중국 51건 7,609g, 남아공 5건 7,127g, 터키 2건 3,656g, 태국 4건 71g, 필리핀 3건 15g, 미국 3건 4g, 일본 1건 3g으로 중국과 남아공이 최대 공급국으로 나타남
- 검거경위별 건수기준으로는 외부정보 31건(44%), 세관검사 15건(21%), X-Ray 검색 13건(18%), 자체정보 8건(11%), 탐지조 4건(6%) 등의 순임
 - － 중량기준으로는 외부정보 4,783g(26%), 세관검사 418g(2%), X-Ray 검색 3,881(21%), 자체정보 8,801g(48%), 탐지조 597g(3%) 등의 순으로 검거됨

(다) 대마류

- 2009년 대마초는 40건 20,759g이 검거되어 전년도 60건 16,457g에 비하여 건수는 33%가 감소했으나 중량은 26% 증가
- 대마수지는 4건 150g이 검거되어 전년의 9건 107g에 비하여 건수 50% 감소 중량은 55% 증가하였고 대마오일은 검거실적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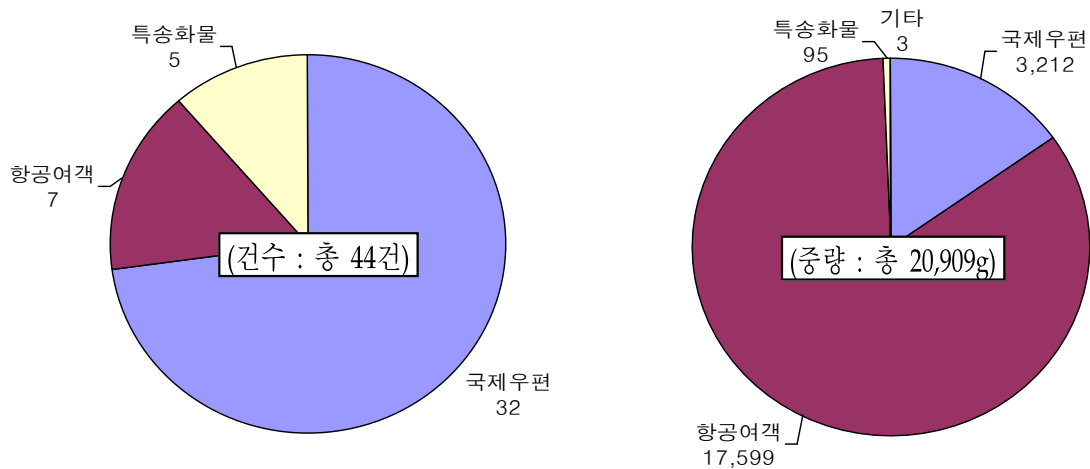
<최근 3년간 대마류 검거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전년 대비증감(%)
대 마 초	건 수	63	59	40	△33
	수량(g)	9,976	16,447	20,759	26
대마수지	건 수	12	9	4	△50
	수량(g)	735	107	150	55
대마오일	건 수	1	1	0	-
	수량(g)	29	87	0	-

- 반입경로별 대마류 검거동향을 보면, 총 44건 가운데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밀수가 32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으며, 항공여객 7건, 특송화물 5건 등이었음
 - － 중량기준으로는 항공여행자 17,599g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고, 국제우편 3,212g, 특송화물 95g 등이었음

- 검거단서별로는 탐지견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X-ray 8건, 세관검사 10건, 외부정보 3건 등이었음
 - － 중량기준으로는 세관검사가 19,133g(91.5%)으로 가장 많았고, X-ray 1,075g(5%), 탐지견 433g(2%), 외부정보 268g(1.5%) 등임
- 적출국별로는 미국 19건(43%), 캐나다 9건(20%), 네덜란드 6건(14%), 남아공 2건(5%) 등이었고, 중량별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미국이 각각 16,334g 및 2,816g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반입경로별 대마초 검거현황>



(라) 엑스터시(MDMA)

- 2009년중 검거한 엑스터시는 5건 480g(약 1,441정)으로 소량밀수가 대부분임
- 적출국별로는 중국 4건, 일본 1건 이었고, 반입경로는 항공여행자와 국제우편이 각각 2건 및 특송화물 1건이었음

<최근 3년간 MDMA 검거현황>

구 분	2007	2008	2008	전년대비증감(%)
건 수	8(11)	3(8)	5(6)	67
수량(정)	15,899	182	1,441	692

※ () 안은 타 종류 마약류와 함께 검거된 사건을 포함한 건수임

(마) 기타 마약류

- 2009년 헤로인은 4건 1,895g이 검거되었는데, 그 중 2건이 캄보디아로부터 한국을 경유하여 대만으로 밀수하려던 중계밀수(1,221g 및 339g)였음
- 한편, 프랑스와 미국으로부터 코카인(2건 59g), 영국과 미국에서 벤질 피페라진(4건 87정), 중국과 대만으로부터 밀반입된 케타민 2건 94g,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밀반입된 크라툼 각 1건(총 2건 122g)이 검거됨

(바) 마약류 원료물질

- 2009년 마약류 원료물질이 6건이 검거되었는데, 밀수출이 1건, 밀수입이 5건이었음

<2009년도 마약류 원료물질 검거현황>

구분	검거세관	검거내역	밀수경로	적출국 /목적국
밀수입	인천세관	감마부티로락톤 1.6톤	수입화물	중국
	인천공항	슈도에페드린 2.311g	“	“
	인천공항	슈도에페드린 2,299g	“	“
	인천공항	슈도에페드린 2,299g	“	“
	인천공항	슈도에페드린 2,299g	“	“
밀수출	서울세관	무수초산 15.6톤	수출화물	이란 - 아프가니스탄

(6) 밀수사범 검거현황

- 2009년도 주요 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세관에 검거된 자는 총 218명으로 전년 225명 대비 3% 감소하였음

- 국적별로는 한국이 120명(55%)으로 가장 많고, 미국 17명(8%), 중국 16명(7%), 일본 10명(4%), 대만 7명(3%) 및 러시아, 남아공, 캐나다가 각각 6명(2.7%) 등이었음

<국적별 밀수사범 검거현황(2006~2009년)>

(단위 : 명)

국 적 \ 년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국(KR)	181	188	140	120
미국(US)	19	17	23	17
중국(CN)	6	13	12	16
일본(JP)		2	7	10
대만(TW)	2	3		7
러시아(RU)	1	2	4	6
남아프리카공화국(ZA)			1	6
캐나다(CA)	4	12	7	6
필리핀(PH)	3	14	1	4
나이지리아(NG)	3	2	2	3
영국(GB)		5	3	2
스리랑카(LK)	1	4	1	1
태국(TH)		1	9	1
기타국(ZZ)	7	9	6	6
불상	6	11	9	13
합 계	233	283	225	218

※ 관련자 불명사건은 제외, 지명 수배된 자는 포함

- 검거된 밀수사범의 직업은 무직 87명(40%), 자영업자 37명(17%), 학원 강사 18명(8%), 노동업 17명(7.7%), 회사원 14명(6%), 서비스업 10명(4.5%) 등의 순이었음
- 그 밖에 학생 5명, 현역군인 2명, 종교인 1명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가 포함

<직업별 밀수사범 검거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무 직	44	109	102	94	87	436
자 영 업	12	16	23	25	37	113
교 육 업 (원어민 강사)	13 (12)	11 (11)	22 (22)	22 (22)	20 (18)	88 (85)
노 동 업	7	18	19	10	17	71
회 사 원	20	3	13	30	14	80
서비스업	9	9	7	6	10	41
학 생	3	3	8	12	5	31
기 타	71	64	89	26	28	278
합 계	179	233	283	225	218	1,138

※ 최근 3년간 자영업 및 서비스업(유흥업소 등)에 종사하는 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 성별 검거자 수는 남성이 191명, 여성이 27명으로 남성이 전체의 88%를 차지했고, 연령대별로는 30~40세미만 65명(30%), 20~30세미만 61명(28%), 40~50세미만 48명(22%), 50~60세미만 23명(10.5%) 등으로 나타남

<성별·연령별 밀수사범 검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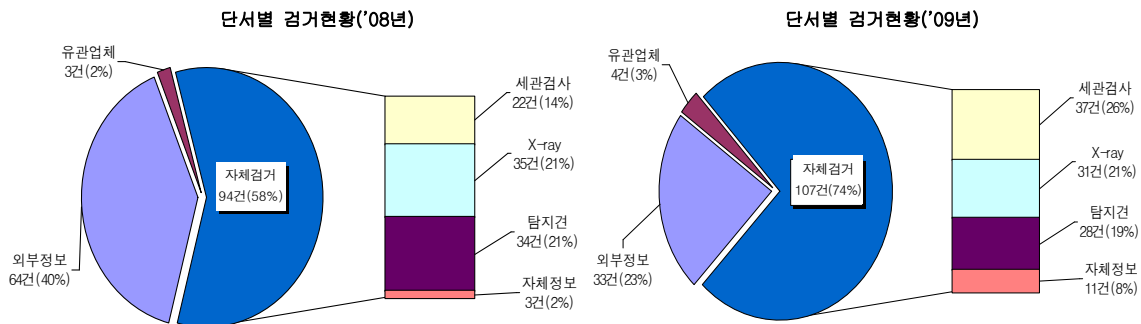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세 미만	20~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세 이상	불상	합계
남	1	46	60	43	22	1	18	191
여	-	15	5	5	1	1	-	27
합계	1	61	65	48	23	2	18	218

라. 주요 밀수단속 동향

(1) 세관 자체 검거비중의 지속적 증가

- 세관물품검사, X-ray 검사, 탐지견 등 세관 자체 단속노력에 의한 마약류 검거건수 기준에 의한 비중이 2007년 73% ⇒ 2008년 61% ⇒ 2009년 78%로 지난해 대폭 증가함
- 이는 국제단속기관과의 활발한 정보교환으로 정보분석이 강화되었으며, 순회 마약교육, 검거기법 전파 등에 의해 통관·감시분야 직원의 검거역량이 제고된데 따른 것임



(2)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밀수의 지속적인 검거

- 내국인에 의한 마약류 반입량은 8.2kg으로 전체 압수량의 19.6%에 불과하고,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반입량은 33.5kg(2008년 28.4kg)으로 전체 압수량의 79.6%로 밝혀져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밀반입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남
- 2006~2009년중 관세청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은 총 291명으로 그 가운데 직업이 강사인 자는 73명으로 전체의 25%에 달함
- 2009년 검거된 외국인 마약밀수사범은 85명으로 전체사범의 42%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11.8% 증가했으며, 그 가운데 영어강사가 18명으로 외국인 사범중 21%를 차지함

- 외국인 강사 대부분은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대마초 등을 밀반입하려다 검거된 경우이며,
- 그 밖에 남아공, 일본인, 대만인 등은 국제범죄 조직원 또는 동조직에 의해 일시 고용된 단순 운반책임
- 검거된 외국인의 국적은 미국 17명, 중국 16명, 일본 10명, 대만인 7명, 남아공, 러시아 및 캐나다가 각각 6명이었으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대마초를 밀반입하려다 검거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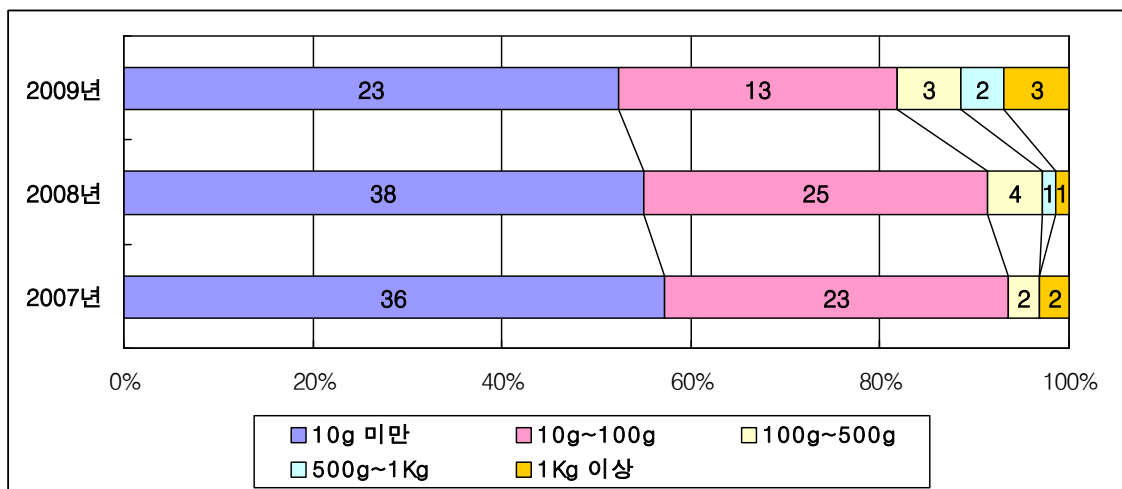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검거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 계
외국인 사범	46명	84명	76명	85명	291명
외국인 강사(%)	11명(24)	22명(26)	22명(29)	18명(21)	73명(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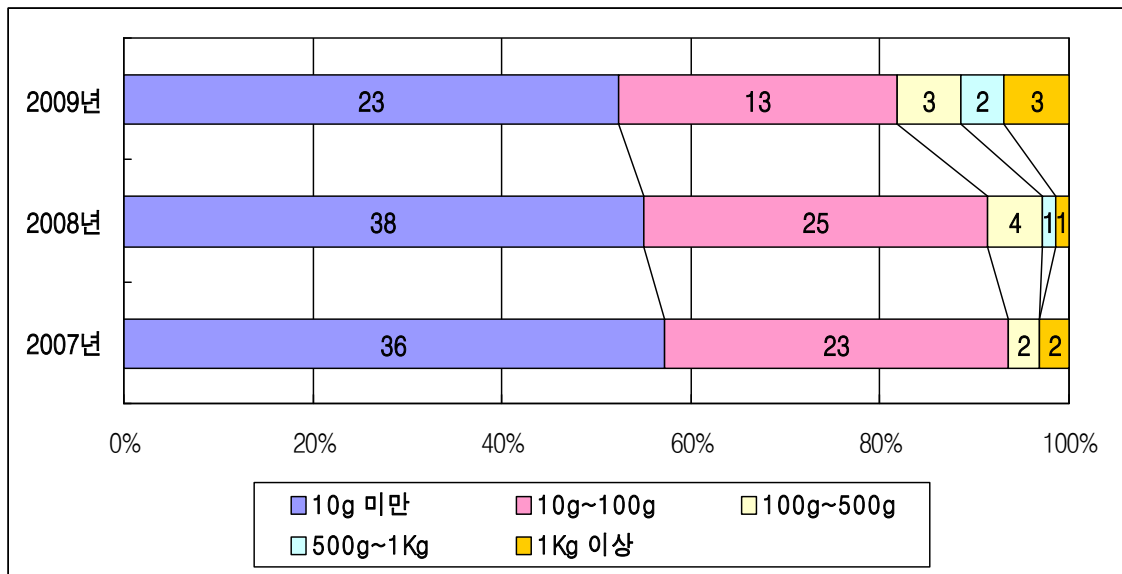
(3) 마약류 밀수의 대형화 · 조직화 추세

- 2009년도 마약류 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뚜렷하여 1회 밀수 검거량 1kg 이상이 12건, 31kg으로 전체 마약류 중량대비 74%를 차지
- 메스암페타민 1kg 이상이 8건, 11,948g이고 대마류가 1kg 이상이 3건, 17,831g, 헤로인이 1kg 이상이 1건, 1,221g을 검거

<메스암페타민 밀수규모(중량)별 검거현황(건)>



<대마류 밀수규모(중량)별 검거현황(건)>



(4) 한국경유 마약류 중계밀수의 검거 및 밀수경로의 다변화

- 국제마약 밀수조직에 의한 항공여행자를 이용한 한국경유 제3국으로의 마약류 밀수가 지속적으로 검거되고 있음
 - － 기존의 중국, 필리핀 등 전통적인 마약류 적출국에서 벗어나 남아공, 터키 및 캄보디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출발한 마약밀수 검거
- 2009년에 검거된 주요 중계밀수 경로는 '중국, 터키, 남아공 ⇒ 한국 ⇒ 일본' 루트의 메스암페타민(8건) 밀수경로와 '캄보디아 ⇒ 한국 ⇒ 대만' 루트의 헤로인(2건) 밀수경로였음

<한국경유 마약류 중계밀수 검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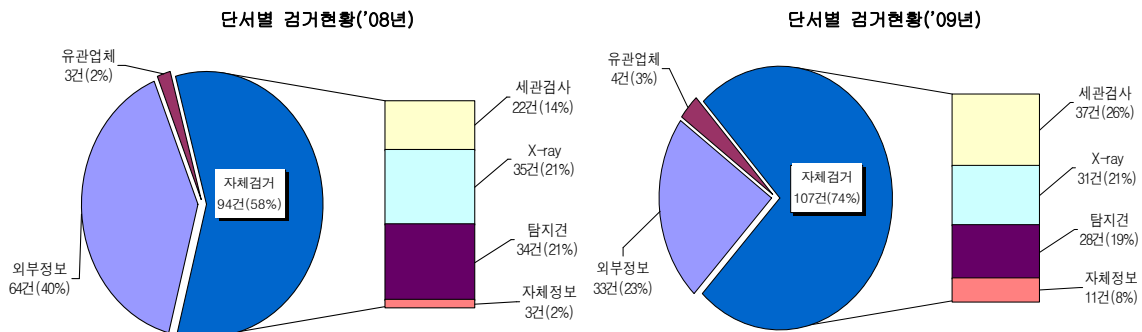
년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건 수	4	4	4	14
검거량(g)	6,009	7,717	11,787	30,349

<2009년도 마약류 중계밀수 주요 검거내역>

검거일자	검거장소	적 발 내 역	밀 수 루 트	운반책 국적
2009. 2. 6	인천공항	헤로인 339g	캄보디아 ⇒ 한국 ⇒ 대만	대만(남1명)
2009. 2.21	"	메스암페타민 1,000g	남아공 ⇒ 카타르 ⇒ 한국 ⇒ 일본	일본(여1명)
2009. 3.12	"	메스암페타민 1,076g	"	남아공(남1명)
2009. 5. 2	"	대마초 10,171g	"	남아공(남1명)
2009. 5.14	"	메스암페타민 1,000g	남아공 ⇒ 두바이 ⇒ 한국 ⇒ 일본	남아공(남1명)
2009. 6.22	"	메스암페타민 1,050g	남아공 ⇒ 싱가포르 ⇒ 한국 ⇒ 일본	남아공(남1명)
2009. 7. 4	"	헤로인 1,221g	캄보디아 ⇒ 한국 ⇒ 대만	대만(남1명)
2009. 7. 9	"	대마초 6,163g	남아공 ⇒ 카타르 ⇒ 한국 ⇒ 일본	남아공(여1명)

(5) 항공여행자에 의한 마약밀수 급증

- 항공여행자에 의한 밀반입이 37건, 34kg으로 전체 압수량 대비 80%를 차지하였음
- 그 밖에 국제우편(73건, 4.7kg), 해상여행자(9건, 2kg) 및 특송화물(27건, 1.5kg) 순으로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에 의한 밀반입이 100건, 6.2kg으로 전체 밀반입 건수 대비 67%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량면에서는 전체 압수량에 1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6) 원료물질 불법 수출입 검거

- 2009년중 관세청은 마약원료물질 불법수출 1건 15.6톤, 불법수입 4건 9.2톤을 검거하였음
 - － 감마부티로락톤 1건, 1.6톤은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식약청장의 승인 없이 수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례임
 - － 감기약 성분으로 메스암페타민 제조 원료로도 사용되는 슈도에페드린이 중국으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하여 밀수입된 것을 검거
- 마약류 주요 생산지인 아프가니스탄으로 밀수출된 헤로인 제조 원료 물질인 무수초산 15.6톤이 검거되어 마약생산지역으로 수출되는 원료 물질에 대한 단속강화가 필요



【참고자료】 마약류 적발 주요통계

I 2009년 마약밀수 주요 검거동향

1. 총괄 검거실적

(단위: g,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기대비(%)		
	건 수	중량	금 액	건 수	중량	금 액	건 수	중량	금 액
마 약 사 범	169	42,420	768	150	42,151	617	△11	-	△20

- 전체 마약류 검거실적은 150건, 42kg, 시가 617억 상당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 11%, 금액 20% 감소

※ 전년도 10월 코카인 8.8kg(264억) 적발에 기인하여 금년도 금액이 감소함

2. 2009년 검거실적 대비 각 유형별 순위와 비중

순위	품목별		검거단서별		밀반입루트별		본부세관별	
	건수(비중)	금액(비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메스암페타민 (47%)	메스암페타민 (89%)	세관검사 (38%)	세관검사 (55%)	국제우편 (49%)	항공여행자 (79%)	인천공항 (69%)	인천공항 (81%)
2	대마초 (27%)	헤로인 (9%)	외부정보 (22%)	외부정보 (23%)	항공여행자 (25%)	해상여행자 (10%)	서울 (13%)	부산 (8%)
3	MDMA (3%)	대마초 (1%)	X-Ray (21%)	X-Ray (19%)	특송화물 (18%)	특송화물 (5%)	부산 (8%)	인천 (6%)

- 외부정보 의존율이 지난해 40%에서 22%로 급감함

3. 2009년 각 유형별 검거실적

☐ 품목별

(단위 : g,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기대비(%)		
	건 수	중 량	금 액	건 수	중 량	금 액	건 수	중량	금 액
메스암페타민	80	16,671	49,890	71	18,480	55,206	△11	11	11
대 마 초	60	16,457	165	40	20,759	402	△33	26	144
대마수지	8	97	10	4	150	14	△50	55	40
MDMA	3	61	18	5	480	147	67	687	717
헤 로 인				4	1,895	5,688			
코 카 인	4	8,869	26,608	2	59	178	△50	△99	△99
기타 마약류	6	265	103	18	328	24	200	24	△77
원료물질 등	8	-	30	6		39	△25		30
합 계	169	42,420	76,824	150	42,151	61,698	△11	-	△20

☐ 검거단서별

(단위 : g,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기대비(%)		
	건 수	중 량	금 액	건 수	중 량	금 액	건 수	중량	금 액
세관검사	31	4,753	10,463	57	30,466	33,746	84	541	223
외부정보	66	12,978	36,547	33	5,079	14,190	△50	△61	△61
탐 지 조	34	510	44	28	1,150	1,806	△18	125	4,005
X - Ray	38	24,179	29,770	32	5,456	11,956	△16	△77	△60
합 계	169	42,420	76,824	150	42,151	61,698	△11	-	△20

☐ 밀반입 루트별

(단위 : g,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기대비(%)		
	건 수	중량	금 액	건 수	중량	금 액	건 수	중량	금 액
국제우편	102	5,345	12,954	73	4,711	3,207	△28	△12	△75
특송화물	13	2,292	3,749	27	1,467	3,207	108	△36	△14
항공여행자	25	30,247	48,492	37	33,738	48,681	48	12	-
해상여행자	13	3,406	10,017	9	2,105	6,179	△31	△38	△38
기 타	16	1,130	1,612	4	130	424	△75	△88	△74
합 계	169	42,420	76,824	150	42,151	61,698	△11	-	△20

□ 본부세관별

(단위 : g,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기대비(%)		
	건 수	중 량	금 액	건 수	중 량	금 액	건 수	중량	금 액
인천공항	115	35,557	57,709	104	36,620	50,014	△10	3	△13
서 울	14	1,594	4,157	19	1,079	2,920	36	△32	△30
부 산	12	2,159	6,241	12	3,083	4,764	-	43	△24
인 천	11	1,654	4,671	10	1,305	3,853	△9	△21	△18
대 구	8	638	1,923	2	46	138	△75	△93	△93
광 주	9	818	2,123	3	18	9	△67	△98	△99
합 계	169	42,420	76,824	150	42,151	61,698	△11	-	△20

□ 2009년 품목기준 적출국별 집계실적 등

구분	품 목	건수	수량	밀 반입국(건/압수량)	밀수 경로	은닉 방법	검거 사범수
마약	헤로인(g)	4	1,895	캄보디아(2건, 1,560) 중국(1건, 0.18) 인도(1건, 335)	항공2 우편2	신체은닉 담배 개피속 어학케이스	8
	코카인(g)	2	59	프랑스(1건, 1) 미국(1건, 58)	우편1 특송1	CD케이스 플라스틱 지퍼백	2
	양귀비 씨앗(g)	3	734	미국(3건, 734)	우편1 특송2	봉투에 적입	3
향정	필로폰(g)	71	18,480	남아프리카(5건, 7,127) 중국(53건, 7,606) 터키(2건, 3,656) 태국(4건, 70) 필리핀(3건, 14) 미국(3건, 4) 일본(1건, 3)	항공24 우편20 특송17 해상9 불상1	의류 주머니 차상자 바닥 화장품속 이중가방 사진액자 pc연결기구 슬리퍼 바닥 도자기 인형 종이판지 전자레인지	116
	MDMA(정)	5	1,441	중국(5건, 1,394) 일본(1건, 47)	특송2 항공2 우편2	가전제품내 신체은닉 차봉지, 휴대가방	10
	YaBa(g/정)	1	53g/160정	태국(1건, 160정)	우편1	담배개피속	1
	벤질피페라진(정)	4	87	영국(2건, 40) 미국(1건, 15) 태국(1건, 32)	우편3 특송1	종이상자 홍옥고산 약병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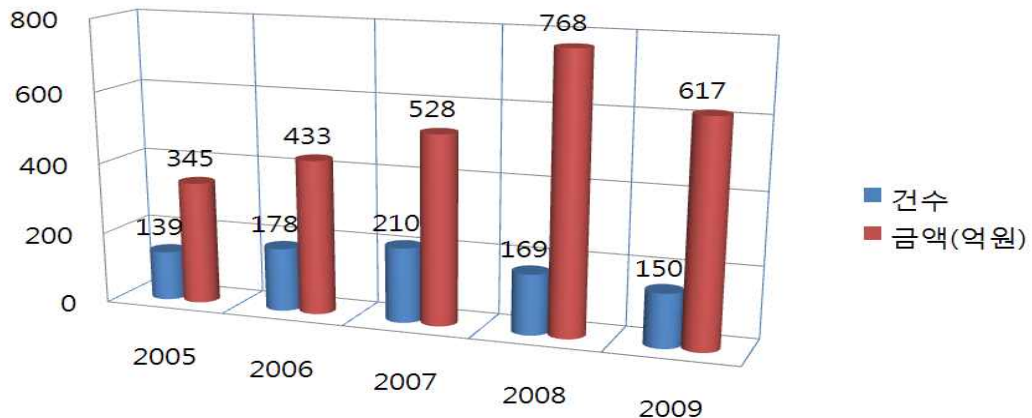
구분	품 목	건수	수량	밀반입국(건/압수량)	밀수 경로	은닉 방법	검거 사범수
	케타민(g/정)	1	86g/23정	대만(1건, 4g 및 23정) 중국(1건, 82)	항공1 우편1	비타민병 차봉지	1
	크라툼(g)	2	122	영국(1건, 5) 미국(1건, 117)	우편2	우편봉투 비닐지퍼백	2
	마진돌(정)	1	3,907	중국(1건, 3,907)	우편1	건강보조식품	1
	줄피템(정)	2	756	인도(1건, 756)	우편2	봉투 속	2
	거통편(정)	1	4,760	중국(1건, 4,760)	우편1	여행자휴대품	1
	파르알데히드(g)	1	17,170	중국(1건, 17,170)	기타1	수입화물	2
	JWH-018(g)	1	30	미국(1건, 30)	우편1	봉투 속	1
대마	대마초(g)	38	19,648	남아프리카(2건, 16,334) 미국(17건, 1,708) 네덜란드(3건, 958) 캐나다(8건, 341) 프랑스(1건, 238) 중국(1건, 43), 일본(1건, 11) 태국(1건, 7), 브라질(1건, 3) 호주(1건, 1), 필리핀(1건, 0.2) 영국(1건, 2), 스리랑카(1건, 1)	우편27 항공7 특송5	땅콩 버터병 여행용 백팩 과자, 팬티속 목조각품 두꺼운 책속 가방바닥 양철 과자통 담배갑 서류봉투	45
	대마수지(g)	4	150	캐나다(1건, 100) 아랍에미레이트(1건, 24) 네덜란드(1건, 17) 스페인(1건, 5) 프랑스(1건, 4)	우편3 항공2	여행용 백팩 홍자 봉지속 액자 테두리	8
	대마쿠키(g)	1	802	미국(1건, 802)	우편1	플라스틱 용기	1
	대마케이크/강정(g)	1	309	미국(1건, 309)	우편1	차(茶)속에 은닉	1
	대마종자(개)	1	22	영국(1건, 22)	우편1	플라스틱 원통	1
원료 물질	슈도에페드린(g)	4	7,560	중국(4건, 7560)	우편4	중국산 관음차 우편봉투 속	4
	무수초산(ton)	1	16	한국(1건, 16톤)	기타1	편직물 위장	2
	감마부티로락톤(kg)	1	1,600	중국(1건, 1,600kg)	기타1	부정수입	1
합 계		150	42,151g				218

※ 1사건의 2종류 이상의 마약류가 적발된 사건이 있어 품목별 건수와 밀반입국별 건수의 합이 상이함

※ 양귀비 씨앗, 마진돌, 거통편, 파르알데히드 및 원료물질의 적발중량은 통계 왜곡우려로 합계 불산입

Ⅱ 최근 5년간 마약밀수 동향

□ 총 관



※ 건수는 2007년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금액은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임

□ 품목별

(단위 : g,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메스암페타민	56	11,403	34,050	109	9,964	30,624	96	17,041	50,937	80	16,671	49,890	71	18,480	55,206
대마초	33	13,453	135	34	7,408	85	63	9,976	104	60	16,457	165	40	20,759	402
대마수지	6	1,467	146	3	54	5	12	735	73	8	97	10	4	150	14
대마오일				1	100	100	1	29	29	1	87	87			
MDMA	10	317	96	6	1,058	317	8	5,294	1,591	3	61	18	5	480	147
헤로인				1	18	55				-		-	4	1,895	5,688
코카인				6	4,013	12,039	1	4	12	4	8,869	26,608	2	59	178
기타 마약류	34	6	66	18	108	80	19	92	42	5	178	16	18	328	24
원료물질 등							10	0	22	8	0	30	6		39
합 계	139	26,646	34,493	178	22,723	43,305	210	33,171	52,810	169	42,420	76,824	150	42,151	61,698

※ 건수의 감소추세에 비해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마약류 밀반입이 점점 대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검거단서별

(단위 : g,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세관검사	43	14,516	1,827	75	4,925	13,300	61	2,506	5,713	31	4,753	10,463	57	30,466	33,746
외부정보	44	10,904	32,240	61	10,972	27,708	56	18,493	34,800	66	12,978	36,547	33	5,079	14,190
탐 지 조	18	291	28	17	5,508	115	38	586	93	34	510	44	28	1,150	1,806
X - Ray	34	935	398	25	1,318	2,182	55	11,586	12,204	38	24,179	29,770	32	5,456	11,956
합 계	139	26,646	34,493	178	22,723	43,305	210	33,171	52,810	169	42,420	76,824	150	42,151	61,698

□ 밀반입 루트별

(단위 : g,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국제우편	52	2,355	4,271	82	4,258	9,176	130	8,044	12,323	102	5,345	12,954	73	4,711	3,207
특송화물	25	3,477	4,765	36	5,925	1,701	21	1,041	2,122	13	2,292	3,749	27	1,467	3,207
항공여행자	38	4,329	11,862	28	9,332	22,271	15	6,397	4,768	25	30,247	48,492	37	33,738	48,681
해상여행자	13	1,155	3,485	26	2,816	8,951	30	8,910	26,704	13	3,406	10,017	9	2,105	6,179
기 타	11	15,330	10,110	6	392	1,206	14	8,779	6,893	16	1,130	1,612	4	130	424
합 계	139	26,646	34,493	178	22,723	43,305	210	33,171	52,810	169	42,420	76,824	150	42,151	61,698

※ 건수는 국제우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이는 대마초 위주의 소액 사건이며, 항공여행자에 의한 마약류 밀반입이 건수와 금액에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등 밀반입 루트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

□ 본부세관별

(단위 : g,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인천공항	53	4,855	7,334	61	12,115	20,181	52	17,103	16,407	115	35,557	57,709	104	36,620	50,014
서울	46	18,071	16,554	81	5,369	6,767	104	8,597	15,051	14	1,594	4,157	19	1,079	2,920
부산	15	3,107	9,192	9	1,980	5,945	17	1,055	2,716	12	2,159	6,241	12	3,083	4,764
인천	10	119	387	18	2,957	9,574	23	5,632	16,748	11	1,654	4,671	10	1,305	3,853
대구	11	431	1,023	3	207	623	8	626	1,514	8	638	1,923	2	46	138
광주	4	63	3	6	95	215	6	158	374	9	818	2,123	3	18	9
합 계	139	26,646	34,493	178	22,723	43,305	210	33,171	52,810	169	42,420	76,824	150	42,151	61,698

□ 적출국별

(단위 : g,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동북아시아	중국	73	11,295	33,302	112	9,502	29,238	109	17,162	50,685	79	13,663	40,809	67	8,196	22,748
	홍콩	2	57	15	2	114	64	1	12	1	1	64	64			
	일본	1	1	2				1	0	0	1	3	1	2	29	13
	대만	1	12	36										1	12	1
	몽골 등				1	3	0	6	30	17	4	0	29	1	-	32
동남아시아	태국	6	25	35	4	27	28	2	61	1	5	237	192	7	141	221
	필리핀	10	154	312	7	96	287	9	109	326	3	41	105	4	14	38
	말레이시아							1	12	0	2	2,986	8,959			
	캄보디아 등													2	1,561	4,684
서남아시아	아랍에미레이트													1	24	2
	이란, 파키스탄 등															
남부아시아	인도	1	1,386	139				2	243	24				2	335	1,003
	스리랑카				1	190	2	2	15	1	2	7	0	1	1	0
북아메리카	미국	23	12,620	141	29	580	52	34	1,181	66	33	1,589	23	29	3,033	246
	캐나다	14	317	7	10	728	20	22	2,388	116	13	155	2	8	441	14
남아메리카	브라질										2	8,800	26,400	1	3	0
	아르헨티나 등							1	397	40						
유럽	러시아				1	100	100	1	1	0	3	99	88			
	프랑스	2	41	2	1	27	3	1	10	1	2	5	1	4	243	8
	독일	1	22	2				1	2	0						
	룩셈부르크				1	4,000	12,000									
	아일랜드				1	9	1				1	2	0			
	영국							10	98	1	5	39	3	5	20	2
	네델란드							1	78	1	1	1	0	4	975	11
	덴마크							1	6	3						
	벨기에							1	4,850	1,456						
	터키													2	3,656	10,968
	이탈리아 등							1	3	0	1	1	0	1	5	0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1	45	0	1	18	4	1	3	0	3	29	1	1	1	0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1	448	4	1	1,987	309	1	6,457	65						
	남아공				1	4,960	49				2	14,113	141	7	23,461	21,707
	가나 등										1	27	0			
불 상		3	223	496	5	382	1,148	1	53	6	5	559	6			
합 계		139	26,646	34,493	178	22,723	43,305	210	33,171	52,810	169	42,420	76,824	150	42,151	61,698

※ 중국이 마약류 최대 적출국이며, 금액기준으로 중국 > 남아공 > 터키 > 캄보디아 순임

IV. 마약류 밀수 주요 적발사례

Ⅳ. 마약류 밀수 주요 적발사례

1. 마 약

가. 헤로인

□ 특급우편 이용 중국發 헤로인 0.18g 적발

- 적발일시 : 2009. 2.23. 10:10경
-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세관검사장
- 범칙물품 : 헤로인 0.18g
- 적발경위
 - － 중국(북경)으로부터 발송되어 CA123편으로 도착된 국제특급우편물에 대하여 우범성판별기법에 의한 선별 및 개정검사 결과 적발
- 은닉수법
 - － 헤로인을 비닐로 포장하고 담배갑에 든 담배 한 개피 속을 제거한 후 그 공간에 은닉하여 발송



특급우편물 외양



우편물 내용물



은닉된 헤로인

□ 대만 行 출국여행자 이용 헤로인 360g 적발

- 적발일시 : 2009. 2. 6. 11:15경
- 적발장소 : 인천국제공항 2번 출국장 신변검색대
- 범칙물품 : 헤로인 약 360g
- 적발경위
 - － 검거된 피의자가 대만行 중화항공(CI) 161편에 탑승키 위해 출국장 보안검색대 문형게이트를 통과할 때 경보음이 울려, 보안업체 직원이 검색봉으로 신변검색을 실시
 - － 동 피의자의 바지 양쪽 주머니에 딱딱한 물질이 있음을 확인, 제시를 요구하여 콘돔으로 싸여진 원형모양의 검은색 압착물질 2개 발견
 - － 동일 17:30경, 조사과정에서 신체(항문) 속에 은닉하고 있던 헤로인 약 240g을 추가로 확인
- 은닉수법
 - － 헤로인 약 120g을 두 개로 나누어 각 원형 모양으로 압착하여 비닐 랩으로 감싼 후 콘돔에 넣어 양쪽 바지주머니 속에 각각 은닉, 약 240g을 4개로 나누어 같은 방법으로 포장한 후 신체(항문) 속에 은닉



주머니에 은닉한 모습



테이프 및 콘돔으로 감싼 모습



헤로인 현품

□ 항공여객에 의한 캄보디아發 헤로인 1,225g 밀수 적발

- 적발일시 : 2009. 7. 4.(토), 11:15~14:30경
- 적발장소 :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과 사무실
- 범칙물품 : 헤로인 1,225g
- 적발경위
 - － 캄보디아(프놈펜)로부터 2009. 7. 4. 06:15경 KE690편으로 입국하는 대만인 혐의자들을 정보분석에 의거 검사대상자(APIS)로 지정하여 휴대품을 검사하던 중 다량의 콘돔과 라텍스 골무를 발견하고, 혐의자 들을 분리한 후 인터뷰, 이온스캔 및 소변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 신체 내(직장 속)에 은닉하고 있던 헤로인 적발
 - * 피의자들이 체류 예정지인 서울 영등포구 소재 ○○모텔에서 잠복 중 19:50경 마약을 인수하려던 피의자를 추가로 긴급체포
- 은닉수법
 - － 헤로인 약 70그램씩을 랩-골무-콘돔-랩-골무-콘돔으로 겹겹이 포장한 후, 그 외부를 다시 4겹의 라텍스 골무로 포장하여 총 16몽치를 피의자들이 나누어서 자신의 신체내(직장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



헤로인 포장용 콘돔 및 골무



X-RAY 판독영상



포장 형태

□ 특송화물 이용 미국發 히드로코돈 120정 밀수 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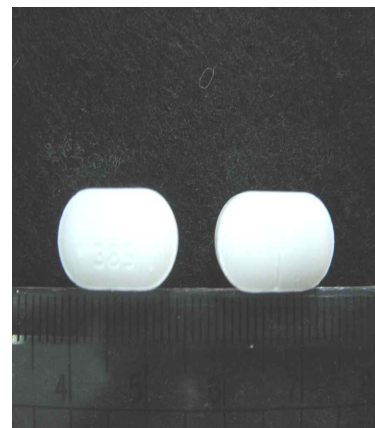
- 적발일시 : 2009. 7. 5.(일), 14:00경
- 적발장소 : 인천공항 UPS 특송통관장
- 범칙물품 : 히드로코돈 120정
 - ※ 히드로코돈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헤로인과 같은 호에 속하는 마약으로 2008. 1. 9. 미국에서 특송화물(UPS)로 반입된 히드로코돈 100정 적발이후 첫 적발사례임
- 적발경위
 - － 미국 앵커리지發 화물전용기 5X064편으로 인천공항세관 관할내 UPS 특송화물 창고에 반입된 화물에 대한 선별검사결과 적발
- 은닉수법
 - － 특송화물 상자 속에 든 씨리얼 등 12개 품목 중 히드로코돈 1통(120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적발



내용물 12종



히드로코돈 1통



정밀사진

□ 특송화물 이용 미국發 코카인 58.34g 밀수 적발

- 적발일시 : 2009. 9.19.(토), 14:30경
- 적발장소 : 인천공항세관 지정장치장
- 범칙물품 : 코카인 58.34g
- 적발경위
 - － 미국으로부터 화물기 FX013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특송화물에 대하여 X-ray 관독 중 이상음영이 발견되어 선별한 후 정밀검사 결과 적발
- 은닉수법
 - － 크랙형 코카인을 투명한 플라스틱 지퍼백에 세 겹으로 담고 작은 종이상자 안에 은닉한 후 의류, 양말, 설탕봉지, 서적 등과 함께 발송



X-ray 관독모습



내용물 모습



적발된 코카인

□ 국제우편 이용 인도發 헤로인 334g 밀수 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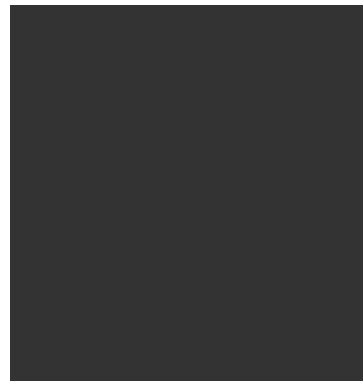
- 적발일시 : 2009.10.26.(월), 19:45경
-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세관우편검사
- 범칙물품 : 헤로인 334g
- 적발경위
 - － 인도(텔리)에서 태국을 경유하여 TG628편으로 반입된 특급우편물에 대하여 우범성판별기법에 의거 검사대상으로 선별하여 개장검사 결과 적발
- 은닉수법
 - － 헤로인 334그램을 9뭉치로 나누어 검정색 비닐봉지로 포장한 후 어학 학습용 교재를 담은 플라스틱 케이스 내부공간에 은닉하여 발송



특급우편 내용물



케이스 속에 은닉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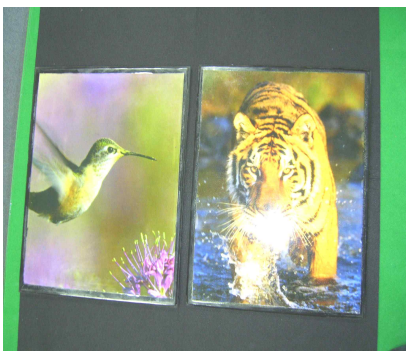
적발된 헤로인

2. 향정신성의약품

가. 메스암페타민

□ 항공여행자에 의한 남아공發 메스암페타민 1,030g 적발

- 적발일시 : 2009. 2.21. 20:30경
- 적발장소 : 마약조사와 사무실
-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1,030g
- 적발경위
 - － 자체 정보분석에 의거 남아공을 출발하여 카타르(도하)發 카타르 항공(QR820)편으로 입국하는 일본인 여행자를 검사대상자로 지정
 - － 피의자의 기탁화물(가방)에 대한 X-Ray 판독에서 액자 속에서 이상 음영이 판독되어 정밀 개장검사 결과 액자 내부에 은닉된 마약류 적발
- 은닉수법
 - － 메스암페타민을 물새 및 호랑이 사진의 액자(2개) 내부에 각각 2곳씩 홈을 파서 넣은 후 불투명 테이프로 감아 은닉



가방 속에 들어있던 액자 2개



은닉된 모습 1



은닉된 모습 2

□ 특송화물 이용 중국發 메스암페타민 392g 밀수입 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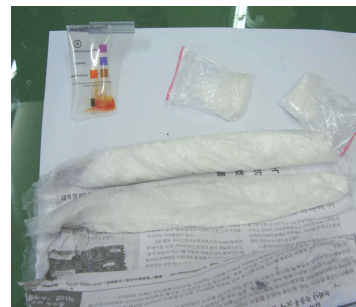
- 적발일시 : 2009. 3.10. 13:00경
- 적발장소 : 김포세관 특송화물검사장
-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392g
- 적발경위
 - － 중국(대련)으로부터 CZ685편으로 반입된 국제특송화물(발렉스)에 대한 X-ray 검색 중 이상음영이 포착되어 정밀 개장검색 결과 적발
- 은닉수법
 - － 메스암페타민을 비닐과 신문지로 길게 포장하여 여행용가방(Suitcase)의 손잡이를 연결하는 양쪽 지지대 속에 각각 넣은 후 감자로 입구를 막아 은닉하여 발송



특송화물 모습



가방 지지대 속 은닉 모습



적출된 범칙물품

□ 남아공發 항공여행자에 의한 메스암페타민 1,076g 밀수입 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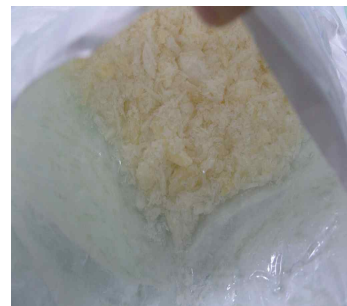
- 적발일시 : 2009. 3.12. 19:35경
- 적발장소 :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입국장 C구역
-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1,076g
- 적발경위
 - － 자체 정보분석에 의거 남아공(요하네스버그)으로부터 카타르(도하)를 경유하여 QR820편으로 입국하는 남아공인 남성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하여 동인의 기탁수화물(서류가방) 등을 정밀검사하여 마약류 적발
- 은닉수법
 - － 메스암페타민 532g과 544g을 각각 택배용 봉투에 넣고 먹지로 감싼 후 서류 가방의 양쪽 면에 은닉한 다음, 의류 등과 같이 여행용가방에 넣어 신변용품으로 위장하여 밀반입



서류가방 속 은닉



포장된 메스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 위장거래를 통한 메스암페타민 1,021g 밀거래 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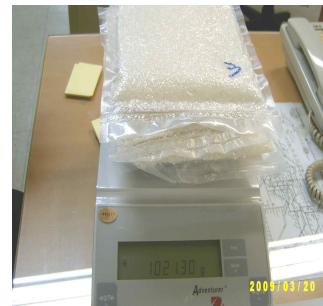
- 적발일시 : 2009. 3.20. 14:40경
- 적발장소 : 서울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1층 와인바
-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약 1,021g
- 적발경위
 - － 2009. 3.18. ‘후지오카’라고 불리는 일본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밀수입한 메스암페타민 1kg을 운반책 이용, 일본으로 밀수출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후지오카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 － 같은 달 20. 서울 소재 ○○호텔에서 메스암페타민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정보를 추가로 입수하고, 검찰과 함께 서울로 이동하여 메스암페타민을 소지, 판매하려던 이○○, 알선책 일본인 이시○○, 한국인 박○○을 체포
- 은닉수법
 - － 메스암페타민 1,021g(피포함)을 압축 비닐봉지 4개에 나누어 담은 후 와이셔츠 케이스 바닥에 넣어 은닉



와이셔츠 겉모습



은닉된 메스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계근

□ 보따리상에 의한 중국발 메스암페타민 328g 밀수입 적발

- 적발일시 : 2009. 3.26. 14:00경
- 적발장소 : 속초항 여객터미널 입국장
-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328g
- 적발경위
 - － 속초항과 러시아 자루비노 항을 오가는 뉴동춘호를 이용하는 소상인 김○○의 수화물을 검사하던 중 메스암페타민으로 추정되는 물품을 확인한 후, 간이 시약테스트 결과 양성반응이 확인되어 적발
- 은닉수법
 - － 메스암페타민 328g을 면세비닐봉투에 담아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



검은색 비닐봉지



봉지에 담긴 백색결정체



메스암페타민 계근)

□ 특급우편 이용 필리핀발 메스암페타민 4.52g 밀수 적발

- 적발일시 : 2009. 4.24. 14:30경
-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세관검사장
-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4.52g
- 적발경위
 - － 필리핀으로부터 화물기인 FX5803편으로 반입된 국제특급우편물에 대하여 X-ray 검색 중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우편물을 개장검사한 결과 적발
- 은닉수법
 - － 메스암페타민 4.52g을 투명한 플라스틱 백 2개에 분산하여 먹지로 포장한 후 슬리퍼 미드솔(mid-sole)에 홈을 파서 은닉하여 발송



특급우편 소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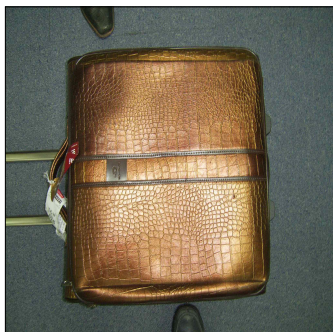
슬리퍼에 은닉된 모습



적발된 메스암페타민

□ 항공여행자에 의한 남아공發 메스암페타민 1,017g 밀수 적발

- 적발일시 : 2009. 5.14.(금), 17:30경
- 적발장소 : 인천국제공항 마약조사과 사무실
-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1,017g
- 적발경위
 - － 정보분석에 의거 남아공을 출발 아랍에미레이트(두바이)를 경유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한 EK322편 탑승자 중 남아공 국적의 피의자를 마약밀수우범 검사대상자로 APIS지정하여 휴대품 정밀검색 결과 신발 밑창에 은닉된 마약류 적발
- 은닉수법
 - －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1,017g을 약 250g씩 투명 플라스틱 랩으로 포장하여 운동화(2켤레)의 밑창 속에 넣고 본드로 접착한 후 박음질 하여 은닉



기탁화물 1개(10Kg)



기탁화물 내용물



신발 밑창에서 적출한 모습

□ 항공여행자에 의한 남아공 發 메스암페타민 1,041g 밀수 적발

- 적발일시 : 2009. 6.22.(월), 08:20경
- 적발장소 : 인천국제공항 세관입국검사장
-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1,041g
- 적발경위
 - － 정보분석에 의거 남아공을 출발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한 SQ602편 탑승자 중 남아공 국적의 피의자를 마약밀수우범 검사대상자로 APIS지정 한 후, 기탁수하물에 대한 X-ray 검색결과 이상음영이 관측되어 정밀검색 결과 플라스틱 시트로 포장하여 가방 옆면에 은닉된 마약류 적발
 - ☞ 인천공항세관은 남아공 發 마약류 밀수 특별단속작전(“희망봉 100일 작전”, 2009. 3. 1.~6. 8.) 수행으로 금년도 총 14.134kg, 시가 126억원 상당의 남아공 發 마약류를 적발
- 은닉수법
 - － 메스암페타민 1,041g을 투명 플라스틱 시트로 포장한 후 먹지로 감아 기탁한 가방의 옆면(false side)에 은닉하여 밀반입



기탁한 여행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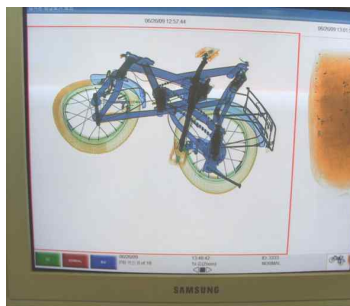
마약류가 은닉된 모습



적발한 마약류

□ 해상보따리상에 의한 중국發 메스암페타민 200g 밀수 적발

- 적발일시 : 2009. 6.26.(금), 13:00경
- 적발장소 :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
-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200g
- 적발경위
 - 중국 단둥에서 출항한 화객선 동방명주호(OP)로 인천항에 입항한 보따리상의 반입화물 중 아동용 자전거 타이어에서 X-Ray 이상 음영을 발견하고 정밀 검색하여 은닉된 마약류 적발
- 은닉수법
 - 메스암페타민 200g을 비닐랩에 싸서 이를 먹지로 감싼 후 둥글게 말아 아동용자전거 타이어 내부 공간에 은닉함



X-Ray 판독 사진



자전거 타이어



은닉되어 있던 마약류

□ 특급우편 이용 태국發 메스암페타민 19.3g 밀수 적발

- 적발일시 : 2009. 7. 8.(수), 09:40경
-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세관검사장
-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19.3g
- 적발경위
 - － 태국 방콕에서 발송되어 TG658편으로 도착된 국제특급우편물에 대한 검사 중 우범성 판별기법에 의거 선별 및 검사중 적발
- 은닉수법
 - － 메스암페타민 19.3g을 지퍼식 비닐봉지에 담고 흑색 접착테이프로 감은 후 곰 인형(길이 약 10cm) 속에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



우편상자 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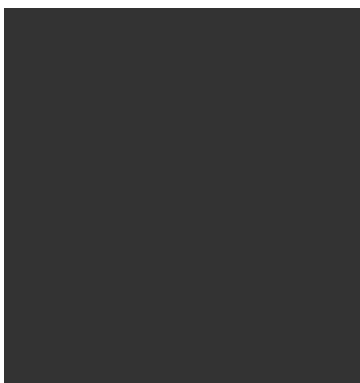
마약이 은닉된 곰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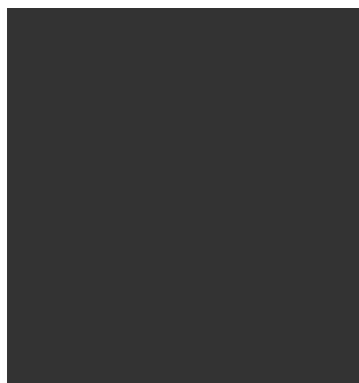
적발된 메스암페타민

□ 보따리상에 의한 중국 위해發 메스암페타민 400g 밀수 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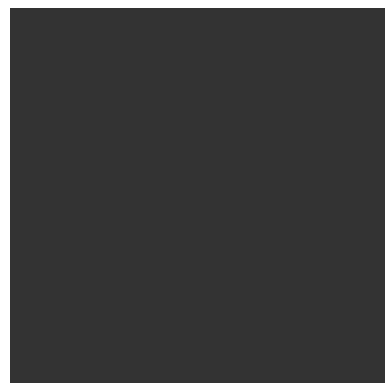
- 적발일시 : 2009. 9.28.(월), 12:40경
- 적발장소 :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
-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400g
- 적발경위
 - － 중국 위해로부터 입항한 NGV2호의 여행자 및 보따리상의 휴대품 X-ray검색 중 보따리상이 대리 반입한 냉동조기 박스에서 이상 음영이 발견되어 개장 정밀검색 결과 메스암페타민 약 90g 적발 하였으며, 다른 보따리상이 대리 반입한 동일한 포장형태의 박스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310g을 추가로 적발
- 은닉수법
 - － 메스암페타민 400g을 플라스틱 파이프 속에 36몽치로 나누어 은닉 후 냉동조기가 들어있는 스티로폼 박스 가장자리에 은닉하여 반입



마약류가 은닉된 박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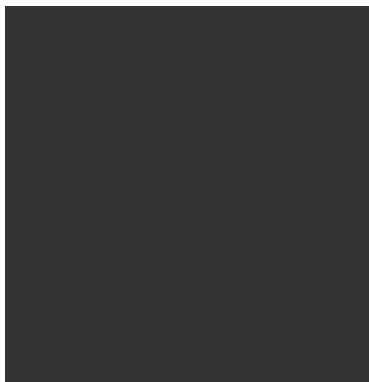
마약류 은닉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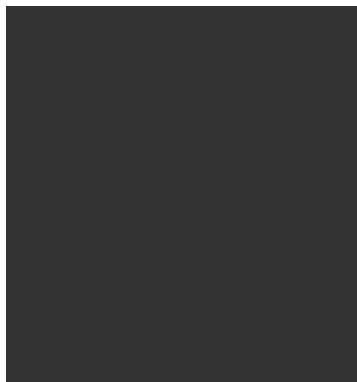
적발된 마약류

□ 위장거래 수사를 통한 메스암페타민 149g 적발

- 적발일시 : 2009.11.10.(화), 16:07경
- 적발장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상인나이트클럽 뒤 노상
-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149g
- 적발경위
 - － 임〇〇가 인천항을 통해 메스암페타민 약 200g을 밀수입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합동수사 개시
 - － 임〇〇가 밀수입한 메스암페타민을 처분하기 위해 거래처를 물색하고 있다는 정보를 추가로 입수하고, 위장거래와 잠복근무 등 은밀히 추적하여 나이트클럽 뒤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거래하는 것을 검거함
- 은닉수법
 - － 보따리상 이용 밀수입. 검거시 메스암페타민 149g을 비닐과 먹지를 이용하여 이중으로 포장



포장된 메스암페타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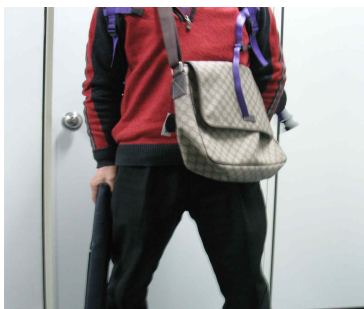
적발된 메스암페타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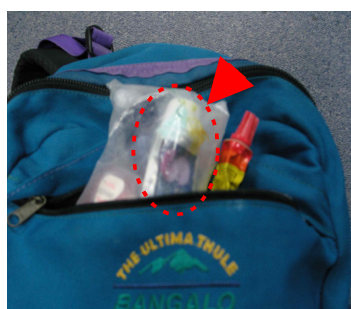
메스암페타민 시약 양성반응

□ 항공여행자에 의한 중국發 메스암페타민 18.75g 밀수입 적발

- 적발일시 : 2009.12.20. 15:50경
- 적발장소 : 인천공항세관 입국검사장
- 범칙물품 : 메스암페타민 18.75g
- 적발경위
 - － 자체정보분석에 의거 중국 심양으로부터 KE832편으로 도착한 상표법 위반전력이 있는 혐의자 김○○을 검사대상자로 지정하여, 휴대품 검사 중 배낭 속에 든 치약 속에 은닉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적발
- 은닉수법
 - － 메스암페타민 18.75g을 투명한 플라스틱 지퍼백에 2겹으로 포장한 후 치약튜브의 하단부를 절개하여 그 내부에 은닉



피의자 모습



마약류 은닉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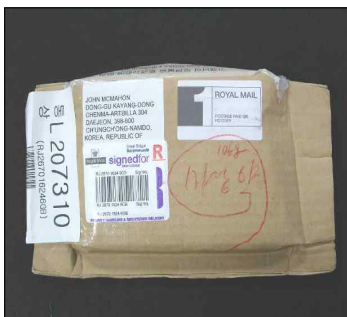


적발된 마약류

나. 기타 향정신성 의약품

□ 국제소포 이용 영국發 벤질피페라진 20정 적발

- 적발일시 : 2009. 1. 8. 10:20경
-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타 세관검사장
- 범칙물품 : 벤질피페라진 20정
 - ※ 2008. 9.27.자로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나목)로 2008.10.28. 최초로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53정을 적발
- 적발경위
 - － 영국을 출발 태국(방콕)을 경유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한 국제등기우편에 대한 X-ray 검색 중 이상음영이 발견되어 개장검사 결과 적발
- 은닉수법
 - － 벤질피페라진 10통(통당 2정입)을 짙은 황색 종이상자에 적입하여 발송



등기우편물 외양



벤질피페라진 10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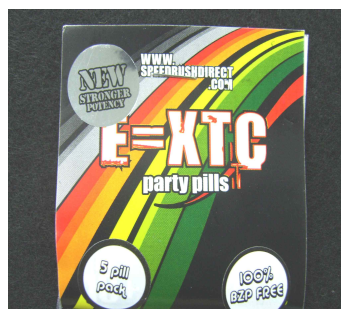
내용물 적출

□ 국제소포 이용 영국發 벤질피페라진 32정 밀수입 적발

- 적발일시 : 2009. 3. 3. 14:40경
-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세관검사장
- 범칙물품 : 벤질피페라진 32정
- 적발경위
 - － 영국을 출발 태국(방콕)을 경유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한 국제등기 우편에 대한 X-ray 검색 중 이상음영이 발견되어 개장검사 결과 적발
- 은닉수법
 - － 벤질피페라진 32정(E=XTC 5정入 6박스, Diablo 2정入 1박스)을 등기 우편봉투에 넣어 발송



우편물 내용물



E=XTC



DIABLO XXX

□ 등기우편 이용 영국發 크라툼 4.84g 밀수입 적발

- 적발일시 : 2009. 3.10. 14:20경
-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세관검사장
- 범칙물품 : 크라툼 4.84g
- 적발경위
 - － 영국으로부터 발송되어 방콕을 경유하여 TG656편으로 도착된 국제 등기 우편물에 대한 X-ray 검색으로 선별하여 개정검사 중 적발
- 은닉수법
 - － 크라툼 4.84g을 지퍼식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다른 2종의 성분미상 물품(건초, 피페라진 추정)과 함께 우편 규격봉투에 적입하여 발송



우편물 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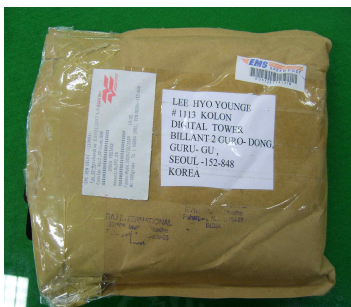
우편물 내용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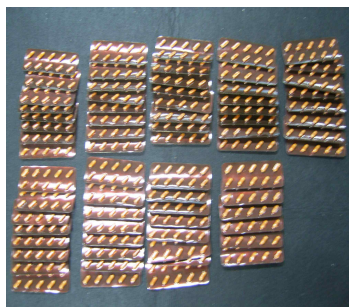
크라툼

□ 특급우편 이용 인도發 졸피뎀 700정 밀수입 적발

- 적발일시 : 2009. 3.23. 10:00경
-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세관검사장
- 범칙물품 : 졸피뎀 700정
 - ※ 졸피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마약류로 우리청에서는 처음으로 적발한 마약류임
- 적발경위
 - － 인도로부터 발송되어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SQ602편으로 도착된 국제특급우편물에 대하여 우범성 판별기법을 활용하여 선별 및 개장검사 결과 적발
- 은닉수법
 - － 졸피뎀 700정을 특별한 은닉수법을 이용치 않고 등기우편물 봉투에 적입하여 발송



특급우편물 봉투



졸피뎀 700정



졸피뎀 정밀사진

□ 특급우편 이용 중국 發 MDMA의 1종 밀수 적발

- 적발일시 : 2009. 4. 7. 22:30경
-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세관검사장
- 범칙물품 : MDMA 300정, 케타민 82.14g
- 적발경위
 - － 중국(북청)으로부터 항공으로 반입된 국제특급우편물에 대하여 우범성 관별기법을 활용하여 선별된 우편물을 개장검사 한 결과 적발
- 은닉수법
 - － MDMA 300정과 케타민 82.14g(26.98g, 27.36g, 27.80g)을 지퍼식 비닐봉지에 넣고 은박지로 재포장하여 차(茶)통 4개 속에 중국차와 혼입하여 은닉한 후 식료품과 함께 특급우편으로 발송



특급우편물 봉투



우편물 내용물



MDMA 및 케타민

다. 항공여행자에 의한 대만 發 케타민 23정의 1 밀수 적발

- 적발일시 : 2009. 4.16. 17:30경
- 적발장소 :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D구역
- 범칙물품 : 케타민 23정 및 분말 4.2g
- 적발경위
 - － 정보에 의거 대만으로부터 BR160편으로 입국하는 혐의자를 검사 대상으로 선별하여 휴대품 검사결과 여행용 배낭 등에 은닉하고 있던 마약류 적발
- 은닉수법
 - － 케타민을 플라스틱 병 5개에 나누어 담은 후 비타민 병 속(분말 형태)과 바지 주머니 및 도장케이스 속(정제형태)에 각각 은닉



여행용 배낭 내용물



케타민



케타민 확대

□ 통상우편 이용 미국發 로라제팜 129정 밀수 적발

- 적발일시 : 2009. 8.19(수) 11:00경
-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세관검사장
- 범칙물품 : 로라제팜(Lorazepam) 129정
 - *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임
- 적발경위
 - － 미국으로부터 KE082편으로 반입된 국제통상우편물에 대하여 우범성 판별기법에 의해 선별한 우편물의 개장검사 결과 적발
- 은닉수법
 - － 로라제팜 129정을 투명비닐 랩과 은박지로 포장한 후 노란색 종이 사이에 넣고, 이를 500불 외화수표 1장과 함께 우편엽서에 끼워 생일 카드와 함께 우편규격봉투에 적입하여 발송



우편물 및 내용물



로라제팜 은닉모습



로라제팜 모습

□ 통상우편 이용 인도發 졸피뎀 510정 밀수 적발

- 적발일시 : 2009. 8. 1~8.19
-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세관검사장
- 범칙물품 : 졸피뎀 510정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시행령 별표 6-60호)으로 수면유도제로 처방되며 졸음, 두통, 현기증, 환각 등의 이상반응을 유발함
- 적발경위
 - － 인도로부터 반입된 국제통상우편물 중 동일 발송인이 국내 여러 수취인에게 반복적으로 발송한 우편물을 선별하여 검사한 결과 적발
- 은닉수법
 - － 제품 포장된 졸피뎀 등을 청색먹지로 감싼 후, 발송인의 회사명이 찍힌 직사각형 모양의 주황색 봉투에 넣어 발송



적발된 통상우편 8통



우편봉투 및 내용물



졸피뎀 은닉사진

□ 특급우편 이용 인도發 알프라졸람 50정 밀수 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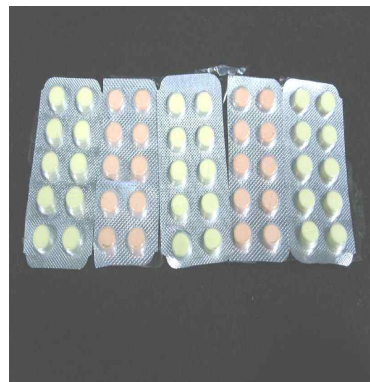
- 적발일시 : 2009. 9. 8.(화), 14:30경
-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세관우편검사장
- 범칙물품 : 알프라졸람(Alprazolam) 50정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시행령 별표 6-1호)으로 진정, 수면 장애 완화, 항경련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장기 복용시 신체적 의존성 유발
- 적발경위
 - － 인도(텔리)로부터 반입된 국제등기우편물에 대한 X-ray 검색 중 이상 음영이 포착되어 검사대상으로 선별 후 개장검사 결과 적발
- 은닉수법
 - － 알프라졸람을 우편물상자 옆면에 스카치테이프로 고정하고 이를 노란색 종이로 포장하여 발송(동 우편물상자내에 성분미상의 의약품 472정과 여러 장의 사진 및 CD가 동봉됨)



알프라졸람 은닉모습



포장상자 및 미상의 의약품



알프라졸람 상세모습

□ 통상우편 이용 영국發 JWH-018(합성대마) 38.4g 밀수 적발

- 적발일시 : 2009. 9.24.(목), 14:30경
-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 범칙물품 : 제이더블유에이취 - 018(JWH - 018) 38.4g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시행령 별표 3-34호)으로 2009. 7. 1. 신규 마약류로 지정되었으며, 메스암페타민과 같은 목적으로 분류됨
 - * JWH - 018은 대마 성분인 THC를 허브 등에 주입하여 생성한 화학 물질로 독일 제약회사 등지에서 진통제로 연구되고 있음
- 적발경위
 - － 영국에서 TG656편으로 각각 도착된 국제통상우편물에 대하여 우범성 판별 기법에 의거 선별하여 정밀검사한 결과 적발(3건)
- 은닉수법
 - － 너구리 모양의 그림과 함께 'SKUNK'라는 상표가 기재된 지퍼백 속에 적갈색 씨앗모양과 분말이 혼재 되어있는 상태로 합성대마를 적입하고 밀봉 포장하여 우편규격봉투로 발송



우편물 및 내용물



합성대마 포장지퍼백



합성대마 상세모습

□ 특급우편 이용 태국發 야바(YABA) 160정 밀수 적발

- 적발일시 : 2009.10.16.(금), 10:00경
-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세관검사장
- 범칙물품 : 야바(Yaba) 160정
 - * 최근 국내 태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신종 마약류(향정)인 YABA 투약 및 밀거래 사범이 단속기관에 의해 지속 검거되고 있으며, 국내 단속기관의 활동결과를 볼 때, 안산·(전남)광주·대구 등 산업공단이 소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 및 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YABA는 태국·미얀마 등 동남아에서 생산되어 주로 중국 등지로 밀수되고 있고 藥名은 「Crazy Drug」이란 의미이며 성분은 메스암페타민(30%)·카페인(60%)·코데인(10%)임
- 적발경위
 - － 태국 방콕發 TG658편으로 반입된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한 X-ray 검색 중 이상음영이 포착되어 개장하여 정밀검사 결과 적발
- 은닉수법
 - － KRONG THIP상표의 태국산 담배 1보루 중 1갑 속에 야바를 10정씩 담배개피 10개에 은닉하고 한국영화 CD 2개, 의약품 1병과 함께 우편물 규격상자에 적입하여 발송



특급우편 내용물



담배갑 속의 야바



적발된 야바 모습

□ 국제통상우편 이용 미국發 트리플루로메틸페닐피페라진(TFMPP) 6봉 밀수 적발

- 적발일시 : 2009.11. .7(토), 16:00경
-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세관우편검사장
- 범칙물품 : TFMPP 6봉(1봉당 약0.4g)
 - * 트리플루로메틸페닐피페라진, 2009. 7. 식약청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등록된 신종마약으로, 주로 마약류인 벤젤피페라진(BZP)과 함께 복용하여 그 효과를 높이는데 사용되며, 복용시 환각 효과가 있음
- 적발경위
 - － 미국 뉴욕發 KE086편으로 반입된 국제통상우편물에 대하여 X-ray 검색 후 검사대상우편물로 선별하고 개장하여 적발
- 은닉수법
 - － 분말형태의 트리플루로메틸페닐피페라진이 든 비닐봉지 6봉을 각각 종이케이스(상표명: VECTOR)로 개별 포장하여 우편물포장용 종이 상자에 담아 국제우편봉투에 적입하여 반입



우편봉투 및 내용물



포장지 및 분말 형태의 내용물



TFMPP 함유 분말 상세 모습

3. 대 마

가. 대마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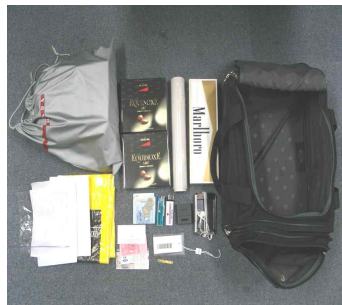
□ 통상우편 이용 미국發 대마초 49g 적발

- 적발일시 : 2009. 1.16. 09:55경
-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세관검사장
- 범칙물품 : 대마초 49g
- 적발경위
 - － 미국으로부터 도착된 국제통상우편물에 대한 X-ray 판독 검색 중 이상음영이 포착되어 검사대상으로 선별하여 정밀검색 결과 적발
- 은닉수법
 - － 대마초를 수 그램씩을 투명한 플라스틱 백에 분산 포장한 후 봉지 2개로 진공 포장하여 잡지책의 가운데 부분에 홈을 파고 은닉



□ 동태관찰로 네덜란드 發 여행자에 의한 대마초 948g 등 적발

- 적발일시 : 2009. 1.17. 16:20경
- 적발장소 :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입국장 A구역
- 범칙물품 : 대마초 948.72g, 대마수지 12.53g
- 적발경위
 -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發 KE926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입국한 여행자에 대한 동태관찰 중 행동이 부자연스런 피의자를 발견하고, 핸드캐리 가방을 X-ray검색기에 통과토록 안내
 - － 동 핸드캐리가방에 대한 X-ray 판독에서 이상음영이 판독되어 정밀 개정검사 결과 대마초 등 마약류를 적발
- 은닉수법
 - － 대마초와 대마수지를 17개로 나누어 비닐 지퍼백에 넣고 비닐랩으로 감싼 다음 황색 접착테이프로 재차 포장한 후, 비닐주머니에 담아 초콜릿 등 개인 신변용품과 함께 어깨에 매는 여행용 가방 속에 넣어 은닉



□ 일본發 한국경유 환승여행자에 의한 대마초 10.85g 밀수입 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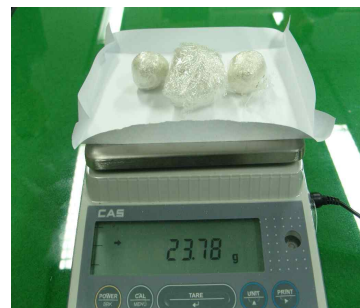
- 적발일시 : 2009. 3.24. 17:30경
- 적발장소 : 인천국제공항 4번 환승장
- 범칙물품 : 대마초 10.85g
- 적발경위
 - － 2009. 3.24. 17:03경 일본 나리타發 KE704편으로 입항하여 베트남(호치민)으로 환승하기 위해 환승장을 통과하는 여행자에 대한 보안검색중 혐의자의 바지지퍼 윗부분이 볼록한 것을 의심하여 정밀검색실에서 검색결과 마약류 적발
- 은닉수법
 - － 대마초를 각각 4.84g, 2.59g, 3.42g으로 3뭉치로 나누어 비닐랩으로 겹겹이 포장한 다음 착용하고 있던 팬티 속에 넣어 은닉



신체은닉 모습



랩으로 싸인 대마초



대마초 계근

□ 통상우편 이용 브라질궤 대마초 2.65g 밀수입 적발

- 적발일시 : 2009. 3.30. 11:00경
-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세관검사장
- 범칙물품 : 대마초 2.65g
- 적발경위
 - － 브라질로부터 독일을 경유하여 도착된 국제통상우편물에 대한 탐지전 검색 중 마약 양성반응에 따라 정밀검색 결과 적발
- 은닉수법
 - － 대마초 2.65gram을 비닐랩으로 포장하여 초콜릿 봉지(상표명 : Gardner) 속에 넣어 은닉한 후 통상 우편봉투 속에 적입하여 발송



통상우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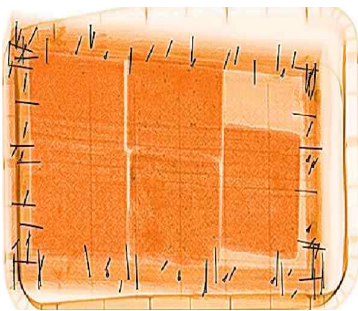
우편물 내용물



은닉된 대마초

□ 항공여행자에 의한 남아공 發 대마초 10kg 밀수 적발

- 적발일시 : 2009. 5. 2.(토), 20:30경
- 적발장소 : 인천국제공항 마약조사과 사무실
- 범칙물품 : 대마초 10kg
- 적발경위
 - － 정보분석에 의거 남아공을 출발 카타르(도하)와 일본(오사카)을 경유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한 QR820편 탑승자 중 남아공 국적의 피의자를 마약밀수우범 검사대상자로 APIS지정하여 휴대품 정밀 검색 결과 목제 조각품 내부에 은닉된 마약류 적발
- 은닉수법
 - － 대마초 10kg을 약 1kg씩 투명한 플라스틱 랩으로 감아서 사각형 모양의 블록 형태로 포장한 후, 목제 조각품 내부에 은닉



기탁화물 X-RAY 판독
영상



나무 조각품



내부에 은닉된 대마초

□ 항공여행자에 의한 프랑스 發 대마초 239g 밀수 적발

- 적발일시 : 2009. 6.13.(토), 16:30경
- 적발장소 :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과 사무실
- 범칙물품 : 대마초 239g
- 적발경위
 - － 정보에 의거 프랑스(파리)로부터 KE902편으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혐의자에 대하여 휴대품 및 신변검색을 통하여 사타구니 부분에 은닉하고 있던 마약류 적발
- 은닉수법
 - － 압축포장한 대마초 2뭉치(185.31g, 53.73g)를 양말 속에 1뭉치씩 넣어 3겹으로 입은 속바지에 은닉



신변수색하는 모습



마약류가 은닉된 양말



적발한 대마초

□ 항공여객에 의한 남아공發 대마초 6kg 밀수 적발

- 적발일시 : 2009. 7. 9.(목), 21:50경
- 적발장소 : 인천국제공항 세관입국검사장
- 범칙물품 : 대마초 6kg
- 적발경위
 - － 남아공을 출발하여 카타르(도하) 및 일본(오사카)을 경유하여 QR820편으로 입국한 남아공 국적의 피의자를 도착 전에 검사대상자로 APIS지정하여 피의자 기탁수하물에 대하여 X-ray 검색결과 이상 음영이 판독되어 Red Seal을 부착하였으며, 마약조사과와 휴대품 검사과 합동검색 결과 플라스틱 시트로 포장하여 가방 밑바닥 부분에 은닉된 마약류 적발
- 은닉수법
 - － 대마초 6kg을 1kg씩 압착하여 투명한 비닐로 포장한 후 불투명한 황색 테이프로 감아 가방의 바닥(false bottom)에 은닉하여 밀반입



기탁화물 X-Ray 판독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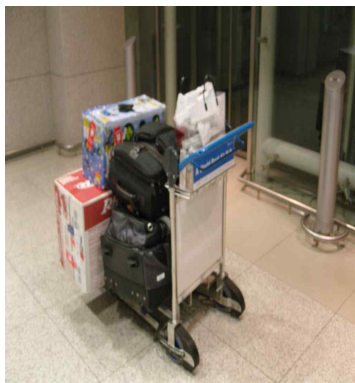
여행가방 이중바닥



적발한 마약류

□ 항공여객에 의한 미국 LA發 대마초 30.43g 밀수 적발

- 적발일시 : 2009. 9.16.(수), 18:05경
- 적발장소 : 인천공항세관 세관입국검사장
- 범칙물품 : 대마초 30.43g
- 적발경위
 - － 정보에 의거 미국 LA로부터 OZ201편으로 도착한 마약밀수 혐의자를 검사대상자로 지정하고, 휴대품 및 신변 검사결과 여행용 가방에 든 수첩 속에 은닉된 대마초 적발
- 은닉수법
 - － 켈런지 25개피로 말아서 2개로 진공포장한 대마초 총 30.43g을 수첩 및 의류(주머니)에 넣은 다음 여행용가방 아랫부분에 은닉하고 각종 의류, 잡화 등과 함께 적입하여 밀반입



혐의자의 휴대품



대마초 은닉모습



적발된 대마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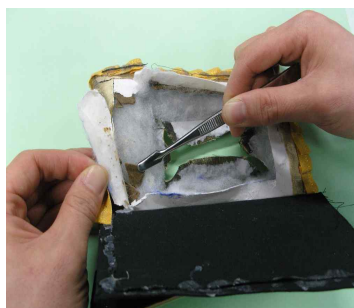
나. 대마수지

□ 통상우편 이용 스페인발 대마수지 4.94g 적발

- 적발일시 : 2009. 2.15. 12:11경
-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세관검사장
- 범칙물품 : 대마수지 4.94g
- 적발경위
 - － 스페인으로부터 루프트한자(LH)712편으로 도착된 국제통상우편물에 대한 탐지견 검색 중 탐지견의 양성반응에 따라 개장검사 결과 적발
- 은닉수법
 - － 대마수지 4.94g을 소형 사진액자틀 바닥면과 윗부분 사이의 테두리 3곳에 은닉 후 접착제로 접착하여 규격우편봉투에 넣어 발송



해쉬쉬가 은닉된 사진액자



해쉬쉬 적출



액자에서 적출한 모습

□ 두바이發 항공여행자에 의한 대마수지 24.19g 밀수입 적발

- 적발일시 : 2009. 3. 2. 16:45경
- 적발장소 : 인천국제공항 입국검사장 C구역
- 범칙물품 : 대마수지 24.19g
- 적발경위
 - － 두바이로부터 EK322편으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선별검사 중 검사대상자로 지정된 피의자의 휴대품에 대한 X-ray검색 및 개장 검사결과 적발
- 은닉수법
 - － 대마수지 24.19g을 홍차봉지 속에 은닉하여 스포츠 가방에 다른 식료품 등과 함께 담아서 휴대반입함



피의자 전면모습



휴대한 스포츠 가방



은닉된 대마수지

□ 국제통상우편 이용 프랑스 發 대마수지 3.81g 밀수 적발

- 적발일시 : 2009. 6. 6.(토), 11:10경
-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세관검사장
- 범칙물품 : 대마수지 3.81g
- 적발경위
 - － 프랑스로부터 AF264편으로 반입된 국제통상우편물에 대한 탐지견 검색 중 탐지견의 마약 양성반응에 따라 개장 검사한 결과 적발
- 은닉수법
 - － 대마수지 3.81g을 은박지로 포장하여 사각형 종이사이에 끼워 선물 포장용 봉투와 편지봉투에 넣은 후, 이를 다시 규격 편지봉투 속에 넣어 발송함



우편물 및 내용물



은닉된 상태



적발한 대마수지

□ 국제우편소포 이용 미국 發 대마쿠키 1,497g 밀수 적발

- 적발일시 : 2009. 6.16.(화), 11:20경
-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세관검사장
- 범칙물품 : 대마쿠키 1,497g
- 적발경위
 - － 미국으로부터 UA881편으로 반입된 국제소포우편물에 대하여 우범성 판별기법에 의한 선별 및 개장검사 결과 적발
- 은닉수법
 - － 대마쿠키 60개(1,497g, 개당 13.61g~29.20g)을 투명한 원통형 플라스틱 용기 및 비닐 지퍼백에 나누어 넣은 후 우편소포로 발송



우편소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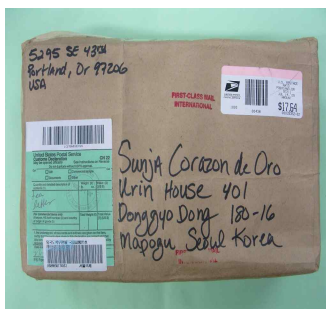
소포 내용물



적발한 대마쿠키

□ 국제통상우편 이용 미국발 대마케이크 등 밀수 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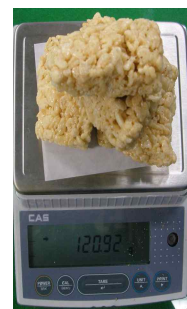
- 적발일시 : 2009. 7.22.(수), 16:00경
-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세관검사장
- 범칙물품 : 대마케이크 188g 및 대마강정 121g
- 적발경위
 - 미국으로부터 OZ283편으로 반입된 국제통상우편물에 대한 탐지견 검색 중 탐지견의 마약 양성반응에 따라 개장 검사한 결과 적발
- 은닉수법
 - 대마강정과 대마 케이크를 각각 은박지로 포장하여 시리얼 상자 속에 은닉한 후, 여러 종류의 차(茶)와 함께 적입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함



통상우편물 외양



대마초 은닉사진



적발된 마약류 계량모습



4. 원료물질

□ 소포우편 이용 중국 發 슈도에페드린 673g 밀수 적발

- 적발일시 : 2009. 4.29. 20:30경
- 적발장소 : 인천공항국제우편센터 세관검사장
- 범칙물품 : 슈도에페드린 673g
- 적발경위
 - － 중국(북청)으로부터 8Y207편으로 반입된 국제소포우편물에 대한 X-ray 검색 중 이상음영이 포착되어 개장검사한 결과 적발
- 은닉수법
 - － 슈도에페드린 673g을 중국산 茶(관음왕) 4봉지 속에 나누어 넣어서 은닉하여 의류, 식료품 등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



우편소포 내용물



중국산 차



적발된 슈도에페드린

□ 마약류 원료물질 무수초산 11.64톤 밀수출 적발

- 적발일시 : 2009. 8.17.(월) 18:47경
- 적발장소 : 인천항 대한통운 CFS 작업장
- 범칙물품 : 무수초산 약 11.64톤
- 적발경위
 - － 동두천 소재 직물업체가 국내거주 서남아 마약조직과 공모하여 마약류 제조 원료물질인 무수초산을 국내에서 확보하여 서남아지역으로 밀수출하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동 혐의업체의 비밀창고 반입, 포장·컨테이너 적입 작업, 인천항으로의 보세운송 등 일련의 작업을 3개월여를 잠복 감시·추적한 결과 2009. 8.17. 무수초산을 “편직물”로 위장신고하여 “Xiang Tai”호에 선적하여 밀수출하려던 것을 현장에서 선적 직전에 적발하고 관련자 혐의자들을 체포
 - ※ 밀수출 경로 : 인천항 ⇒ Ningbo(중국) ⇒ Bandar Abbas(이란) ⇒ Kabul(아프가니스탄)
- 은닉수법
 - － 무수초산 약 11.6톤을 소형 투명 플라스틱 용기 532개에 나누어 포장하여 2개씩 수출용 박스로 재포장한 다음 마대포대에 넣은 후, 컨테이너(40피트) 안쪽 및 하단에는 무수초산 박스를 적재하고 그 위에 직물(닝마)포대를 쌓아 은닉하여 밀수출하려고 기도



2009. 7.12. 비밀창고 앞 무수초산 드럼통



2009. 7.17. 비밀창고 내 소분작업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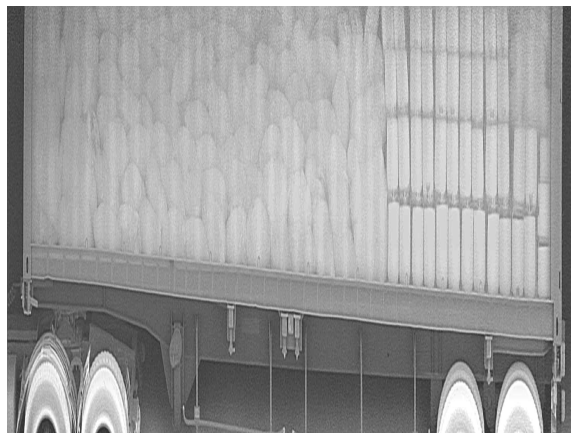
2009. 8.13. 컨테이너 적입장면



2009. 8.14. 인천항 CY 컨테이너 진입



2009. 8.17. 컨테이너에 적재된 무수초산



2009. 8.17. 컨테이너 내장 X-Ray 사진

V. 마약관련 국제활동

V. 마약관련 국제활동

1. 제32차 아·태지역 마약법집행 기관장회의(HONLEA) 참석

가. 개 요

(1) 회의주관, 기간 및 장소

- ① 주관 :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s(UNODC)
- ② 기간 : 2009. 2.10(화)~2.13(금)
- ③ 장소 : 방콕 UN Conference Centre Room 3

(2) 참석대상

- ① UN 경제사회이사회 아·태지역 회원국 26개국
- ②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등 참관국 4개국 및 홍콩 및 마카오 등 2개 행정자치지역
- ③ 아세안(ASEAN),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E), 세계관세기구(WCO) 등 7개 국제기구

(3) 의장단

- ① 의장 : 태국(Mr. Chartchai Suthiklom)
- ② 제 1 부의장 : 필리핀(Mr. Baltazar Balangauan)
- ③ 제 2 부의장 : 스리랑카(Mr. Karunadasa Gamage)
- ④ 서기 : 인도네시아(Ms. Meinarwati Nawar)

나. 회의 의제

- (1) 의장단 선출
- (2) 의제 채택
- (3) 지역내 마약류 밀거래 현황 및 단속활동
- (4) 제30차 HONLEA 권고사항 이행상황
- (5) 제20차 특별총회 회기안 검토
- (6) 워킹그룹 논의사항
 - (가) 헤로인 밀거래 신경향
 - (나) 범죄수익몰수
 - (다) 원료물질 및 ATS 제조에 미치는 영향
- (7) 제33 HONLEA 회의조직
- (8) 기타
- (9) 보고서 채택

※ UNODC 아·태지부장 개회사(Mr. Gary Lewis)

- 아태지역의 최근 마약류 밀거래 현황 및 이에 대한 UNODC 역할 소개
- 안보, 복지 및 개발에 있어 새로운 위협요소인 마약류에 대한 대처 방향 모색 강조
- 마약류 단속을 위한 국제적 노력 및 성과 소개

다. 주요 회의 내용

- (1) 지역내 마약류 밀거래 현황 및 단속활동
 - ① 지난 2년 간 아프가니스탄의 아편생산 증가와 더불어 ATS, 메스암페

타민 생산량이 증가함. 불법 마약류의 압축가공 기술은 단속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향정물질 성분을 포함한 일반의약품의 인터넷 밀거래 및 단속을 피하기 위한 우편 또는 운반인을 이용한 소량의 헤로인, 해쉬쉬, 의약품 밀거래 급증함. 또한 서아프리카 조직의 헤로인, 코카인 밀거래가 급증함으로써 아프리카가 지역이 마약류 공급지로 부상하고 있음

- 각국의 단속기관 간 통제배달, 정보공유 및 양해각서 체결 등 다각적인 국제공조 강화 강조

(2) 제30차 HONLEA회의 권고사항 이행상황

- ① 당시 채택된 권고사항은 신속한 정보교환, 공조착수 및 공조 지원 법규에 있어 전문화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노력 강화, 서아프리카 마약조직 등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 및 국내외 유관 기관의 지문감정 기법 개발, 분석결과 공유 등에 관한 것임
- 과거 마약류 생산국에서 소비국 내지 경유국으로 전환되고 있는 한국은 대부분의 마약류가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주변국에서 밀수 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제 마약조직과 연계된 국내 공급책 및 단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수사는 마약류 공급 및 수요감축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 마약류 생산국 또는 공급국가의 정보를 바탕으로 마약류 및 밀수 조직 등 공급선의 원천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아세안 회원국 대상의 마약류 통제 지원프로그램(일명, 아세안프로젝트)을 2007년 라오스, 2008년 캄보디아, 베트남, 2009년 필리핀 관계당국과 실시해오고 있음
- 최근 한국이 서남아시아 밀수조직의 헤로인 원료물질(무수초산) 밀수출 경유지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정보교환 및 불법거래 단속을 위하여 미국 마약청의 정보공유 프로그램(CDI), UNODC의 합성마약감시프로그램(SMART Program), 일본 후생성의 정보공유프로그램인 ISS 참여 등 공조를 모색하고 있음.

(3) Working Group 논의사항

(가) 헤로인 밀거래 경향

- ① 최근 황금의 삼각지역의 아편생산 감소로 헤로인 중독자 수는 감소한

반면, ATS 남용자수는 증가추세임. 공항만,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발달은 마약류 밀수의 다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서아프리카 조직은 황금의 삼각지역 및 초생달 지역의 헤로인 밀거래 뿐 아니라 남미지역의 코카인 밀거래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음

- 이에 각국 정부는 대체작물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요구되며, 지역 및 국제공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체제의 통일된 정비와 단속기관의 능력증대를 필요로 함
- 파키스탄 정부는 헤로인 원료물질인 무수초산 밀수조직 단속과 관련, 한국과의 공조수사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이에 대검찰청 마약과장은 동 공조사건을 통하여 무수초산 50톤 및 관련 피의자 8명 구속 및 아랍에미레이트(UAE) 정부와 범죄인 인도 수행 등 성공적 사례를 통해 국제공조의 중요성 및 향후 대응방안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함. 다만 한국측 공조수사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이들의 무수초산 헤로인 불법제조 전용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아닌 관세법위반 사범으로 기소한 것은 아쉬우나 이 부분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공조가 요구됨을 거듭 강조함

(나) 범죄수익 환수

- ① 마약조직을 효율적으로 척결하기 위하여 이들 조직의 마약류 범죄를 통한 불법 수익 환수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자금세탁 범죄를 다루는 종합적인 입법화가 요구됨
- 금융분야 및 비금융분야는 불법자산의 투자, 부동산 및 증권시장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자금세탁 단속규정의 정비가 요구되며, 또한 단속기관의 마약조직의 불법자금에 대한 추적수사를 원활하게 하는 강력한 조항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다) 원료물질 단속과 ATS(암페타민류 각성제) 제조에 미치는 영향

- ① ATS 남용 및 생산지역의 변화는 동 마약류의 생산, 밀거래 및 남용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의 분석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특히 메스암페타민의 대규모 생산 및 남용은 여전히 지역내 문제점으로 제기됨

- ② 현 ATS 밀거래 및 남용 등의 신경향, 단속 등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공유가 요구됨
- ③ 사전수출통지제도(PEN)는 통제 원료물질의 합법성 및 이들의 물류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절차임
- ④ 마약류 형태, 화학성분 및 마약지문 등 과학수사기법은 ATS 생산 및 압수와 관련한 수사에 있어 중요한 성공요소임
 - ATS 불법제조 및 밀거래 예방전략 수립을 위해 국내수요, 남용 및 공급지에 대한 각국의 정확한 분석이 요구되며, 또한 ATS 밀수경로, 공급지 파악을 위한 과학수사 능력이 요구됨. 원료물질 불법전용 단속(무수초산 및 과망간산칼륨 단속, Project Cohesion 및 Project Prism)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공조 실시
 - 대검찰청 마약과장은 2008년 국내 헤로인 압수사례가 없으며, 이는 헤로인이 한국내 주요 남용 마약류가 아닌 점을 들어 무수초산이 불법전용 및 일반산업 목적의 이중적 상황을 제기하면서, INCB(국제 마약통제위) 또한 각국의 강제적 단속 보다는 관련 산업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산업보호 위주의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원료물질의 제조, 공급 및 수출입에 대한 단속에 있어 한계가 있지만 국제적 권고 및 협약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인 단속을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함

2. 제14차 아·태지역 마약단속회의(ADEC) 참석

가. 회의개요

- (1) 회의명 : 제14차 아·태지역 마약단속회의
(ADEC : Asia-Pacific Operational Drug Enforcement Conference)
- (2) 참석자
 - 26개국·2개 국제기구에서 마약관계관 120여명 참가
- (3) 주관기관 : 일본 경찰청

(4) 회의기간 : 2009. 2.17.(화)~2.20.(금), 4일간

(5) 회의성격

- 1995년부터 주로 일본에서 매년 2월경 개최되는 마약 관련 국제회의로 아·태지역 21개국, 인터폴, UN 등 국제기구의 마약류 단속 실무책임자들이 참석

(6) 회의목적

- 마약류 근절 대책과 수사 기법 소개
- 지역 내 국제마약류 밀수 퇴치 현황 공유
- 각국의 국제공조 사례 발표

나. 주요 회의내용

(1) 일본 경찰청 조직범죄대책부장의 개회사 및 기조 연설

ADEC 회의가 1995년 이후 마약동향 및 국제마약 밀매조직에 대한 정보교환,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을 상기시키면서, 올해 ADEC의 목표를 두가지 부문, 즉 전 세계적 마약 밀매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와 정보교류 측면과 마약류 문제에 관한 국제공조의 중요성 인식측면으로 나누어 설명

(가) 전 세계적 마약 밀매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교류 측면

최근 마약류는 어느 특정지역에서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종류의 마약 밀거래가 행해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아시아와 서아프리카 범죄조직이 마약 밀거래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나) 변함없는 국제공조의 중요성 측면

마약의 조사기법과 대책을 진일보(進一步)시키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마약단속기관간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상호 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2) 세계 각국의 최신 마약동향 입수

- 회의에 참가한 26개국, 2개 국제기구 대표단이 발표하거나 제출한 최신 마약동향자료를 입수하고, 각국의 마약류 현황 관련 수사기관의 마약류 문제에 대한 의견 등을 청취
- 세계 각국은 서아프리카(특히 나이지리아, 베냉 등) 마약류 밀거래 조직에 의한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으며 그 조직을 주시하고 있음
-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국가들은 케타민 남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의 적발량이 급격히 증가

3. 제52차 유엔 마약위원회(CND) 참석

가. 회의 개요

- (1) 일시·장소 : 2009. 3.16.(월)~3.20.(금), 오스트리아 UN비엔나사무소
- (2) 참석 인원 : 130개 회원국/16개 국제기구/66개 민간단체(NGO) 등 총 약 1천4백여명 참석
- (3) 주요의제
 - ① 제20차 UN 마약특별총회(1998) 정치선언 및 행동계획 이행 사항 보고 및 평가
 - ② 인터넷 밀거래 등 효율적 마약통제를 위한 정보 수집
 - ③ 불법 마약 공급 및 수요 감축
 - ④ 회원국 및 지역그룹의 결의안 논의 및 채택 등

나. 회의 구성 및 내용

- ① 제52차 유엔마약위원회(CND) 및 고위급회의(High-level segment, 일반토의 및 주제별 토론)로 구성
- ② 세계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한 1998년 유엔 특별총회의 정치선언 및 행동계획 수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각국의 이행사항 및 실효성을 평가
- ③ 그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전히 인류의 건강과 안보를 위협하는 마약류 문제의 대응을 위한 해결과제를 논의하고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정치선언 및 행동계획을 고위급회의에서 채택함

(1) 제52차 유엔마약위원회(CND) 개회(3.11.)

(가) 임원선출

- ① 제52차 유엔마약위원회 의장 : Selma Ahipala-Musavyi 나미비아 대사
- ② 고위급 회의 일반토의 의장 : Liberta Amathila 나미비아 부총리
- ③ 고위급 회의 주제별 토의(라운드 테이블) 의장
 - (a) 세계 마약 문제 신경향 및 평가시스템 개선
 - ☞ Audrone Astrauskiene 리투아니아 마약통제부 청장
 - (b) 책임공유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 ☞ Ali Asghar Soltanieh 이란대사
 - (c) 수요감축, 치료 및 예방정책
 - ☞ Peter Dunne 뉴질랜드 국제청장
 - (d) 불법 밀거래 및 공급 차단, 대체작물 프로그램 개발
 - ☞ Eduadro Medina Mora 멕시코 대사

(나) 의제채택

- ① 인터넷 밀거래 등 효율적 마약통제를 위한 정보 수집
- ② 제20차 UN특별총회(1998) 정치선언 및 행동계획 이행사항 보고 및 평가
- ③ 불법 마약 공급 및 수요 감축 등

다. 국제기구 및 주요국 대표 발언

(1) 고위급 회의(일반토의, General Debate, 3.11.~12.)

- ① 참석 회원국들은 20차 특별총회에서 채택된 정치선언 및 행동계획에 대한 각국의 이행사항 및 성과, 실패사례에 대한 경험을 발표하고 향후 10년을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과제(정치선언 및 행동계획)를 제시함

(가) 주요인사 발언 요지

① Antonio Costa UNODC 사무총장

- 마약류 공급 및 수요 감축과 관련, 아편 및 코카인 주요 재배지역인 황금의 삼각지역과 남미 안데스 지역의 개발과 안정에 기인한 마약작물 재배 감소가 눈에 띄나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불법시장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면서 생산 지역에 대한 국가 감시망 구축과 개발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유엔특별총회(1998)는 최근 세계 마약류 남용의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나, 향후 마약류 남용자에 대한 관점을 범죄자가 아닌 환자적 측면에서 접근함과 동시에 예방, 치료 및 폐해 감소(harm reduction)⁷⁾를 위한 새로운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함
- 세계 마약시장은 약 3,00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GNP 규모 20위 국가 스웨덴에 이어 21위 규모로 생산국 및 경유국의 빈곤, 실업, 에이즈 등 질병 뿐 아니라 안보와 개발의 저해요소임을 지적하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단속이 오히려 인권침해 및 범죄자 양산 등 마약남용의 해악 그 자체보다 심각할 수 있음을 언급, 사회적 질병 치유 노력의 일환으로서 마약류 남용자의 非범죄화 및 마약남용 자체의 非합법화를 추구해 나갈 것을 권고함
- 또한, 마약류 단속은 국제 마약통제협약 및 지역간 공조협력 시스템을 도구로 활용한 통합적(Integrated) 접근이 필요하며, 마약류 불법거래 및 남용에 취약한 사회 계층에 대한 사회 재통합정책과 병행하는 단속 활동을 통해 이들을 법의 울타리 내부로 포용하는 등 단순한 마약억제

7) 공급차단 위주의 마약통제정책에서 마약 중독자를 범죄자가 아닌 환자로 다루면서 예방, 치료 등 수요감축에 관심을 갖는 접근 방법

(containment)를 넘어서는,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 등을 통한 수요감축 및 취약계층의 사회 재통합정책 등의 프로그램 개발과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자원(funding)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호소함.

② Hamid Ghodse, INCB(국제마약통제위원회) 의장

- 유엔의 특별총회 이후 각국의 효율적 마약통제 노력이 증가되었으나, 동남아시아 지역의 아편재배 감소를 제외하고는 전세계 불법 마약작물의 재배,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남용, 통제물질이 함유된 일반의약품의 불법거래 및 아프가니스탄의 마약 통제 상황이 악화되는 등 여전히 문제가 존재함
- 마약류 남용 현황 등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선행되지 않는 한 마약류 수요감축 노력은 무의미하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약남용 예방 프로그램 수립 및 정보분석 능력향상을 위한 정부의 중재가 필요함
- 마약류의 완전한 근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코 국제마약통제 조약의 지침 또는 권고기준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되며, 국제마약류통제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에 있어 마약류 단속과 함께 인권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언급함

(나) 지역그룹 및 국가별 발언요지

① 지역그룹 대표 발언

- Group of 77 and China는 새롭게 채택될 정치선언 및 행동계획에 대한 지지를 표하고, 효율적 이행을 위한 UNODC, INCB 등 국제기구의 역할 및 지역 및 국가간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아프리카그룹은 지역내 마약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제공조를 통한 기술 및 재정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UNODC의 역할을 기대함
- 아시아그룹은 태국,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불법 아편 재배 감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대체작물 프로그램 개발의 성공 사례를 소개 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의 아편생산 및 거래가 여전히 주변국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중앙아시아 지역의 공조협력체제(CARICC)의 역할 및 성과를 소개함

- EU는 마약관련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분석 및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마약류 통제 정책의 수립의 중요성 및 ‘마약류 폐해 감소(harm reduction)’ 측면의 접근 필요성을 역설함

② 국가별 고위급 대표 발언

- Evo Morales 볼리비아 대통령은 1961년 마약류 단일협약에서 코카인 사용을 금지한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지적, 코카인은 중독성이 없고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볼리비아의 전통으로 인정, 코카인 사용의 합법화와 유엔 마약협약의 개정을 주장함
- Silvia 스웨덴 여왕은 마약통제정책에서 간과되기 쉬운 사회 취약 계층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할 될 수 있는 통로이며, 마약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NGO)와의 협력이 마약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언급함
- 러시아, 이란 등은 아프가니스탄의 대마, 아편 재배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처의 필요성과 현재 대응방식에 대한 반성 및 국제안보유지군(International Security Force)의 강화를 주장하였음
- 뉴질랜드는 마약투여시 주사제 공용을 지양하는 (Needle Exchange Program)프로그램을 통해 마약남용자 그룹내 HIV/AIDS 발생률을 낮추는 등 마약류 사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홍보함.
- 영국 또한 동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정치적 선언에 ‘마약류 폐해 감소(harm reduction)’ 개념이 빠진 것에 유감을 표명함.
- 우리대표(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는 지난 10년간 합성마약 분야 공급 차단 노력, 마약류 남용자 치료·재활, 예방 교육 및 NGO와의 협력 등 수요감축 측면의 노력, 마약 사범의 사회 재통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합성마약 감시 및 퇴치를 위한 UNODC의 ‘Global Smart Programme’ 참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활동을 언급하였으며, 또한 INCB의 전자사전수출통보제도(On-line PEN)가 통제물질의 불법

전용을 막는 효과적 대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다) 정치선언 및 행동계획 채택

① 정치선언 주요 내용

- 세계인권선언의 원칙과 목적을 고려한 공급·수요 감축 및 국제공조
-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며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마약통제 정책 수립
- 효율적인 정보수집 시스템 마련 등

② 행동계획 주요 내용

- 마약류 통제계획을 마약수요 감축
- 공급차단
- 암페타민류 각성제 및 원료물질 통제
- 불법 마약작물 재배근절
- 자금세탁방지 등 다섯 분야로 구분, 이에 대한 이행을 권고함

라. 제52차 유엔마약위원회(CND) 전체회의 및 결의안 위원회 회의

(1) 전체회의(Plenary Meeting, 의제별 토론)

① 의제 3 : 사이버 밀거래 등 효율적 마약류 단속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정보교환 등 국제공조 강화

- UNODC는 마약, 원료물질 및 향정물질을 함유한 일반의약품의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법거래 단속능력을 갖춘 선진국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 간의 정보교환 및 수사지원을 촉구함
- INCB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통제물질 단속 지침서(Guidelines for Governments on Preventing the Illegal Sale of Internationally Controlled Substances through Internet) 발간을 소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함
- 영국은 UNODC가 언급한 정보수집(Data Collection) 시스템이 마약류 밀거래 관련 불법자금에 관한 정보를 간과하고 있음을 제기,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한국은 소량의 마약류 불법거래, 인터넷상의 학문적 연구목적의 마약 제조 매뉴얼을 악용한 마약류 불법제조 사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정보수집, 분석능력 강화 및 마약류 남용실태 관리와 원료물질의 효율적 감시 통제를 위한 국가 및 국제기구 시스템과의 협력활동을 소개함

② 의제 4 : 제20차 유엔마약특별총회 후속조치

- 국제적십자위원회(IFRC)는 마약통제 관련 보건정책의 필요성을 제기, UNODC 및 WHO의 마약류 중독 및 치료에 관한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소개함
- 마약류 취약계층의 입장이 마약통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단체와의 협력을 강조함
- NGO인 'Human Right Watch'는 중국, 태국 등 일부 회원국 내 마약류 남용자의 자의적 치료감호여부 및 치료·재활 센터 내 인권침해 상황을 지적하면서 마약통제 정책 수립 및 이행에 있어 인권에 대한 고려를 촉구함

③ 의제 5 : 마약 수요 감축

- UNODC는 청소년들의 마약류 남용실태가 심각하다며 학교에서의 마약 남용 예방교육을 강조함
- 처벌 보다는 치료위주의 마약류 중독자 관련 정책수립 권고
- IHRA(International Harm Reduction Association)은 전체 AIDS 발생자 수 가운데 10%가 주사제 마약류 남용자이나 금번 회의에서 채택된 정치 선언 및 행동계획에 마약류 남용 폐해 감소(Harm Reduction) 관련 내용이 결여된 것에 유감을 표명함
- 한국대표단은 의료계, 언론 및 NGO와 협력하여 마약류 취약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예방 교육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한 치료·재활 프로그램, 치료조건부 기소 유예 등을 통한 마약류 수요감축 노력과 정확한 마약류 중독자 선별과 마약류 장기 중독자들의 남용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동시진단 기법을 소개함

④ 의제 6 : 불법마약 밀거래 및 공급 차단

- 지난 10년 간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아편재배가 감소한 반면 대마재배는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마약류 공급 차단을 위해서는 대체작물 프로그램의 지속적 지원 및 정보교환을 통한 지역적, 국제적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함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아프가니스탄 및 주변국들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동감함
- 한국대표단은 범죄인인도조약,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및 인터폴 공조 등 불법마약 밀거래 단속을 위한 사법공조 강화노력을 언급하면서 그 예로 파키스탄 마약단속국과의 공조를 통한 헤로인 원료물질(무수초산) 단속과 중국공안 당국과 공조를 통한 범죄인 인도 사례를 소개함

⑤ 의제 7 : 마약통제에 관한 국제조약 이행

- INCB는 1909년 국제아편조약(International Opium Convention)을 시작으로 마약류 통제(재배, 제조, 밀거래, 남용 등) 관련 각종 국제조약은 마약류 정책수립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언급함
- 또한 마약중독에 대한 우려, 보건 분야 담당자 교육 및 관련법규 부재로 인해 의료용 마약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 해결방안으로 WHO, 제약업계 등과의 협력을 제안함
- EU는 마약투약 시 주사제 공용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Needle Exchange Program) 등 마약남용 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 제기함
- 네덜란드는 자국이 공식적으로 운영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마약사용실(Drug Consumption Room) 및 카페(Coffee Cafe) 등 제한된 장소와 제한된 양의 마약남용의 양성화는 HIV/AIDS 예방, 불법공급 차단 등 오히려 마약통제에 있어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소개함
- 스위스는 노령화 사회가 증가함에 따라 진통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절한 공급은 복지향상에 필수임을 언급하고, WHO는 각국의 의료용 마약 수요에 대한 INCB 자료는 개발 약품의 효과적 분배에 기여할 것이라 함
- 한국은 효과적인 마약류 수출입 통제를 위해 2007. 1. 한국정부가 세계 최초로 마약류 전자공인증명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보안성에 대한

INCB측의 우려로 2008. 8.부터 중단상태에 있으나, 이에 대한 시정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동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기대함

(2) 결의안 위원회(Committee of the Whole)

- ① 금번회의에서는 23개국에서 19개의 결의안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의하였는 바, 결의안의 산발과 내용의 중복을 피하자는 자성적 의견이 나왔음(14개 결의안 채택 : 붙임 2 참조)
- ② 결의안 주요 내용
 -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마약 밀거래 대응위한 국제공조 지원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 마약류 감정 및 분석능력 강화 지원(아르헨티나)
 - 마약류 밀거래 경유국의 단속능력 강화(이란)
 - 마약류 정보수집 및 분석 시스템 개선(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 호주, 볼리비아 등)
 - 대체작물 개발 프로그램의 선례 유지 및 강화(페루, 태국)
 - UNODC 운영 및 재정 현황 개선(아르헨티나, 호주, 체코, 일본, 스위스, 미국)

4. 제19차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 참석

가. 회의개요

- (1) 회 의 명 : 제1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Anti-Drug Liaison Official's Meeting for Int'l Cooperation)
- (2) 일자 · 장소 : 2009. 9.16.~9.18.,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 (3) 주 관 : 대한민국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 (4) 참 석 : 21개국 및 4개 국제기구, 약 180여명

나. 주요의제

- (1) 각국의 마약류 범죄 실태 및 동향
- (2) 암페타민류 각성제 및 원료물질 수요 및 공급차단
- (3) 국제공조수사 등 협력 강화 방안

다. 회의 주요내용

(1) 기조연설

- ① 한국 검찰총장(김준규)은 이번 ADLOMICO 회의가 19차 회의로서, 각국의 마약법집행 기관간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고 소개
 - 세계는 지금 여러나라가 장벽없이 소통하는 국제화시대에 살고 있는데, 범죄현상 또한 국제적, 초국가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약범죄라 할 수 있음
 - 한국은 한때 고도성장과 함께 메스암페타민 남용이 큰 사회문제가 되었고 심지어 메스암페타민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었으나, 마약류 사범에 대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마약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2) 각국 마약류 범죄 실태 및 동향(Session 1)

- ① 캐나다 대표(연방경찰)는 캐나다가 합성마약인 메스암페타민과 MDMA의 주요 적출국으로서 특히 일본과 호주로 밀거래되고 있다고 소개
 - 대마초의 경우 캐나다 국내에서 사용과 생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미국으로 밀수되고 있음
 - 대마수지나 대마오일은 자마이카로부터 밀수되고 있음
 - 코카인은 꾸준히 캐나다에서 소비되는 마약이지만 호주 등으로 밀거래 하기 위해 캐나다를 중계지로 계속 이용하고 있음
 - 최근 캐나다에서 가장 심각한 마약은 KHAT로서 씹는 형태나 액체형태

로서 밀거래되고 있고 주로 우편물을 통해 케냐와 에티오피아에서 주로 밀반입되고 있음(한국, 영국등은 통제대상이 아님)

- ② 미국 대표(서울 주재 미 DEA)는 미국의 마약동향에 대해 소개
 - 미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것은 대마초이며 국내생산은 감소추세
 - 코카인은 남미에서 밀반입되며 서부와 동부가 약 6:4의 비율로 소비되고 있으며 멕시코산이 질이 낮음
 - 메스암페타민은 캘리포니아가 소비의 근원지임
 - 헤로인은 미시시피강 동부지역은 콜롬비아로부터, 서부지역은 멕시코로부터 밀반입되고 있음
 - 미DEA는 63국, 87개사무소가 있으며 미국내에는 227개사무소가 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DEA 요원 약100명이 활동하고 있음
- ③ 홍콩 대표(경찰)은 최근 홍콩에서 가장 심각한 마약인 케타민에 대해 적발실적과 처벌현황에 대해 소개
 - 2004년초 강력한 단속으로 중국본토에서 밀반입되던 것이 아시아 다른 국가로부터 홍콩으로 밀반입하고 있음
 - 2008년도에 4,360명이 케타민 남용으로 체포되었음(2009년 6월 현재 2,140명 체포)
 - 국제협력으로는 삼자회의(홍콩, 광둥성, 마카오), 미DEA, 호주경찰, 인도마약청, 캐나다경찰, 일본경찰, 네덜란드경찰, 한국경찰과 국제공조 수사하고 있고, ADLOMICO, IDEC(미DEA 주관), ADEC(일본경찰 주관), NCADA(싱가포르 주관) 등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있음
- ④ 독일 대표(연방경찰, 북경주재)은 자국내 2008년도 마약동향을 소개
 - 헤로인과 코카인의 적발실적은 감소, 대마류는 증가추세임
 - 자국내 마약류 밀조시설 적발이 최초로 20곳 이상으로 증가
 - 최근까지 가장 밀반입량이 많았던 네덜란드가 마약 단속 강화로 밀반입국이 다변화되고 국내생산이 증가
 - 독일에는 터키인 이주민은 많고 이들이 마약밀매와 관련 높음
- ⑤ 베트남(마약통제청)은 자국내 마약밀거래 상황을 소개
 - 북부 국경선에서는 마약밀거래 조직들이 합성마약은 베트남으로 밀반입

하고, 헤로인과 아편은 밀반출하고 있음

- 남서 국경선에서는 주로 합성마약과 헤로인을 베트남으로 밀반입하고 있는데, 이들 마약은 도박장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이러한 밀거래를 하고 있는데 최종목적지는 호주, 홍콩, 대만 등임
- 2008년 실적은 검거건수 13,371건, 20,781명 검거, 헤로인 206kg, 대마수지 8,600kg, 대마초 128kg, 아편 46kg, 케타민 2kg 등을 압수

⑥ 인도(마약통제청)은 자국내 마약밀거래 주요 특징에 대해 설명

- 합법적인 아편생산의 불법 유용과 질이 낮은 자국내 헤로인 생산
- 네팔로부터의 대마수지 밀반입
- 자국내 메타몰론의 밀조생산시설과 남아프리카로 밀거래
- 헤로인의 나이지리아 조직, 대마수지의 이스라엘 조직의 외국국적의 마약 밀거래 조직

⑦ UNODC(태국 방콕 주재 아시아지부)는 국제마약조직의 Network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국 마약단속기관간 Network이 중요하다고 강조

- 탈레반이 주로 활동하는 아프가니스탄 남부지역이 아편 생산의 주요 지역인 것처럼, 국가의 통제력이 마약단속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함

⑧ 인터폴 대표(태국 방콕소재 인터폴 아시아사무소)는 인터폴의 역할과 기능, 메스암페타민의 동향에 대해 소개

⑨ 캄보디아 대표(마약단속청)는 2008년도 198건(2007년도 152건) 적발 실적, 남용자수는 6,896 명이고 394명을 검거하였음을 소개

- 캄보디아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마약류 원료물질(Safrole-rich Oil : MDMA 원료물질)의 밀거래이고, 2008년 25톤을 압수했다고 소개
- 적발실적은 야바 116,772정, ICE 1.9kg, 헤로인 5,287g, 코카인150g임

⑩ 중국 대표(금독위원회)은 중국내 소비동향을 소개

- 헤로인 국내소비와 관련범죄 감소, 케타민 관련범죄는 제한적
- 신종 마약류(정제형 메스암페타민, MAGU, Happy Water⁸⁾, Fairy water⁹⁾, MDMA) 관련 범죄상황이 매우 심각함

8)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및 케타민을 함유하여 혼합한 액체형태의 일종

9) MDMA, Nimetazepan, Codeine을 혼합한 것

- 2008년 적발실적은 건수 61,900건, 헤로인 4.3톤, 아편 1.3톤, 메스암페타민 6.1톤, 케타민 5.2톤, 원료물질 1,113톤 적발
 - 244개의 마약밀조시설 적발, 73,400명 검거(헤로인사범 약77%, 신종 마약류사범 약19%, 아편사범 약2% 등임)
- ⑪ 일본 대표(경찰청)는 마약밀거래 동향, 최근 마약류 주요밀반입국가 및 적발사례 등 소개
- 메스암페타민의 주요 밀반입국가는 중국 약 38%, 캐나다 약 21%, 홍콩 약 13%등이며, 대마초는 북미지역 약 24%, 남아프리카 약 22%, 필리핀 약 9%, 네덜란드 약 8%등이며, MDMA은 네덜란드 약 34%, 캐나다 약 30%, 프랑스 약 6%등임
- ⑫ 뉴질랜드 대표(북경주재 경찰관)는 메스암페타민의 단속동향 소개
- 밀반입된 메스암페타민을 “ICE”라고 하고 자국내 밀조시설에서 생산된 것을 “P”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설들은 매우 냄새가 독하고 이동성이 있으며 화재나 폭발로 인하여 적발되기도 하고 냄새로 인하여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적발되기도 함
- ⑬ 필리핀 대표(마약단속청)는 자국내 마약 마약 밀거래 동향, 공급망 차단 정책 및 수요감축 정책에 대해 소개
- (3) 암페타민류 각성제 마약(ATS)의 수요 및 공급차단 방안(Session 2)
- ① 일본 대표(해상보안청)는 자국내 주요 담당 업무, 마약밀거래 동향, 마약밀반입에 대한 대응, 해상에서의 최근 적발사례 및 동향 등 소개
- 일본은 복잡한 해안지리로 해로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 가능성 높음
- ② UNODC(태국 방콕 주재 아시아지부)는 “TARCET”의 운용상황과 마약류 원료물질의 적발사례를 소개하면서 국제협력을 강조
- ③ 태국 대표(ONCB)는 합성마약과 원료물질의 통제에 대해 소개
- 야바는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태국의 북부지역을 통해 밀반입되고, MDMA는 유럽에서 항공여행자를 통해 밀반입되고 있음
- ④ 태국 대표(경찰)은 태국내 서아프리카 마약조직에 대해 설명

- 코카인, ICE, MDMA를 밀수입하고 헤로인은 아프가니스탄(황금의 초승달지대)에서 밀반입하여 이들 마약을 다시 호주, 대만, 일본, 미국 및 유럽지역으로 밀거래하고 있음
- 서아프리카 조직은 베트남인들을 이용한 삼킴수법 밀거래 성행
- 삼킴수법은 한 번 삼키는데 보통 6~8시간이 소요되며 태국 여성의 경우 약 1.5kg, 태국 남성의 경우 약 2kg을 삼키며, 이들은 주로 중국이나 인도에서 식당이나 가정부로 일하는 사람들임

(4) 국제공조 수사 등 협력강화 방안(Session 3)

- ① 미국 대표(방콕 주재 미 DEA)는 무수초산의 생산현황, 용도와 밀거래에 대해 소개
 - 전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무수초산은 25억kg, 전세계 헤로인 생산에 필요한 무수초산은 1백만30kg으로 약 0.5%를 차지하고 있음
 - 원료물질의 국제통제프로그램인 Project Cohesion과 Project Prism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협력 강화 필요함을 강조
- ② 일본 대표(경찰청)은 메스암페타민이 터키와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하여 최근 밀반입 많다고 발표
 - 한국이 마약사용이 적어 느슨한 세관검사를 이용하고, 인천공항이 허브 공항으로 인프라구축이 잘 되어 있어 마약밀매조직이 자주 이용하고 있음
 - 한국과 국제공조 수사로 일본내 마약밀매조직을 소탕하였음
- ③ UNODC(태국 방콕 주재 아시아지부)는 메콩강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국제무역과 불법거래에 대응한 국제협력 강조
 - 국경선에서의 단속기관인 세관, 경찰, 군인 등을 총망라한 단일 행정 기구인 BLO(Border Liaison Office)의 효율성과 단속실적 소개

5. 제33차 아·태지역 마약법집행 기관장회의(HONLEA) 참석

가. 개 요

(1) 회의 명칭, 기간 및 장소

- ① 명 칭 : 제33차 유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마약법집행 기관장회의
- ② 기 간 : 2009.10. 6.(화)~2009.10. 9.(금)
- ③ 장 소 : 인도네시아 덴파사르 디스커버리 호텔

(2) 참석자

- ① 회원국 20개국 등 약130명 참석
- ② 인터폴, WCO, UNODC등 국제기구 참관

(3) 의장단

- ① 의 장 : Gories MERE(인도네시아 마약위원회 의장)
- ② 부의장
 - Kevin ZUCCATO(호주 연방경찰청 국장)
 - Hiroyuki Osawa(일본 경찰청 마약과장)
- ③ 서 기 : Gautam Prasad Chandolla(인도 재무부 마약단속국 마약과장)

나. 회의 의제

- ① 의장단 선출
- ② 의제 채택 및 조직관련 업무
- ③ 주요 지역 마약류 밀거래 현황 및 단속활동
- ④ 제31차 HONLEA 회의 권고사항 이행 상황

⑤ Working Group 논의 사항

- 불법 마약류 밀거래 현황 및 지역내 새로운 동향
- 지역내 ATS(암페타민 계열 각성제) 불법제조 확산과 대응
- 마약밀거래 수익자금 환수 방안

⑥ 제34차 회의 계획 : 개최 희망국가 없음

⑦ 제33차 HONLEA 회의 결과보고서 채택

다. 주요 회의 내용

(1) 기조연설

① UNODC 아태지역 의장 연설(Mr. Gary Lewis)

- 아태지역의 최근 마약류 밀거래 현황 및 이에 대한 UNODC 역할 소개
- 마약류의 밀거래가 결국에는 세계 안보 및 인류복지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협요소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처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
- 마약류 단속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감사와 성과 등을 소개

(2) 주요 지역 마약밀거래 현황 및 단속활동

① UNODC(United Nations Office in Drug and Crime)에서는 각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태지역 내와 세계시장에서의 불법마약 생산 및 거래동향을 개관

- ATS의 생산과 남용이 지역내 가장 큰 문제이며 적발량도 가장 많으며, 이들 원료물질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소규모 또는 대규모 밀조시설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시 말해, ATS사용이 낮은 가격으로 넓게 퍼져 있음
- 케타민의 지역내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불법적으로 밀수입되거나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널리 확산되고 있음. 케타민이 심각한 국가에서는 이를 통제물질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불법 양귀비생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생계

- 수단의 충분한 자원과 불법생산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
- 불법마약류는 대부분 항공, 선박 및 우편을 통해 밀거래되고 있음. 항공과 선박을 이용한 밀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마약정보연락관들과 정보공유, 국제공조수사 및 통제배달이 중요하다고 강조
-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최근 양귀비 생산은 2007년 이후 약 36%가 감소
- 전 세계적으로 ATS의 생산은 증가하고 있으며 약 60여개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고, 그 사용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와 서남아시아에서 전세계의 약 절반을 사용
- UNODC가 추진하고 있는 ATS의 생산지원점을 확인하는 “SMART”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 요구
- UNODC는 아태지역에서의 ATS 밀거래 위협요소 10가지를 발표
 - 자국내 야바의 수요 증가 및 가장 큰 밀거래 시장
 - 미얀마의 불안정한 정치상황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헤로인에 이은 두 번째의 소비경향
 - 기 구축된 시장을 이용하는 메콩강지역에서의 생산증가 가능성
 - 많은 인구와 메콩강지역의 인접국가인 베트남의 위협 증가
 - 주요마약류로서 케타민의 소비 증가
 - MDMA의 주요공급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과거 교통의 편의에 의한 중계지에서 생산국으로 변하고 있음)
 - 캄보디아의 Safrole의 압수량 증가
 - 메콩강의 경제와 교통의 중심역할 증가
 - 남아시아(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의 새로운 생산지역으로의 출현

② 주요국가 마약밀매 경향 및 대책 발표(일본)

- 최근 메스암페타민 밀거래 건수가 급증하여 2008년 상반기 23건, 하반기 54건 및 2009년 상반기 102건임. 이에 대한 요인으로는 밀반입국가가 다양화(중국, 말레이시아, 터키, 남아공, 멕시코)되고 지방공항이나 항구를 통하여 밀수가 증가함.
- 또한 중국경찰, 일본경찰, 세관, 해상보안청, 마약통제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 성과를 소개하고, 이의 대한 성과를 중국 경찰, 홍콩 경찰,

인도네시아 경찰과 사례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음

- 2008. 8월부터는 일본정부는 3차 5개년 마약남용 예방 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

(3) 제31차 HONLEA 회의 권고사항 국가별 이행결과

- ① 국제기구 특히 UNODC 등의 적극적인 활동 지원 필요하며, 마약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 통제배달의 표준절차등을 개발하고 이행할 필요 강조
- ② 압수된 마약원료물질의 환경적으로 안전한 폐기를 위한 절차와 접근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각국에서는 자국의 법률체계 검토 필요
- ③ 또한 마약밀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마약단속직원들의 좀 더 많은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특히 밀조시설에서 압수된 마약류의 프로파일링과 최신 장비의 사용방법 습득이 중요하다고 역설

(4) Working Group 논의 사항

(가) 불법 마약류 밀거래 현황 및 지역내 새로운 동향

- ① 이란 대표는 지역 내에 발생하는 불법마약류 밀거래에 대해 소개
 - 주요 경작국가에서의 양귀비의 경작 현황, 아편 생산 현황 및 국제 아편 압수량을 소개
 - 2009년 7월 현재 압수량은 헤로인 15,967kg, 모르핀 8,856kg, 아편 349,336kg, 대마초 45,206kg 등임
- ② 베트남 대표는 서아프리카조직의 운반책 운용방식에 대해 발표
 - 서아프리카 조직에 대한 조사의 시발점은 중국에서 베트남 여권을 소지한 베트남인인 마약 운반책들이 검거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이러한 운반책들은 과부 또는 미국으로 보내주겠다고 서아프리카인들이 말하여 현혹된 여성들이며, 이들은 대부분 저학력자이거나 정보력이 부족한 사람들임
 - 서아프리카조직들은 태국, 인도, 파키스탄 정부의 강력한 단속활동에 따라 최근 베트남을 마약밀거래 지역으로 활용하고 있음

- 또한 이들 조직은 친구를 사귀거나, 영어를 하거나, 술집에서 일하거나, 저학력자, 저소득자 등과 결혼하여 남편처럼 행동하면서 거주하고, 이러한 여성들은 처음에는 마약을 밀거래한다는 것을 모르고, 의류나 식품 등의 샘플을 운반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③ 인도네시아 대표는 서아프리카 조직, 네트워크, 운반책의 운용을 소개
 - 이들 조직은 인도 뉴델리에서 볼트모어, 보스톤, 디트로이트, 토론토(캐나다), 두바이(UAE), 프레토리아(남아공), 방콕,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자카르타 등으로 조직을 확대
 - 인도네시아는 1990년 초기부터 특히 자카르타와 대도시에서 활동을 시작
 - 이들 조직은 10~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큰 계획이 있으면 서로 협력하나 그 사건이 끝나면 흩어져 다시 독립적으로 활동
 - 쇼핑몰, 카페, 나이트클럽 및 술집 등에서 친구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나중에는 결혼 등을 통해 그 주변 친척, 친구 등으로 확대하여 운반책을 포섭
 - 최초의 운반이 성공하면 그 다음은 내용물에 대해 말해 주면서 겁을 주어 실패하거나 운반을 거부하면 이미 파악된 가족을 죽인다고 협박
 - 이들 조직은 릴레이 방식이나 shot-gun 방식을 이용하여 헤로인이나 메스암페타민을 운반
- ④ 태국 대표는 서아프리카 조직에 의한 마약단속사례를 소개
- ⑤ 중국 대표는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제배달 방식과 그 단속사례 발표
- ⑥ 호주 대표는 헤로인 20kg이 특송화물인 양탄자속에 은닉되어 밀반입된다는 정보를 美DEA로부터 입수하고 파키스탄 정부, 중계지인 싱가포르 마약단속청, 싱가포르 항공사 등과 공조하여 국제통제배달을 통하여 관련혐의자 모두를 검거한 사례 소개

(나) 지역내 ATS(암페타민 계열 각성제) 불법제조 확산과 대응

- ① 태국 대표는 합성마약과 원료물질의 관리에 대해 발표
 - 합성마약은 격변하고 경쟁적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강장제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650억불 가량이 거래되고 있으며 적발 압수량의 약 56%가 동남아시아에서 압수되고 있음

-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합성마약은 메스암페타민(ICE, YABA), 엑스터시(MDMA, MDA) 및 케타민임
- 메스암페타민의 원료물질인 에페드린은 약품 제조에는 사용하지 않고 연구목적으로만 수입하고 있으며, 슈도에페드린은 의학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② 캄보디아 대표는 자국내 합성마약 밀거래 동향과 단속실적 발표

- 북동부지역은 여전히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생산된 메스암페타민과 헤로인의 중계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육로와 메콩강을 통해 캄보디아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국제마약조직은 마약생산시설들을 지속적으로 밀반입하고 있으며, 외국 생산기술자들은 불법마약류 제조와 외국에 수출하기 위한 원료물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캄보디아 국내로 들어오고 있음
- 캄보디아내에서는 엑스터시의 원료물질인 Safrole의 불법 채취가 심각한 문제임
- 2008년도 검거실적은 198건에 ATS 116,772정, 메스암페타민 1,933g, 헤로인 5,287g, Safrole 25톤임

③ UNODC는 불법 밀조시설지의 유해한 생산품의 화학제품 안전한 처리에 대한 의견을 발표

④ 호주대표는 ATS와 헤로인의 지문분석상황에 대한 설명

(다) 마약밀거래 수익자금 환수 방안

- ① 범죄조직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국제 규약을 마련하고 회원국들은 법률을 제정하여야 함
- ② 정보수집이나 적절한 분석도구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합법적인 송금방식이외의 송금방식에 대하여 긴밀한 정보교류가 필요함
- ③ 파키스탄 대표는 마약과 테러조직의 밀접한 상관관계에 대해 발표

- 아프가니스탄 테러조직의 마약관련 수익은 생산단계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약의 모든 거래단계와 국가간 이동에 있어서는 외화송금단계 등에도 개입하여 창출하고 있음
 - 지금까지는 테러자금의 원천이 아편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라고 알고 있었으나 사실은 대마초가 더 무시한 위협요소로서 농부들은 현금확보 수단으로서 대마초를 재배하는 것을 더 좋아하며, 대마초가 가장 큰 시장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이 정비되어 있을뿐 아니라 대마수지로부터 얻어진 수익이 아편수익의 약 두배에 달하는 등 대마류가 테러자금의 근간임
 - 아프간에서 생산된 헤로인 479톤의 소비시장은 유럽이 287톤, 북미지역이 48톤, 기타지역이 144톤임
 - 아프간 마약자금 근원은 헤로인이 640억불, 대마수지가 1,510억불임
- ④ 파키스탄 대표는 하왈라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최근의 조사방향에 대해 발표
- “Hawala”란 사람이 실질적인 외국으로의 이동없이 발생하는 국가간의 자금의 송금방식의 한 형태(고대 인도시대의 “Hundi”임)로서 일부국가에서는 합법적인 송금형태이지만 파키스탄에서는 불법 송금방식임
 - 하왈라 방식을 선호하는 것은 저렴한 송금수수료와 불법자금의 수수가 용이하기 때문임
- ⑤ 한국 대표(대검찰청)는 법률적 근거와 필요에 의한 합동수사 발표
- 관세청과 대검찰청의 MOU에 의한 합동수사팀 운영과 그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외국 국적의 마약밀거래자에 대한 단속성과를 발표

6. 한·태 교환훈련 보고서

가. 개 요

(1) 훈련개요

- ① 훈련명칭 : 「The exchange of mutual working visit program on drug enforcement」
- ② 훈련주관 : 한국·태국 관세청
- ③ 훈련기간 : 2009.12.21.(월)~12.26.(토)
- ④ 장 소 : 태국 관세청, 수완나폼(Suvarnabhumi) 국제공항, 람차방(Laem Chabang)세관, 태국마약통제처(ONCB)
- ⑤ 훈련성격 : 우리나라 관세청과 태국 관세청이 양국간 마약단속분야 활동 강화 및 실질적 정보채널 구축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실시
- ⑥ 훈련방식 : 양국 마약조사직원 상호 방문(년 1회)
 - 양국 관세청의 마약단속 활동 방문·현장 교육

(2) 훈련내용(방문지별)

(가) 태국 관세청(Thai Customs Department) 방문

- ① 훈련목표 : 태국 관세청 조직 및 태국세관의 마약단속 활동 파악
- ② 훈련내용
 - 태국 관세청의 마약단속 기능 및 역할
 - 태국세관의 지역별 마약단속 주요 현황
(마약 종류별 단속실적 및 검거사례 설명)
 - 태국세관 마약조사직원의 권한 및 단속법령

③ 태국 관세청 조직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소속으로 본청과 46개 세관으로 구성
- 본청은 청장 및 4개 분야의 부청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마약업무 담당부서는 조사감시국 조사3과로 마약사범 및 관세사범 단속, 마약우범화물 및 여행자 정보분석을 주업무로 하고 있음

④ 태국세관(총 46개)

- 크게 4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 제1구역(12개) : Bangkok을 중심으로 중앙지역 담당
 - 제2구역(9개) : NongKhai를 중심으로 북동쪽지역 담당
 - 제3구역(9개) : Chiangmai를 중심으로 북쪽지역 담당
 - 제4구역(16개) : Songkhla를 중심으로 남쪽지역 담당

⑤ 마약단속권한 및 법령

- 세관의 마약수사권한 : 마약단속법(Narcotics Control Act)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해 마약단속처(The Office of Narcotics Control Board: ONCB)로부터 별도의 지명을 받음
- 단속법령 : 마약법(Narcotics Act 1979), 향정신성물질법(Psychotropic Substances Act 1975) 및 유해물질관리에 관한 긴급포고령(Emergency Decree On Controlling the Use of Volatile Substances 1990)에서 수출입금지 및 제한 대상으로 관리

⑥ 비고 : 세부내용 및 마약단속현황 태국세관 제공 PPT 참조

(나) 수완나폼 국제우편센터(Suvarnabhumi International Airport Mail Center)

① 훈련목표

-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태국세관의 활동 및 주로 배송되는 품목을 확인하고, 국내 거주 태국인 노동자 등에 의해 국제우편물을 통해 밀반입되는 ‘야마’ 사전차단 역량 제고

② 훈련내용 : 국제우편물(Outbound) 마약 검색 활동

③ 특이사항

- 국제 우편물 반입 및 반출시 RISK MANAGEMENT 기법에 의한 우편물 우범화물선별, X-ray 검색기 활용 및 탐지침(Detective Needle) 활용
- 반입 반출 지역별로 우범지역 선정후 집중검색
- 8가지의 위험요소(indicator)를 지정하여 우범우편물 선별
- 다양한 은닉사례 소개를 통한 최신 적발기법 설명

(다) 방콕공항세관 마약조사과(Drug Enforcement Section) 방문

① 훈련목표

- 네팔 및 유럽 일부지역 등 마약우범국에서 입항하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우범자를 선별하는 기법 및 정보분석, 평가 등 전 과정에 대한 지식습득

② 훈련내용 : 방콕공항세관 마약류 단속활동 및 검색장비

③ 주요내용

- 우범국 및 우범항공기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타겟팅(Targeting)
- 내부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정보 배포
- 동태관찰을 통한 우범자 선별
- 체내 은닉 마약류 검색시 지정된 장소에서 권한있는 마약조사직원이 Body X-ray 촬영 및 검색
- 마약사범에 대해서 72시간 신병 확보 및 조사

(라) 태국마약통제처(ONCB) 방문

① 훈련목표

- 태국내 최대마약단속기관인 ONCB와 지속적인 교류관계 및 연락체계(Contact Point) 강화

② 훈련내용

- 태국 마약통제처(ONCB) 조직 및 역할
- 최근 마약 밀수출입 단속현황(PPT 설명)
 - 마약적발건수 : 108,336건 마약검거인원 : 118,497명
 - 압수재산 : 906백만바트(1,924건에서 압수함)

- ※ 전체 적발건수 중 메스암페타민(야바)가 78.96%를 차지하여 태국내 주마약류는 야바(YABA)임.
- 야바는 주로 골든트라이앵글(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지역로부터 태국으로 밀수입되고 있음(정당 소매가격 200~300바트 : 한화 1만원 상당)
- 야바는 정당 20~30% 상당의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정보분석에 의하면 골든트라이앵글지역내 12개 생산공장과 태국내에 23개의 주요 마약공급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기타 PPT참조)
- 최신 적발 사례 사진 설명
- 한국내 태국 노동자의 야바(YABA) 남용실태 설명 후 국내 야바 밀수입 조직과 태국내 판매조직간의 정보교환 필요성 설명후 사무총장을 면담 후 ONCB와 관세청과의 정보교환을 요청
- 태국→한국 마약밀수입 사례 PPT 설명(7급 배경탁)

(마) 람차방세관(Laem Chabang Port Customs Bureau) 방문

① 훈련목표

- 컨테이너 X-ray 검색장비 활용 및 이미지 판독기법 연구를 통한 컨테이너 은닉 마약 식별

② 훈련내용

- 세계 10위권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는 항구의 물류시스템 태국 수입량의 90%, 수출량의 5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항구세관
- 최근 마약류 밀수출입 적발사례 설명 (PPT자료설명)
- 컨테이너 화물 선별 및 X-ray 장비 견학
- 엑스레이 검사의 장점 및 업무흐름도 설명
- 15분내 컨테이너 1대를 검색할 수 있는 고정식 컨테이너 견학
- 메가포트(MegaPort Initiative) 설명
- 핵물질 및 방사능 물질 검색, 적발 등을 위함
- 모든 컨테이너는 검색모니터(RPMs)를 통과하여 검사를 받음
- 2005년 태국과 미국사이에 MOU 체결함.
- 2009년 메가포트 작전을 시행함(MEGAPORT OPERATION)

【1단계】

- * 중앙관제소(central alarm station : CAS)를 운영함
- 2명의 세관직원이 24시간 3교대로 운영하며 RPMS와 세관감시시스템 운영

【2단계】

- * Secondary Inspection Station (SIS)
- 2~3명의 세관검사직원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며 핵물질 및 방사능 이상유무를 직접 확인 검사하는 업무담당

③ 주요내용

- 고정식 컨테이너 X-ray 이미지 판독을 통한 검색대상화물 선별 및 적발현황

(4) 기타 활동

(가) 태국 주재 관세관과 업무협의를 및 정보수집

- ① 駐태국 한국대사관 근무 관세관 정승환 과장을 만나 태국 현지에서의 활동상황을 듣는 한편, 정승환 과장은 함께 태국마약통제처(ONCB) 및 태국세관 국제우편센터 방문과 태국세관 직원과의 교류에 참가하여 마약단속제도 및 실태에 관하여 업무협의
- 특히, 함께 태국세관 직원과의 정보교류시 한국 거주 태국인의 마약 밀수관련 환치기계와 운영협의 외환은행계좌에 관한 정보를 입수(관련 자료는 귀국후 외환조사과에 통보)
- 태국주재 한국대사관 관세협력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관세국경에서의 마약단속활동 증대방안 모색

(나) 태국세관 직원들과의 개별적 인적교류

- ① 방문지 태국세관 직원 및 한태교환훈련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태국 세관직원과의 공식만찬 및 소규모 비공식 만찬을 통한 상호 인적 네트워크 형성
- 태국세관 직원들과의 만찬을 통하여 친선을 도모하고, 이와 더불어 태국인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한 자긍심을 얻을 수 있었음

참 고 자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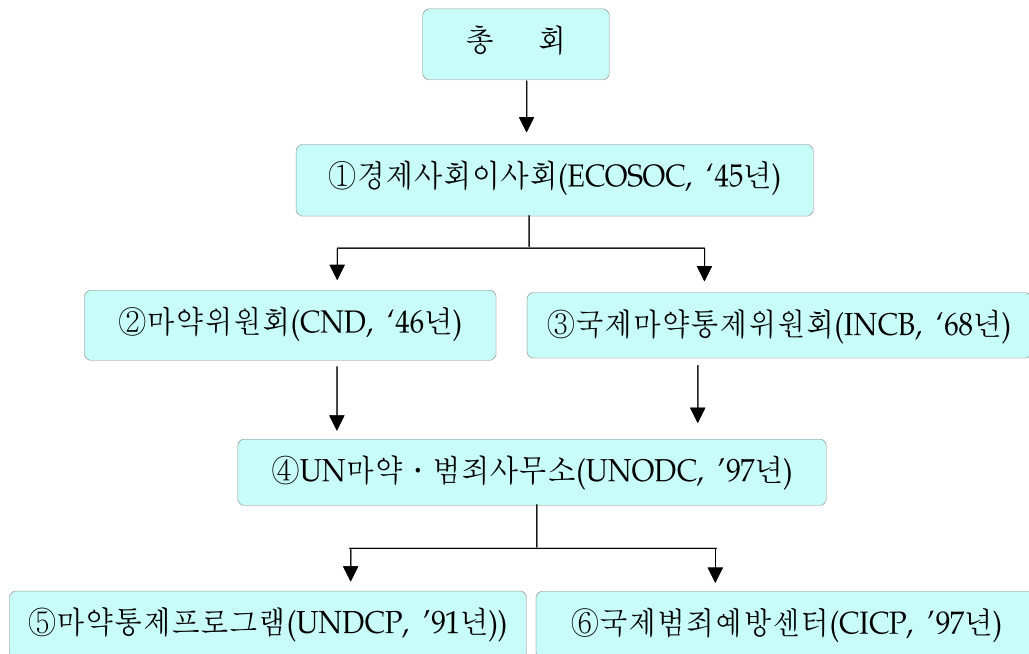
【참고자료】

1. 해외에서 반입시 마약류로 단속대상이 되는 의약품

상품명		마약류성분명	약리적 작용	부작용
1	去痛片(거통편)	페노바르비탈 (Phenobarbital)	두통 감기약, 수면진정제, 신경안정제	편집성 사고, 자살충동, 적개심, 호전적 태도, 침울감
2	複方茶砍片 (복방다감편)			
3	複方甘草片 (복방감초편)	모르핀, 코데인	기침, 목 감기약 진정, 진통, 중추신경 억제제	도취감, 변비장애 유발
4	分氟拉名片 (분불납명편)	펜플루라민 (Fenfluramin)	식욕억제작용	어지러움, 설사, 구토, 복통 증세 및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사례 있음
5	常駐靑(상주청) = 七仙減肥膠丸 (칠선감비교환)			
6	芬美淋片 (분미림편)			
7	纖秀減肥丸 (섬수감비환) = DIET-B			
8	貝氏減肥片 (패씨감비편)			
9	纖立得 (섬립득= 남역보각취당교낭)			
10	조제품(태국산)	펜터민	식욕억제작용	신경과민, 환각, 고혈압
11	조제품(태국산)	디아제팜	신경안정제	어지러움, 근무력증
12	조제품(태국산)	펜플루라민	식욕억제작용	어지러움, 설사, 구토, 복통
13	Ritalin (리탈린, 미국산)	메칠페니데이트 (METHYL- PHENIDATE)	주의력 결핍 및 과다행동장애치 료제	불면증, 식욕감퇴, 체중저하, 자살시도, 중독성 정신병
14	Concerta (콘서타, 미국산)			
15	Metadate (메타데이트, 미국산)			

2. 국제연합(UN)의 마약관련 조직 및 협약

가. 마약관련 UN 조직



① 경제사회이사회(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

- UN 총회 산하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정을 맺고 있는 16개 UN전문기구(ILO, WHO 등)들이 수행하는 경제·사회·문화·교육·보건 등의 활동을 지휘·조정(1945년 설립)

- UN총회에서 선출된 54개 이사국으로 구성(임기는 3년)

※ 한국은 1992년, 1997년 이사국 선출

- 산하기구로는 위원회, 상임위원회, 임시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및 6개의 기능위원회가 있음

② UN마약위원회(CND: UN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 UN경제사회이사회 산하 6개 기능위원회의 하나로 4년 임기의 53개 위원국으로 구성(1946년 설립)

- 임무 및 기능

- 국제 마약통제정책 결정의 최고기구(심의기구)
- 마약 및 향정물질의 통제 및 관련 정책 조정
- UNDCP에 대한 정책조언, 활동감독 및 운영예산 승인권 행사
- 매년 3~4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정기회의(CND회의) 개최

※ 한국은 1991. 5. 위원국으로 피선, 1995. 5. 재선됨

③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 61년 UN 마약단일협약에 의해 설립된 기구로 CND에서 지명한 10명과 WHO에서 지명한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1968년 설립)

- 임무

- 의료용·과학용 마약류의 공급량 및 합법 마약류의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여 합법통로에서의 불법유출 감시(마약류의 합법적 제조·거래·판매 관련)
-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전용 방지를 위한 각국 지원

- INCB는 각국 정부 및 유엔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준사법적인 통제기관

- UNDCP와 상호보완적 기능수행(UNDCP내 INCB사무국 설치)

④ UN마약·범죄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 1997.11. 1. 기존 별도로 운영되던 UNDCP와 CICP를 통합해 UN 마약통제및범죄예방위원회(ODCCP: Office for Drug Control and Crime Prevention)를 설치하여 마약 및 조직범죄 등 국제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통합된 협력·조정 센터

- 2002.10. 1. ODCCP를 UNODC로 개명

- 본부는 비엔나에 있으며 UNDCP와 CICP를 합쳐 약 350명 정도 근무

⑤ UN마약통제프로그램(UNDCP: UN International Drug Control Programme)

- UN의 마약 관련 최고 집행기구로서 1991. 3. 1. 기존 UN 사무국 마약과, INCB 사무국, 마약남용통제기구(UNFDAC)을 통합하여 설립
- 임무
 - － 개발도상국의 마약류 불법재배에 대한 개발사업, 마약류 남용예방, 중독자 재활, 치료, 마약류 불법거래 감시 및 과학장비, 재정지원 등 UN의 모든 마약통제정책에 대한 지도업무 수행
 - － 매년 UNCND와 HONLEA 등의 회의 개최

※ 한국은 2000년부터 매년 100,000불 기여금 제공

⑥ 국제범죄예방센터(CICP: Center for International Crime and Prevention)

- 범죄예방, 형사사법제도 개선 및 형법개혁관련 유엔기구로 주로 국제 조직범죄, 부패 및 인신매매 관련 업무 담당

나. 마약관련 UN 협약

① 1961년 마약류에관한단일협약

(The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of 1961)

- 이전까지의 마약에 관한 국제협약을 단일화한 협약
- 현재 116개의 마약이 동 협약의 관리대상이며 아편, 모르핀, 헤로인 및 코데인 등의 천연마약과 메사돈, 페치딘 등의 합성마약, 코카인 및 대마 등을 통제함
- 2가지 통제장치
 - － 마약의 소지, 사용, 수출입, 배포, 생산은 의료용 및 과학적 용도에 국한
 - － 마약밀거래를 약화시키기 위해 국제적 협력 강화

- 2002.12. 현재 173개국 가입(※ 한국은 1964년 가입)
- ②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관한협약
(The Convention on Psychotropic Substance of 1971)
 - 향정신성물질에 대한 국제적 통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발족
 - 관리대상물질은 현재 111개로, 주로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의약품에 포함되어 있는 향정신성물질로 각성제, 환각제, 항우울제 및 진통제가 있음
 - 2002.12. 현재 172개국 가입(※ 한국은 1978년 가입)
- ③ 1988년 마약및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관한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 불법마약류의 국제적 이동 및 불법 자금세탁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1988.12.19. 비엔나에서 채택(일명 비엔나협약 또는 88협약 이라고도 함)
 - 주요내용
 - － 마약관련 자금세탁 처벌, 불법수익 몰수, 통제배달, 범죄인 인도
 - －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이 불법제조에 사용되는 에페드린, 아세톤, 무수초산(헤로인 원료물질), 과망간산칼륨(코카인 원료물질) 등 22가지 원료물질을 통제·관리
 - 2002.12. 현재 166개국 가입
 - ※ 한국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법률」이 1995.12. 6.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내법 정비·완료 후 1998년 152번째로 동 협약 가입

3. 마약류 및 원료물질 HSK 연계표(알파벳 순)

NO	영문명	한글명	HSK	분류	별표 번호
1	1-Phenyl-2-propanone	1-페닐-2-프로파논	2914.31-0000	원료	8-1군05
2	2,5-Dimethoxy-4-ethylamphetamine(=DOET)	2,5-디메톡시-4-에틸- 암페타민	2922.29-9090	향정	4-13
3	2,5-Dimethoxyamphetamine(=2,5-DMA)	2,5-디메톡시암페타민	2922.29-9090	향정	3-02
4	2C-B(4-Bromo-2,5-dimethoxyphenethylamine)	2씨-비	2922.29-9090	향정	4-21
5	2C-I(2,5-dimethoxy-4-iodophenethylamine)	2씨-아이	2922.29-9090	향정	4-26
6	3,4,5-Trimethoxyamphetamine(=TMA)	3,4,5-트리메톡시암페타민	2922.29-9090	향정	3-07
7	3,4-Methylenedioxyamphetamine(=MDA)	3,4-메틸렌디옥시 암페타민	2932.99-9090	향정	3-06
8	3,4-Methylenedioxy-phenyl-2-propanone (=1-(1,3-Benzodioxol-5-yl)propane-2-one)	3,4-메틸렌디옥시페닐 -2-프로파논 (=1-(1,3-벤조디옥솔 -5-일)프로판-2-온)	2932.92-0000	원료	8-1군09
9	3-Methylfentanyl	3-메틸펜타닐	2933.39-9090	마약	2-70
10	4-Bromo-2,5-dimethoxyamphetamine	4-브로모-2,5-디메톡시 암페타민	2922.29-9090	향정	3-01
11	4-Methoxyamphetamine(=PMA)	4-메톡시암페타민	2922.29-9090	향정	3-03
12	4-Methyl-2,5-dimethoxyamphetamine(=DOM,STP)	4-메틸-2,5-디메톡시 암페타민	2922.29-9090	향정	3-05
13	4-MTA : α-methyl-4-methylthiophenethylamine	4-엠티에이	2930.90-9099	향정	3-24
14	5-Meo-DiPT	5-메오-딕트	2933.99-1000	향정	3-26
15	5-Methoxy-3,4-methylenedioxyamphetamine(=MMDA)	5-메톡시-3,4-메틸렌디 옥시암페타민	2932.99-9090	향정	3-04
16	Acetic Anhydride	무수초산	2915.24-0000	원료	8-1군13
17	Acetone	아세톤	2914.11-0000	원료	8-1군14
18	Acetorphine	아세토르핀	2939.19-0000	마약	1-01
19	Acetyl-α-methylfentanyl	아세틸-알파-메틸펜타닐	2933.39-9090	마약	2-68
20	Acetyldihydrocodeine	아세틸디히드로코데인	2939.19-0000	마약	1-26

NO	영문명	한글명	HSK	분류	별표 번호
21	Acetylmethadol	아세틸메사돌	2922.19-9000	마약	2-01
22	Alfentanil	알펜타닐	2933.33-0000	마약	2-65
23	Allobarbitol	아로바르비탈	2933.53-0000	향정	5-01
24	Allylisopropylacetylurea	아릴이소프로필아세틸 우레아	2924.19-9090	향정	5-55
25	Allylprodine	알릴프로딘	2933.39-9090	마약	2-02
26	Alphacetylmethadol	알파세틸메사돌	2922.19-9000	마약	2-03
27	Alphameprodine	알파메프로딘	2933.39-9090	마약	2-04
28	Alphamethadol	알파메사돌	2922.19-9000	마약	2-05
29	Alpha-methylfentanyl	알파-메틸펜타닐	2933.39-9090	마약	2-69
30	Alphaprodine	알파프로딘	2933.39-9090	마약	2-06
31	Alphenal	알페날	2933.54-0000	향정	5-02
32	Alprazolam	알프라졸람	2933.91-0000	향정	6-01
33	Amfepramone	암페프라몬	2922.31-0000	향정	6-02
34	Amineptine	아민엠펙틴	2922.49-9000	향정	4-22
35	Aminorex	아미노렉스	2934.91-0000	향정	6-61
36	Amobarbital	아모바르비탈	2933.53-0000	향정	5-03
37	Amphetamine	암페타민	2921.46-0000	향정	4-01
38	Anileridine	아닐레리딘	2933.33-0000	마약	2-07
39	Anthranilic acid	안스라닐릭산	2922.43-1000 2922.43-9000	원료	8-2군03
40	Aprobarbital	아프로바르비탈	2933.54-0000	향정	5-04
41	Barbital	바르비탈	2933.53-0000	향정	5-05
42	Barotalum	바로타룸	2933.54-0000	향정	5-34
43	Benzethidine	벤제치딘	2933.39-9090	마약	2-08
44	Benzphetamine	벤즈페타민	2921.46-0000	향정	4-18
45	Benzylmorphine	벤질모르핀	2939.19-0000	마약	1-02
46	Benzylpiperazine	벤질피페라진	2933.59-2090	향정	4-27
47	Betacetylmethadol	베타세틸메사돌	2922.19-9000	마약	2-09
48	Betameprodine	베타메프로딘	2933.39-9090	마약	2-10
49	Betamethadol	베타메사돌	2922.19-9000	마약	2-11
50	Betaprodine	베타프로딘	2933.39-9090	마약	2-12
51	Bezitrarnide	베지트라마이드	2933.33-0000	마약	2-13
52	Brallobarbitol	부라로바르비탈	2933.54-0000	향정	5-06
53	Bromazepam	브로마제팜	2933.33-0000	향정	6-03

NO	영문명	한글명	HSK	분류	별표 번호
54	Bromdiethylacetylurea	브롬디에칠아세칠우레아	2924.19-9090	향정	5-56
55	Bromvalerylurea	브롬바레릴우레아	2924.19-9090	향정	5-57
56	Brotizolam	브로티졸람	2934.91-0000	향정	6-04
57	Bufotenine	부포테닌	2939.99-9000	향정	3-08
58	Buprenorpine	부프레노르핀	2939.11-9000	향정	5-58
59	Butalbital	부탈비탈	2933.53-0000	향정	5-08
60	Butallylonal	부타리로날	2933.54-0000	향정	5-09
61	Butobarbital	부토바르비탈	2933.53-0000	향정	5-10
62	Butorphanol	부토르파놀	2933.49-9090	향정	6-05
63	Camazepam	카마제팜	2933.91-0000	향정	6-06
64	Cannabis	대마	1211.90-9099	대마	법제2조5호
65	Cannabis extracts and tinctures	대마추출물과 킵크쥬어	1302.19-9099	대마	법제2조5호
66	Cannabisoil (Hashishoil)	대마오일(해쉬쉬오일)	1302.19-9099	대마	법제2조5호
67	Cannabisresin (Hashish)	대마수지(해쉬쉬)	1301.90-9000	대마	법제2조5호
68	Carbubarbital	카르부바르비탈	2933.54-0000	향정	5-40
69	Carisoprodol	카리소프로돌	2924.19-9090	향정	6-66
70	Cathine	케친	2939.43-0000	향정	6-07
71	Cathinone	케치논	2939.99-9000	향정	4-12
72	Chloral betaine	클로랄비테인	2923.90-0000	향정	6-08
73	Chloral hydrate	클로랄하이드레이트	2905.59-0000	향정	6-09
74	Chlordiazepoxide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	2933.91-0000	향정	6-10
75	Chlorhexadol	크로르헥사돌	2911.00-9000	향정	5-45
76	Clobazam	클로바잠	2933.72-0000	향정	6-11
77	Clonazepam	클로나제팜	2933.91-0000	향정	6-12
78	Clonitazene	클로니타진	2933.99-9090	마약	2-14
79	Clorazepate	클로라제페이트	2933.91-0000	향정	6-13
80	Clotiazepam	클로티아제팜	2934.91-0000	향정	6-14
81	Cloxazolam	클록사졸람	2934.91-0000	향정	6-15
82	Coca leaf	코카엽	1211.30-0000	마약	법제2조2-가
83	Cocaine	코카인	2939.91-0000	마약	1-03
84	Codeine	코데인	2939.11-3000	마약	1-27
85	Codoxime	코독심	2939.19-0000	마약	1-04
86	Concentrates of poppy straw	양귀비줄기농축물 (알칼로이드 50%이상)	2939.11-4000	마약	법제2조제2호

NO	영문명	한글명	HSK	분류	별표 번호
87	Cyclobarbitol	싸이크로바르비탈	2933.53-0000	향정	5-11
88	Cyclopentobarbital	싸이크로펜토바르비탈	2933.54-0000	향정	5-12
89	Delorazepam	델로라제팜	2933.91-0000	향정	6-16
90	Desomorphine	데소모르핀	2939.19-0000	마약	1-05
91	Dexamphetamine	덱스암페타민	2921.46-0000	향정	4-02
92	Dextromethorphan	덱스트로메토르판	2933.49-9090	향정	6-65
93	Dextromoramide	덱스트로모라마이드	2934.91-0000	마약	2-15
94	Diampromide	디아프로마이드	2924.29-9099	마약	2-16
95	Diazepam	디아제팜	2933.91-0000	향정	6-17
96	Diberal	디베랄	2933.54-0000	향정	5-35
97	Diethylthiambutene	디에칠치암부텐	2934.99-9090	마약	2-17
98	Diethyltryptamine(=DET)	디에칠트립타민	2939.99-9000	향정	3-09
99	Difenoxin	디펜옥신	2933.33-0000	마약	2-64
100	Dihydrocodeine	디히드로코데인	2939.11-9000	마약	1-28
101	Dihydroetorphine	디히드로에토르핀	2939.19-0000	마약	1-34
102	Dihydromorphine	디히드로모르핀	2939.19-0000	마약	1-06
103	Dimenoxadol	디메녹사돌	2922.19-9000	마약	2-18
104	Dimepheptanol	디메페프타놀	2922.19-9000	마약	2-19
105	Dimethylamphetamine	디메칠암페타민	2921.49-9000	향정	4-25
106	Dimethylthiambutene	디메칠치암부텐	2934.99-9090	마약	2-20
107	Dimethyltryptamine(=DMT)	디메칠트립타민	2939.99-9000	향정	3-10
108	Dioxaphetyl butyrate	디옥사페틸부티레이트	2934.99-9090	마약	2-21
109	Diphenoxylate	디펜옥시레이트	2933.33-0000	마약	2-22
110	Dipipanone	디피파논	2933.33-0000	마약	2-23
111	DMHP	디엠에이취피	2932.99-9090	향정	3-11
112	Dormovit	도르모비트	2933.54-0000	향정	5-36
113	Drotebanol	드로테바놀	2933.49-9090	마약	2-63
114	Ecgonine	에크고닌	2939.91-0000	마약	1-07
115	Eldoral	엘도랄	2933.54-0000	향정	5-43
116	Enallylpropymal	엔아릴푸로피말	2933.54-0000	향정	5-13
117	Ephedrine	에페드린	2939.41-1000 2939.41-9000	원료	8-1군01
118	Eptazocine	에프타조신	2933.99-9090	향정	5-59
119	Ergometrine	에르고메트린	2939.61-1000 2939.61-9000	원료	8-1군02

NO	영문명	한글명	HSK	분류	별표 번호
120	Ergotamine	에르고타민	2939.62-1000 2939.62-9000	원료	8-1군03
121	Estazolam	에스타졸람	2933.91-0000	향정	6-18
122	Ethallobarbital	에트아로바르비탈	2933.54-0000	향정	5-14
123	Ethchlorvynol	에스크로비놀	2905.51-0000	향정	6-19
124	Ethinamate	에치나메이트	2924.24-0000	향정	6-20
125	Ethyl Ether	에칠에테르	2909.11-0000	원료	8-2군04
126	Ethyl loflazepate	에칠로프라제페이트	2933.91-0000	향정	6-21
127	Ethylmethylthiambutene	에칠메칠치암부텐	2934.99-9090	마약	2-24
128	Ethylmorphine	에칠모르핀	2939.11-2000	마약	1-29
129	Etizolam	에티졸람	2934.99-9090	향정	6-22
130	Etonitazene	에토니타젠	2933.99-9090	마약	2-25
131	Etorphine	에토르핀	2939.11-9000	마약	1-08
132	Etoxadine	에톡세리딘	2933.39-9090	마약	2-26
133	Etryptamine	에트립타민	2933.99-1000	향정	3-23
134	Fencamfamin	펜캄파민	2921.46-0000	향정	4-17
135	Fenetylline	페네틸린	2939.51-0000	향정	4-15
136	Fenfluramine	펜플루라민	2921.49-9000	향정	6-23
137	Fenproporex	펜프로포렉스	2926.30-0000	향정	4-11
138	Fentanyl	펜타닐	2933.33-0000	마약	2-27
139	Fludiazepam	플루디아제팜	2933.91-0000	향정	6-24
140	Flunitrazepam	플루니트라제팜	2933.91-0000	향정	5-60
141	Flurazepam	플루라제팜	2933.91-0000	향정	6-25
142	Flutoprazepam	플루토프라제팜	2933.99-9090	향정	6-58
143	Furethidine	푸레치딘	2934.99-9090	마약	2-28
144	gamma-Butyrolactone	감마부티로락톤	2932.29-3000	원료	8-1군16
145	GHB(Gamma-hydroxybutyric acid)	지에이치비	2918.19-1090	향정	6-64
146	Glutethimide	구루테치미드	2925.12-0000	향정	5-46
147	Halazepam	할라제팜	2933.91-0000	향정	6-26
148	Haloxazolam	할록사졸람	2934.91-0000	향정	6-27
149	Heptabarbital	헵타바르비탈	2933.54-0000	향정	5-15
150	Heptobarbital	헵토바르비탈	2933.54-0000	향정	5-16
151	Heroin	헤로인	2939.11-9000	마약	1-09
152	Hexethal	헥세탈	2933.54-0000	향정	5-17

NO	영문명	한글명	HSK	분류	별표 번호
153	Hexobarbital	헥소바르비탈	2933.54-0000	향정	5-18
154	Hydrochloric acid	염산(염류제외)	2806.10-0000	원료	8-2군07
155	Hydrocodone	히드로코돈	2939.11-9000	마약	1-10
156	Hydromorphenol	히드로모르피놀	2939.19-0000	마약	1-11
157	Hydromorphone	히드로모르폰	2939.11-9000	마약	1-12
158	Hydroxyamphetamine	하이드록시암페타민	2922.29-9090	향정	4-05
159	Hydroxypethidine	히드로시페치딘	2933.39-9090	마약	2-29
160	Ibogaine	이보게인	2939.99-9000	향정	3-13
161	Idobutal	이도부탈	2933.54-0000	향정	5-37
162	Isomethadone	이소메사돈	2922.39-9000	마약	2-30
163	Isosafrole	이소사프롤	2932.91-0000	원료	8-1군08
164	Ketamine	케타민	2922.39-9000	향정	4-24
165	Ketazolam	케타졸람	2934.91-0000	향정	6-28
166	Ketobemidone	케토베미돈	2933.33-0000	마약	2-31
167	Kratom	크라톱	1211.90-9099	향정	3-25
168	Lefetamine	레페타민	2921.46-0000	향정	6-29
169	Levamphetamine	레브암페타민	2921.46-0000	향정	4-03
170	Levomethorphan	레보메소르판	2933.49-9090	마약	2-32
171	Levomoramide	레보모라마이드	2934.99-9090	마약	2-33
172	Levophenacilmorphan	레보페나실모르판	2933.49-9090	마약	2-34
173	Levorphanol	레보르파놀	2933.41-0000	마약	2-35
174	Loprazolam	로프라졸람	2933.55-0000	향정	6-30
175	Lorazepam	로라제팜	2933.91-0000	향정	6-31
176	Lormetazepam	로르메타제팜	2933.91-0000	향정	6-32
177	LSD/LSD-25 (Lysergicaciddiethylamide)	엘 에스 디 / 엘 에스디-25	2939.69-0000	향정	3-14
178	Lysergic acid	리저직산	2939.63-1000 2939.63-9000	향정	5-47
179	Lysergic acid	리서직산	2939.63-1000 2939.63-9000	원료	8-1군04
180	Lysergic acid amide	리저직산 아마이드	2939.69-0000	향정	5-48
181	Mazindol	마진돌	2933.91-0000	향정	6-33
182	MDMA	엠디엠에이	2932.99-9090	향정	4-14
183	Mecloqualone	메크로콰론	2933.55-0000	향정	4-08
184	Medazepam	메다제팜	2933.91-0000	향정	6-34

NO	영문명	한글명	HSK	분류	별표 번호
185	Mefenorex	메페노렉스	2921.46-0000	향정	6-35
186	Meprobamate	메프로바메이트	2924.11-0000	향정	5-49
187	Mescaline	메스카린	2939.99-9000	향정	3-15
188	Mesocarb	메소카브	2934.91-0000	향정	6-62
189	Metazocine	메타조신	2933.39-9090	마약	2-36
190	Methadone	메사돈	2922.31-0000	마약	2-37
191	Methadone Intermediate	메사돈 제조 중간체	2926.30-0000	마약	2-38
192	Methamphetamine	메스암페타민	2939.91-0000	향정	4-04
193	Methaqualone	메타콰론	2933.55-0000	향정	4-09
194	Metharbital	메타아비탈	2933.54-0000	향정	5-19
195	Methcathinone	메스케치논	2922.39-9000	향정	3-22
196	Methohexital	메토헥시탈	2933.54-0000	향정	5-20
197	MethylEthylKetone(=MEK)	메칠에칠케톤(=부타논)	2914.12-0000	원료	8-2군08
198	Methyldesorphine	메칠데소르핀	2939.19-0000	마약	1-13
199	Methyldihydromorphine	메칠디히드로모르핀	2939.19-0000	마약	1-14
200	Methylphenidate	메칠페니데이트	2933.33-0000	향정	4-06
201	Methylphenobarbital	메칠페노바르비탈	2933.53-0000	향정	5-21
202	Methypylon	메치푸리론	2933.72-0000	향정	5-50
203	Metopon	메토폰	2939.19-0000	마약	1-15
204	Mexazolam	멕사졸람	2934.99-9090	향정	6-59
205	Midazolam	미다졸람	2933.91-0000	향정	6-36
206	Moramide Intermediate	모라마이드 제조중간체	2934.99-9090	마약	2-39
207	Morpheridine	모르페리딘	2934.99-9090	마약	2-40
208	Morphine	모르핀	2939.11-1000	마약	1-16
209	Morphine methobromide and other pentavalent nitrogen morphine derivatives, including in particular the morphine-N-oxide derivatives, one of which is codeine-N-oxide	모르핀 메소프로마이드 및 코데인-엔-옥사이드의 하나인 특히 모르핀-엔-옥사이드 유도체를 포함한 기타 5원자가 니트로젠 모르핀 유도체	2939.19-0000	마약	1-33
210	Morphine-N-oxide	모르핀-엔-옥사이드	2939.19-0000	마약	1-17
211	MPPP	엠피피피	2933.39-9090	마약	2-73
212	Myrophine	미로핀	2939.19-0000	마약	1-18
213	N-acetyl-anthranilic acid	엔-아세틸안스라닉산	2924.23-0000	원료	8-1군07

NO	영문명	한글명	HSK	분류	별표 번호
214	Nalbuphine	날부핀	2939.19-0000	향정	6-63
215	Narcobarbital	나아코바르비탈	2933.54-0000	향정	5-22
216	Nealbarbital	네알바르비탈	2933.54-0000	향정	5-23
217	N-ethyl-3-piperidylbenzilate	엔-에칠-3-피페리딜 벤질레이트	2933.39-9090	향정	3-12
218	N-Ethylamphetamine: Etilamfetamine	엔-에칠-암페타민	2921.46-0000	향정	4-16
219	Nicocodine	니코코딘	2939.19-0000	마약	1-30
220	Nicodicodine	니코디코딘	2939.19-0000	마약	1-19
221	Nicomorphine	니코모르핀	2939.11-9000	마약	1-20
222	Nimetazepam	니메타제팜	2933.91-0000	향정	6-37
223	Nitrazepam	니트라제팜	2933.91-0000	향정	6-38
224	N-methyl-3-piperidylbenzilate	엔-메칠-3-피페리딜 벤질레이트	2933.39-9090	향정	3-16
225	Noracymethadol	노라시메사돌	2922.19-9000	마약	2-41
226	Norcodeine	노르코데인	2939.19-0000	마약	1-31
227	Nordazepam	놀다제팜(데메칠디아제팜)	2933.91-0000	향정	6-39
228	Norephedrine	놀에페드린	2939.49-1000	원료	8-1군12
229	Norlevorphanol	노르레보르파놀	2933.49-9090	마약	2-42
230	Normethadone	노르메사돈	2922.31-0000	마약	2-43
231	Normorphine	노르모르핀	2939.19-0000	마약	1-21
232	Norpipanone	노르피파논	2933.39-9090	마약	2-44
233	Opium	아편	1302.11-0000	마약	법제232-가
234	Oxazepam	옥사제팜	2933.91-0000	향정	6-40
235	Oxazolam	옥사졸람	2934.91-0000	향정	6-41
236	Oxycodone	옥시코돈	2939.11-9000	마약	1-22
237	Oxymorphone	옥시모르폰	2939.11-9000	마약	1-23
238	Oxypertine	옥시퍼어틴	2933.59-2090	향정	6-42
239	Parahexyl	파라헥실	2932.99-9090	향정	3-17
240	Paraldehyde	파르알데히드	2912.50-2000	향정	6-43
241	Pemoline	페몰린	2934.91-0000	향정	6-44
242	Pentazocine	펜타조신	2933.33-0000	향정	5-54
243	Pental	펜테날	2933.54-0000	향정	5-42
244	Pentobarbital	펜토바르비탈	2933.53-0000	향정	5-24
245	PEPAP	피이피에이피	2933.39-9090	마약	2-72

NO	영문명	한글명	HSK	분류	별표 번호
246	Pethidine	페치딘	2933.33-0000	마약	2-45
247	Pethidine Intermediate A	페치딘 제조중간체 에이	2933.33-0000	마약	2-46
248	Pethidine Intermediate B	페치딘 제조중간체 비	2933.39-9090	마약	2-47
249	Pethidine Intermediate C	페치딘 제조중간체 시	2933.39-9090	마약	2-48
250	Petrichloral	페트리클로랄	2911.00-9000	향정	6-45
251	Peyote	페이오트	1211.90-9099	향정	3-18
252	Phenadoxone	페나독손	2934.99-9090	마약	2-49
253	Phenampromide	페남프로마이드	2933.39-9090	마약	2-50
254	Phenazocine	페나조신	2933.39-9090	마약	2-51
255	Phencyclidine	펜사이크리딘	2933.33-0000	향정	4-10
256	Phencyclidine analogues- PCE : N-ethyl- 1-phenylcyclohexylamine	펜사이클리딘의 동족체 - PCE	2921.49-9000	향정	3-21
257	Phencyclidine analogues- PHP : PCPY: 1-[1-phenyl cyclohexyl]pyrrolidine)]	펜사이클리딘의 동족체 - PHP	2933.99-9090	향정	3-21
258	Phencyclidine analogues- TCP : 1-1-[1-(2-Thienyl) cyclohexyl]piperidine	펜사이클리딘의 동족체 - TCP	2934.99-9090	향정	3-21
259	Phendimetrazine	펜디메트라진	2934.91-0000	향정	6-46
260	Phenmetrazine	펜메트라진	2934.91-0000	향정	4-07
261	Phenobarbital	페노바르비탈	2933.53-0000	향정	5-25
262	Phenomorphane	페노모르판	2933.49-9090	마약	2-52
263	Phenoperidine	페노페리딘	2933.33-0000	마약	2-53
264	Phentermine	펜터민	2921.46-0000	향정	6-47
265	Phenylacetic acid	초산페닐	2916.34-1000 2916.34-2000	원료	8-2군05
266	Phetharbital	페타아비탈	2933.54-0000	향정	5-26
267	Pholcodine	폴코딘	2939.11-9000	마약	1-32
268	Piminodine	피미노딘	2933.39-9090	마약	2-54
269	Pinazepam	피나제팜	2933.91-0000	향정	6-48
270	Piperidine	피페리딘	2933.32-1000 2933.32-9000	원료	8-2군06
271	Piperonal	피페로날	2932.93-0000	원료	8-1군10
272	Pipradol	피프라드롤(알파 또는 감마)	2933.33-0000	향정	6-49

NO	영문명	한글명	HSK	분류	별표 번호
273	Piritramide	피리트라마이드	2933.33-0000	마약	2-55
274	Poppy straw	양귀비 줄기	1211.40-0000	마약	법제232-가
275	Potassium permanganate	과망간산칼륨	2841.61-0000	원료	8-1군15
276	Prazepam	프라제팜	2933.91-0000	향정	6-50
277	Probarbital	프로바르비탈	2933.54-0000	향정	5-27
278	Proheptazine	프로헵타진	2933.99-9090	마약	2-56
279	Propallylonal	프로파리로날	2933.54-0000	향정	5-28
280	Properidine	프로페리딘	2933.39-9090	마약	2-57
281	Propiram	프로피람	2933.33-0000	마약	2-62
282	Propoxyphene (Dextropropoxyphene)	프로폭시펜 (텍스트로프로폭시펜)	2922.14-0000	마약	2-67
283	Propoxyphene (Levopropoxyphene)	프로폭시펜 (레보프로폭시펜)	2922.19-9000	마약	2-67
284	Propylbarbital	프로필바르비탈	2933.54-0000	향정	5-29
285	Propylhexedrine	프로필헥세드린	2921.30-9000	향정	6-51
286	Pseudoephedrine	슈도에페드린	2939.42-1000 2939.42-9000	원료	8-1군06
287	Psilocybin	싸이로시빈	2939.99-9000	향정	3-19
288	Psilocyn	싸이로신	2939.99-9000	향정	3-20
289	Pyrrithyldione	피리칠디온	2933.79-9000	향정	6-52
290	Pyrovalerone	피로발레론	2933.91-0000	향정	6-53
291	Quazepam	쿠아제팜	2933.99-9090	향정	6-67
292	Racemethorphan	라세메소르판	2933.49-9090	마약	2-58
293	Racemoramide	라세모라마이드	2934.99-9090	마약	2-59
294	Racemorphan	라세모르판	2933.49-9090	마약	2-60
295	Remifentanil	레미펜타닐	2933.39-9090	마약	2-74
296	Reposal	레포살	2933.54-0000	향정	5-38
297	Safrole	사프롤	2932.94-0000	원료	8-1군11
298	Salvia divinorum	살비아 디비노럼	1211.90-9099	향정	4-23
299	Salvinorin A	살비노린 에이	2932.99-9090	향정	4-23
300	Secbutabarbital	섹부타바르비탈	2933.53-0000	향정	5-07
301	Secobarbital	세코르바르비탈	2933.53-0000	향정	4-19
302	Sigmodal	시그모달	2933.54-0000	향정	5-41
303	Spirothiobarbital	스피로치오바르비탈	2933.54-0000	향정	5-30
304	Sufentanil	서펜타닐	2934.91-0000	마약	2-71

NO	영문명	한글명	HSK	분류	별표 번호
305	Sulfondiethylmethane	셀폰디에칠메탄	2930.90-9099	향정	5-51
306	Sulfonethylmethane	셀폰에칠메탄	2930.90-9099	향정	5-52
307	Sulfonmethane	셀폰메탄	2930.90-9099	향정	5-53
308	Sulfuric Acid	황산(염류제외)	2807.00-1010 2807.00-1090	원료	8-2군10
309	Temazepam	테마제팜	2933.91-0000	향정	6-54
310	Tetrabarbital	테트라바르비탈	2933.54-0000	향정	5-31
311	Tetrazepam	테트라제팜	2933.91-0000	향정	6-55
312	Thebacon	테바콘	2939.11-9000	마약	1-24
313	Thebaine	테바인	2939.11-9000	마약	1-25
314	Thiamylal	치아미랄	2933.59-1999	향정	5-44
315	Thiopental	치오펜탈	2933.59-1999	향정	5-32
316	Tilidine	티리딘	2922.44-0000	마약	2-66
317	Toluene	톨루엔(순도50%초과, 95%미만)	2707.20-0000	원료	8-2군11
318	Toluene	톨루엔(순도95%이상)	2902.30-0000	원료	8-2군11
319	Triazolam	트리아졸람	2933.91-0000	향정	6-56
320	Trimeperidine	트리메페리딘	2933.33-0000	마약	2-61
321	Vinbarbital	빈바르비탈	2933.54-0000	향정	5-33
322	Vinylbital	비닐비탈	2933.53-0000	향정	5-39
323	Zipeprol	지페프롤	2933.55-0000	향정	4-20
324	Zolpidem	졸피뎀	2933.99-9090	향정	6-60
325	Zopiclone	조피클론	2933.79-9000	향정	6-57
326	1,4-Butanediol	1,4-부탄디올	2905.39-1000	원료	8

2009년도 마약류 밀수동향

2010/8 7월 땡 땡꿔
2010/8 7월 땡 ㄴ썩

발 행 □ A 꺾얏 ㄷ 땡땡꺾선
꺾돌넛 ∞(9) ㄱ 3 꺾 ㄴ 71
TEL □(02)510-1633

인 쇄 □ (땡) 썩 ㄴ 꺾 !
꺾돌넛 ∞(9) ㄱ 3 꺾 ㄴ 62-13
TEL □(02)545-6188

<비매품>